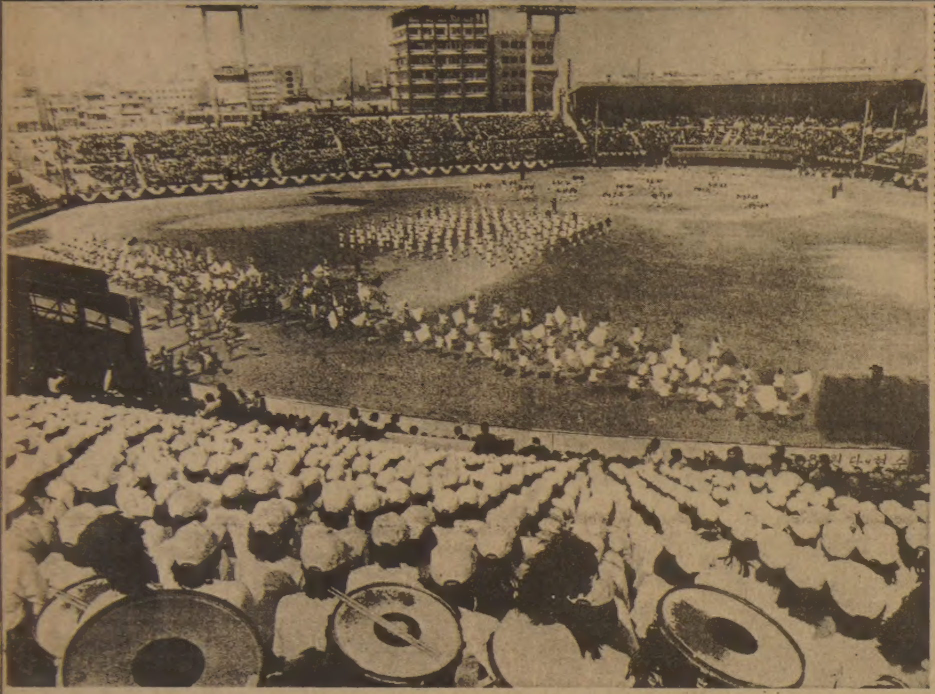
APR 1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785 1982년3월31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Wednesday, March 31, 1982

토론토발행인 : 김 영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정 서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어린이에겐 꿈을, 젊은이에겐 낭만을…」한국야구사에 새역사를 기록할 프로야구가 27일 막을 올렸다. 개회식에 앞서 화려한 식전 경축 공개행사가 서울운동장 스탠드를 메운 3만여 관중을 즐겁게 했다. MBC 청룡—삼성 라이언즈의 개막전을 스타트로 첫 시즌 2백 40게임의 열전에 돌입했다.

프로야구 화려한 개막

첫날부터 홈런! 또 홈런!

3만관중 환성, 드릴 연발

(서울본사전화)드디어프로야구시대가 열렸다. 한국야구의 새역사를 펼치는프로야구가 6개구단의 참여로 막을올린 것이다. 프로야구 개회식은 27일 서울운동장 야구장에서 프로출범을 경축하는 화려한 식전공개행사가 펼쳐지는 가운데 낮1시15분유창순국무총리등 3부요인과 프로 야구의 기수역할을 하게된 6개구단주, 일본프로 야구의 시모다 커미셔너, 쇼오리끼오오고소 구단주, 나가시마, 장훈씨등 축하사절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개회식에이어 2시20분 전두환대통령의 시구로 삼성라이언즈(대구)—MBC 청룡(서울)의 개막경기가 플레이볼 됐다. MBC청룡은10회말 2사후 6번 이종도가 역전결승 만루홈런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면서 11—7로 삼성라이언즈에 대역전승 했다.

팽팽한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의 선공으로시작된 삼성라이언즈—MBC청룡의 개막전은 홈팀인MBC청룡의 긴장이 지나쳤던지 초반잇단실책을 범하는 바람에 삼성이 큰 리드를 잡았다.

초반 5—1로 기선을 제압한 삼성은 5회초 4번 이만수가 프로첫홈런을 때려 팬들을 열광시켰다.

프로야구 최초로 마운드에 올라선 이길환은 2회까지 3안타를 허용하고 내야진의 결정적 실책 3개가 모두 득점에 연결돼 대량5점을 뺏긴채 강판했다. 삼성은 3회 무거운 직구의우완에이스 황규봉이 예리한 슬라이더를 가미, 호조의피칭을 보였고, MBC와는 반대로 철통같은 내야수비의 도움으로 착실히 막아냈다.

중반들어 MBC의 타격이 살아나면서 양팀은 불꽃튀는 타격전을 전개, 6회초까지 7—3 으로 리드당한 MBC청룡은 감독겸 선수로 지명타자를 맡은 백인천이 추격의 홈런을 날리는등 6회까지 삼성라이언즈가 7—4로 앞섰다. 그러나 MB C가 종반에 추격동점을 만들었다.

한국일보
533-2361

한인신용조합 총회

정관개정·임원선출 예정

토론토한인신용조합(이사장 한상훈) 총회가오는 8일(목) 하오 6시30분 동조합(641A Bloor St. W)에서 열린다.

주요안건은 81년도분 종합보고(이사회·업무·대출위·감사위)를 비롯, 정관개정, 임원선출, 사업계획수립등이다.

작년 5월말 자산 100 만달러를 돌파한 동조합은금년1월 200만달러 목표를 달성했다.

한인신용조합은 현재"목돈 만드는 신용적금, 목돈 꾸는 적금대출"이란 표어아래 일하고 있다.

대통령사건 구속된 문지식씨 사촌

새 주범 문부식 등장

미 문화원사건, "신좌익파 소행"

서울30일=연합)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방화용의자로 토론토교포 문지식의 사촌동생 문부식과 여학생 1명을 수배중이다. 문지식은전대통령살해음모사건 관련혐의로 한국서 구속돼있다.

부산시경찰국 한기형 수사반장은 이미옥(21)양, 최충운(19)군, 박원식(20) 군등 3명의 대학생을 체포하고 사건의 새로운 주범으로 고려신학대 4년 문부식(23)군과 그의동료 김은숙(24)양을 수배했다고 발표했다.

체포된 3명의 대학생은 모두 부산소재 고려신학대 학생으로 이들은 그동안집안에 숨어있었다고 경찰은 발표했다.

경찰에 의하면 체포된이양이 문군과 김양의 지시에따라 미문화원에 기름을 붓고 불을질렀다고 한다.

체포된 최군과 박군은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국도극장 3층에서 반미 구호가 담긴 전단(삐라)를 뿌린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문부식이 체포되면 대통령살해음모 사건의 윤곽이 더 밝혀질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경찰은 2주전 부산대학교의 학생소요 사건으로 체포된 이호철군이 방화사건과 관련이 있는지여부를 수사중이다.

한편 서정화 내무부장관은 3일 사건에 관련된 학생들은 반미운동을 펴는신좌익학생들로 북한에 동조적이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부정담배, 1년수사 결과

교포 4 명 벌금형

온타리오주정부 세입성의 포치에(C·A. Pothier) 수사관은 29일 세입성이작년부터 불법담배 탈세사건 수사에 착수한이후 온타리오주에서 4명의 한국인 이 벌금형을 받았으며 현재도 많은 한국인 상점주들이수사대상이 되고있다고 말했다.

포치에씨는 지금까지 벌금형을받은 한인들은 주로 인디언 보호구역등에서 면세된 담배들을 불법루트를 통해 구입, 도매상 허가없이 소매상점에게 도매거래한 사람들 이었다고 말했다.

최근 형이확정된 사람은 지난17일 브랜포드 지방법원에서 1만달러의 벌금형(혹은1년징역형)을 선고받은 토론토의 장모씨이며,

지난해 9월16일 토론토 지방법원에서 또다른 장모씨가 7천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을 포치에씨는 밝혔다. 토론토소재 두 유력단체의 고위간부인 이들은현재 불법담배업과는 완전절연했다.

두 장씨는 각각 $8,580 $6,912를 탈세했었다고포치에씨는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4월3일 런던의 김모, 원모씨가 불법담배 거래혐의로 각각 $8,580의 벌금형을 받았다.

업자가 탈세담배를 구입, 판매하면 탈세액외에 몇가지 벌금이 추가징수된다.

포치에씨는 상점주들이 조금 싸다고해서 불법담배를 구입했다가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물게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반드시허가를얻은 도매상에서 담배를 구입하도록 요망했다.

한인Y 5주년 잔치

노인들 영어노래 합창

토론토한인YMCA(이사장 전태균·총무 김창열)창설5주년 기념식이 27일 하오3시 관계자및 내빈약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회관(931 College St. Tor.)에서 성대히 거행됐다.

김창열 총무 사회로 전태균이사장의 개회사, 조남유 이사(목사)의 개식기도, 헨리·래빗 메트로토론토Y 회장의 격려사, 서정양의축가독창이 있었고, 이어 Y합창단원 유헬렌, 김줄리양의 이중창, 이진화양의· 바이얼린독주, Y이민봉 사과장 케이·이스트햄 여사의 축사, 기념케익 자르기 순서가진행됐다.

이 중간에 노인영어반할아버지 할머니 29명은 영어노래"노젓기"등 2곡을불러 이날행사중 가장 특이했다.

축가를 부른 메조·소프라노 서정양은 토론토에서 신학공부를 하고있으며 작년에 만주에서 아버지서춘봉(한의사)씨를 찾아와 이날 토론토교민사회에 첫선을 보였다.

유재신 초대 Y이사장, 구상회 2대이사장, 협조공로자 최상봉 목사(벧엘 교회), Y무용반 지도자 김정숙양, 언론협조자 정철기씨(민중신문사장), 웨스트 앤드YMCA 존·메데이로스 총무, 케이여사에게 각각감사패가 증정됐다.

이날 특히 관심과 호평을 받은것은 Y합창단의공연이었다. 안병원씨 지휘·김진숙양 피아노반주로 4곡을 선사한 합창은 많은 찬사를 들었다. 단원수는많지않아도 창단후 1년간 매주 목요일밤 빠짐없이 모여서 연습해온 실력이 이날 대외적 첫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백인소년·소녀들이 낀 Y태권도반의 태권도단체시범과 톰·리(이태우)사범의 송판깨기, 김정숙양지도의 Y무용반 어린이들의 꼭두각시춤등 공연도 흐뭇한 미소를 자아냈다.

이날 기념식 시작전에는 건물내 각종운동시설 단체관람이 있었으며, 유만식, 이웅건, 권혁일 3인조 기타반 지도로 참가자 전원의 "싱얼롱Y"합창시간을 가졌다.

기념식후 일동은 알파및 배디와이즈배즈클럽과 노인영어반이 준비한 칵테일파티로 담소의 시간을 가졌다.

토론토한인Y는 7년전시작됐으나 본격적 프로그램을 실시한 햇수를치면 금년이 5주년이 된다.

이번 행사는 대폭 수리한 Y회관의 개관식을 겸한 것이다. Y회관은 수영장, 사우나, 휠·풀, 스쿼시장, 달리기(조깅)시설등과 탁아실등을 가졌다. 오는3일부터 일반이 이용할수있다.

◆영어반 학생노인들이 영어노래를 부르고 있다.

오늘의 예금금리			
종 별	기 간	신 용 조 합	일 반 은 행
정 기 예 금	30일	14%	
	90일	14.25%	
	180일	14.5%	12.75~15%
	365일	15%	
	2년	16%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536-1692
R.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MOZART COLLEGE OF MUSIC

음악원생 모집안내

본 음악학원은 최신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으로 구성된 음악전문학교 입니다.

교수진 : 명문음악대학을 수료한 BA, ARCT학위 소지자로서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있는 교사들로 구성됨.
교수명 : GRACE SCOTT, ORELL FRITZ, LYUBOV SHILLER, SEMY SHILLER, ALICE YU, TATIANA GUTLIN, LAMBERT DANIELLE, KATHY SAUVE, TANYA DEMENTEVA, MICHAEL BRACKEN, HYE S YUN, ROBERT ROBERTS JANET KOH, VESNA SALIB, MILANA MULGREW.
과 목 : 피아노, 올겐, 바이올린, 기타, 훌룻, 성악, 이론및 화성.
편 성 :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개 강 : 4월5일
접 수 : 오전9 : 30~오후9 : 00까지 수시로 함.
장 소 : HILLCREST MALL 9350 YONGE ST. 883-9407
MARKHAM PLACE, DON MILL RD.& STEELES AVE. 881-8211
※보다 상세한 문의는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주 구함

본사 확장발전을 위한 뜻있는 자본주를 구합니다.
MOZART MUSIC CENTER LTD.
881-8230
※보다상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윤 호 섭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제54차 아카데미상 시상식

작품상 : "불전차", 감독상 : 워렌·비티

주연상은 "황금연못"이 휩쓸어

뛰뛰기 선수들의 의지력과 종교문제를 다룬 영국영화 "불 전차"(Chariots of Fire)가 "빨갱이들"(Red)과 "황금연못"(On Golden Pond)을 누르고 제 54차 아카데미작품상을 받았다.

29일밤 로스앤젤레스·뮤직·센터에서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남녀 주연상은 영화「황금연못」의 헨리·폰다와 캐서린·햅번이 각각 차지했다.

감독상은 "빨갱이들"의 워렌·비티, 주제음악상은 "아더"(ARTHUR), 조연여우상은 "빨갱이들"의 모린·스테이플톤, 조연남우상은 "아더"의 존·길것경에게로 각각 돌아갔다.

화려한 무대와, 의상, 위트로 엮어지는 아카데미상 시상식은 TV의 출현으로 영화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 것 이라는 60년대의 예상과는 달리 TV 중계덕분으로 오히려 세계 영화팬들의 관심을 좋은 영화작품에 쏠리게 하는 촉진제가 되고있다.

일단 아카데미상 후보작으로라도 선정된 작품은 흥행면에서 수 백만달러의 수익을 올린다는 것이 영화가의 뒷소식이다.

이날밤 "불전차"와"잃어버린 방주 의 침입자"(Raiders of the Lost Ark)가 각4개, "빨갱이들"과"황금연못"이 각3개씩의 상을 탔다.

"빨갱이들"로 감독상, 제작상, 각본상, 주연상후보에 올랐던 워렌·비티는 사회자 쟈니·카슨으로부터 "이러니까(여러부문에 후보로 지명되니까) 여자들이 쫓아다니지"란 농담을 받았다. 노장으로 최고의 영광을 받은 캐서린·햅번은 연극 출연차, 헨리·폰다는 와병으로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수상한 제인·폰다는 감격어린 목소리로 "아버지는 이 영광이 캐서린·햅번의 도움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헨리·폰다에게는 이것이 생애 최초의 아카데미상이다.

시상식에는 여우주연상후보였던 "빨갱이들"의 다이앤·키튼이 웨렌·비티, 잭·니콜슨과 나란히 앉았고 팝·호프, 버트·랭캐스터, 그레고리·펙등 노련한 명우들의 모습도 보였다.

비티와 동거한 키튼은 "빨갱이들" 촬영중 잭·니콜슨과 가까왔다는 염문을 낳았다.

주요한 각 부문별 수상작품은 다음과 같다.

◉작 품 상:불전차
◉주연남우상:헨리·폰다(황금연못)

◆감독상의 워런·비티

◉주연여우상:캐사린·햅번(황금연못)
◉조연남우상:존·길것(아서)
◉조연여우상:모린·스테이플톤(빨갱이들)
◉외 화 상:모피스토(헝가리)
◉원 작 상:반겔리스(불전차)
◉주제가 상 :아 더
◉각 본 상:불전차(콜린·웰란드)
◉각 색 상:황금연못(어니스트·톰슨)
◉촬 영 상:빨갱이들(비트리오·스토라토)
◉편 집 상:잃어버린 방주의 침입자들(마이클·칸)
◉특 별 상:쿠비·브론콜리(007영화 시리즈 제작자)
◉공 로 상:바바라·스탄위크(40년대 스타로 4차례후보로 지명됐었다.)

한국일보
533-2361

◆주연 남녀 배우상을 받은 헨리·폰다와 캐더린·햅번.

◆작품상을 탄 영화 "불 전차"

男性40代후 키줄어 人類학자 硏究발표

남성들은 나이가 들에따라 외형이 뚤라보게 바뀐다.

인류학자 게리·보트칸은 20년동안 2천명의 남성을 상대로 조사한결과 남성들은 40대이후부터 키가 줄어들며, 반면에 머리와 코와 귀는 점점커지는 것을 발견했다.

55세까지는 몸무게가 계속 늘지만 그 이후부터는 줄어들었으며 키는 40대와 50대에 들어서면 매10년마다 0.25인치씩 줄어들고 60대와 70대에서는 0.5인치씩 줄어들었다.

머리는 청년기에 모두 자라지만, 나이가 들면서 5년에 8/1인치 가량씩 더 커졌다.

보르만은 늙을수록 뼈가 내려앉아 머리가 커지고 또한 연골이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코와귀는 계속 커진다고 설명했다.

남성들은 20대중반에서 50대 초반사이에 평균 10.8파운드가 늘지만 50대에서 80대에 이르면 17.3파운드가 빠진다.

새 챔피언에 최중대

볼링, 문덕래에 18점 차

지난27일 플레이 타임스 볼링장에서 열린 제3회 교민볼링대회 남자부 A조개인전에서 최종대씨는 챔피언 문덕래씨를 18점차로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최씨는 566점, 지난연말 볼링협회주최 대회우승자 문씨는 548점이었다.

동부장로교회 청년회 가 주최한 이번대회에는 57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이대회 단체전은 개인들의 핸디캡을 인정, 실력의 평준화를 이루었다.

이채를 띄운것은 여자부로 전년도 우승자등 실력자들이 빠진채 김인옥, 최정숙씨세선수가 373점동점을 이뤄 하이싱글로 순위를 가려야 했다.

입상자 외에도 대회의모든 참가자들은 한국식품서부지점, 제일식품, 서울식품등이 제공한 쌀등의 경품을 나눠가졌다.

◇남자부A조
1위 최종대(566점)
2위 문덕래(548점)
3위 김종석(533점)
◇남자부 B조
1위 유용근(429)
2위 김인규(428)
3위 이충희(428)
◇여자부
1위 박영화(373)
2위 김인옥(373)
3위 최정숙(373)
◇단체전
1등 연합교회(1487)
2등 벧엘교회(1485)
3등 타이거팀(1463)
터키상(연속3스트라익)
김홍배, 이인식, 김종석
하이싱글 : 김홍배(214점)
장려상 : 오진혜, 이재근
추별상 : 정용필

3億人口가 굶는다고 印기획원長官 증언

〈뉴델리, 인디아 〉 6억8천5백만명중 거의 절반에 이르는 3억의 인도인이 빈곤자로 제대로 하루 세끼를 먹지 못하고 있다고 차반 기획원장관이 의회에서 증언했다.

통계에 따르면 3억4백60만명이 하루에 최저열량도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재미교포에 추파

"월"지보도, 81년 후반에 60여명 북한 방문

미국및 캐나다와 관계개선을 바라는 북한은 최근들어 이 국가의 학자들뿐만아니라 한인교포의 북한방문 초청을 강화하고 있다고 『월 스트릿 저널』지가 25일 보도했다.

북한이 한인교포들을 대하는 태도가 전보다 세련되었고, 한국국내의 정치적인 정세발전과정이 한인교포들의 북한방문에 촉진제가 된 일면이 있는 것으로본 이 기사는 그러나 한인교포의 말을 인용, 한번 북한을 갔다가 온다고 해서 공산주의자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도했다.

『월 스트릿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미주내일부 한글신문에 북한방문안내광고가 실린 후 지난해 후반기에 한국계및 비한국계를 합쳐 북한을 방문한 사람은 최소한 50명내지 60명이 되는데 이 숫자는 과거 10년간 북한을 다녀온 숫자보다 많은 것 같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처럼 방문초청을 늘리는 것은 미국및 카나다와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기위한 저변운동으로 풀이된다는 것이 이 신문의 관점이다. 예를들어 지난해 북한을 다녀온 헌터 칼레지의 도날드 자고리아 교수, 펜대학의 이정식 교수, 칼리포니아대학의 로버트 스칼라피노 교수등은 학문과 문화교류 목적으로 북한에 갔으나 북한관리들은 이들에게 북한이 미국과 관계개선을 원하는 사실을 주로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요구한 한 북한의 해외주재 외교관은 북한의 주목적이 미국과 대화를 트는데 있다면서 『우리는 계속 미국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고 말했다는 것.

북한이 이처럼 방문초청을 갑자기 늘리게 된 것은 한국내 정세발전에서 기회를 노린 것 같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한 저명한 한국인 교수의 말을 인용보도했는데 그는 『나는 반공주의자이지만 한국에 발생한 사건들, 특히 광주사건은 너무도 유쾌한 일이 아니다. 한국은 합법성을 독점해 왔지만 군부가 한 어떤일은 국민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한국정부를 합법정부로 보지만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나.

이런 기회를 틈타 북한은 선전을 누그러뜨려 세련시켰다는 것.

이 신문에 따르면 북한 기 과거에는 방문자들이 공개적으로 북한체제를 지지하도록 기대했는데 지난해에는 그런 꼬리를 달지 않아 방문객들이 마음놓고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지난해 북한을 방문했던 미국대학의 두 교수가 북한의 교수를 미국에 초청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북한의 방문초청은 상호교류적으로 되어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태도를 완화시킬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신문은 한국계 미국인교수가 "사람들이 북한에 간다고 한국인들이 놀라서는 안된다. 김일성이 마술을 부리겠지만 나는 그들이 한번 북한을 갔다왔다고 해서 공산주의자가 되거나 반한인사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북한을 사랑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한 사실을 보도했다.

미국·한국등이 중심

국제 무기암거래, 타임즈 보도

뉴욕타임스지는 21일의 일요판 기사에서 한국을 비롯한 영국, 미국, 멕시코등이 무기의 국제암거래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필립 터프만기자가 무기의 국제적인 암거래를 워싱턴발로 보도한 이날의 기사는 미국 관변소식통을 인용, 한국은 미국에서 설계된 무기를 제조하는 센터가 되었다고 보도하면서, 한 한국회사가 리비아에 제공하기 위해 미국설계의 군사용 찦(jeep)을 제작하였으나 미국정부가 군사장비를 리비아에 수출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수출이 실현되지 못했다는 한국회사의 전직 간부의 말을 아울러 인용했다.

레간행정부는 엘살바도르 게릴라들이 큐바, 니콰라과, 소련등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게릴라들은 대부분의 군사장비를 국제무기암시장으로부터 현찰로 구입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국제무기암시장에서의 거래실태가 주목을 받고 있다한다.

제5계절 완전한 해방

장 연 탁 (조각가)

◇장연탁씨

짙은 송림 사이로 번득이는 지중해에 이르던 날, 검제탄 바다는 9 월의 태양 아래 바위처럼 누워 있었다.

나는 마이욜(Maillol)의 조각을 통하여 어렴풋이나마 지중해를 연상해온 터였고, 파리 루불박물관 정원에 진열된 그의 여인상들을 직접 대하였을때는 가슴뿌듯이 젖어드는 바다의 향수가 현실로 받아들일만큼 넉넉함이 있었다.

그래서 이태리 피에트라 산타에 도착한 날 나와 함께 온 일행은 곧바로 바다로 떠났다.

질펀히 펼쳐있는 포도나무밭과 올리브숲을 지나니 그저 향기롭기만한 내음이 온 전원에 가득차 계절의 풍성함을 한층 더해주고 있다.

우리들은 흥에 겨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무성한 송림의 그늘이 어깨위에 와 닿았을 때는 벌써 시원한 바다의 내음이 코끝을 자극함을 이내 알 수 있었다.

이어서 해변을 연하는 도로가 나오더니 거기에는 끝없이 펼쳐진 지중해가 있지 않는가!

어느 사인가 우리일행은 바다로 향하여 달리기 시작했다. 나도 가빠른 숨을 움켜잡은채 저 다정한 여인이손짓하는 곳으로 달리고 달렸다.

물가에 이른 그 친구들은 모두 물속으로 뛰어들었는데, 놀라운 것은 옷을 입은채로였다.

옳아! 저 바다의 요정이….

나는 숨을 가다듬고 팬츠를 걷어올린 다음 발을 물에 적시기 시작했는데

수온을 느낄 사이도 없이 누군가 나를 물속으로 밀쳐버리는 게 아닌가.

순간,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내가 흠뻑 젖은 몸을 일으켜 주위를 살펴보니 거기에 더그라스란 녀석이 히죽이 웃고 서있었다.

"왜 바다에까지와서 거추장스런 체면을 고집하느냐"는 듯이….

나는 어이가 없었으나 그냥 그를 따라 웃고 말았다.

이 허식 없는 젊은 캐나다인들—

순간 나는 나이탓만은 아닐거라는 꼭 잡히지 않는 그 무엇, 내가 자라난 시대와 배경이 아직 내 마음 어느 한 구석에 도사리고 있음에 씁슬한 한 순간을 되씹어야 했다.

그날밤, 우리들은 모랫벌 위에 지핀 모닥불에 옷을 말리며 포도주와 바다와 별, 그리고 노래 속에 범벅이 되어 세상을 읊었다. 어쩌면 처음인 듯한 그런 완전한 해방감을 가졌던 그날밤이 지금도 가끔 생각나곤 한다.

그러나 진정 오늘날, 우리의 의식 속에 깊이 안주하고 있는 그 무서운 시간의 강박관념인 노예상태로 부터 해방할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 만일 우리 모두가 자신이 믿는 하느님의 참사랑 안에서 평화를 구할 수 있다면 이 보다 더 큰 해방이 또 어디에 있을까? 나는 생각해 본다.

※마이욜(Maillol) : 20세기 프랑스 조각가, 로댕의 제자

창립총회공고

북한 공산당의 기만 선전으로 선량한 교민을 현혹시키고 일체의 행위를 배제하고 교민사회 승공이념을 확립하는 문화사업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창립총회를 갖고자 하오니 뜻있는 교포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 1982년4월7일(수)오후7시
장소 : 한인회관

주최:승공문화협회
추진위원일동

1982학년도 미주장로회신학대학(토론토캠퍼스)

신·편입생 모집 요강

과정	과 구 분	자 격	수업연한	취 득 학 위	특 전
학위	교역(신)학석사 (M. Div.)	① 수세후 2년 이상자 ② 정규대졸업자, 동등이상자	3	교역(신)학석사 (M. Div.)	① 졸업후 총회고시를 거쳐 노회에서 안수한다. ② 졸업생전원은 본총회와 모국총회산하에서 활동한다.
	신학사과정 (B. A.)	① 수세후 1년 이상자 ② 고졸자 동등이상자	4	문 학 사 (B. A.)	① 졸업후 교역학, 기, 교육학과 2년에 편입된다. ② 졸업생전원은 본총회산하에서 전도사가 된다.
	종교음악과	① 수세후 1년 이상자 ② 고졸자 동등이상자	4	B. MUC.	① 음악목사 코스 ② 졸업생은 노회에서 시행하는 장로고시 일부가 면제
비학위	성서과	학력 제한 없음 ① 수세후 1년이상자	2	수 료 증 (노회인정)	졸업후 심사하에 본교에 진학할수 있음.

1. 원서교부, 접수 및 시험 장소 : 본대학 교무과(오순절장로교회) 754 Indian Rd., Toronto, Ont. M6P 2E3 (416) 762-1495
2. 원서접수마감일 : 1982년 3월 30일(월) 오후 6 시
3. 전화 문의할 곳 : 762-1495, 630-0735 746-2870, 745-7370 881-7162, 493-0615
4. 구 비 서 류 : ① 입학원서 ② 최종학교졸업증서 및 성적증명서 ③ 당회장 추천서 ④ 사진 3매(명함판) ⑤ 전형료 $ 50.00(시험당일 지참)
* 시 험 과 목 : 성경, 국어, 역사, 일반상식
5. 시 험 일 시 : 1982년 3월 31일 오후 7 시
시 험 장 소 : 본대학 강의실
6. 합 격 자 발 표 : 1982년 3월 31일 당일 발표
7. 수 업 시 간 : 월, 화, 목 오후 6 - 10시
8. 등 록 금 : 학위과정 학점당 30불, 비학위과정(성서과) 100불
9. 개 교 일 시 : 1982년 4월 5일 오후 6 시(신입생 Orientation)

✣ 본대학 교육기본방침
1. 미주한인장로회총회 헌법에 기준, 교역자 양성과 평신도를 훈련한다.
2. 장로회신학대학(서울 예장통합측)과 공동교육 프로그램을 형성한다.
3. 소명의식이 투철한 인재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주어 복음사업에 동참케 한다.

✣ 학장자문위원 (Consultants)
1. 이종성 박사(장로회신학대학〈서울〉학장)
2. Dr. Michael D. Ryan (Prof. of Drew Unv.)

✣ 종교음악과 교수진
○작곡 : 박재훈 박사
○기악 : 유희자 박사(오르간)
○성악 : 이주연 선생

✣ 신학과 교수진 :
최양선 강세대 김창질 이병규 김용주
최상봉 안상엽 김용진 최이열

미주장로회 신학대학
학장 이병규 토론토분교장 최 양 선

이민생활과 스트레스(3)

김 보 경 박사(심리학)

◇김보경 박사

4. 스트레스와 신체적 질환

사람이 어떤 위기를 만나게되면,예를들어 길을가다 호랑이를 만났다고하면 몸에 소름이 끼치고, 머리카락이 치솟고,눈이부릅뜨이고,호흡이 낮아지며, 심장이 방망이질 한다.이와더불어 근육은 긴장되고내분비선의 작용도 비상상태에 들어가서 호랑이와 더불어 싸움을 할것이냐?아니면 도망을 갈것이냐하는 준비태세를 갖추게된다.

위기에 처했을때 우리들의 생리적 현상이 비정상적인 상태에 들어가는바와같이 심리적 스트레스도똑같이 생리적 현상을 비정상 상태로 들어가게 한다. 사람이 생활하는중 때때로 만나는 위기에 의하여 비정상적인 생리현상을 갖게되는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지만 계속되는 스트레스에 의하여 우리들의몸이 계속 정상적으로 작용 못한다고하면 우리들의 신체적 건강에 이상이 올수 있으리라는것은 추리하기 어렵지않다. 생리학자 부라운박사는 75%이상의 육체적질환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계되어 있다고 말하고있다.

스트레스와 큰 연관을갖고있다고 알려진 질환으로서 위궤양,소화불량, 심장병,두통,성적기능상실, 근육마비등을 들수있다.소위 말하는 정신,육체적 질환 즉 영어로 사이코소마틱질환은 스트레스와 연관된것으로 볼 수 있다.

심장병의 주원인은"콜레스트롤"이라는 끈적거리는 물체가 심장을 보양하는정맥속에 붙어 심장의 산소공급을 장해하기 때문이라고 알고있지만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콜레스트롤 흡수량과는 직접 관계없이 콜레스트롤이 정맥에 더많이 붙는다는것을 발견하고있다.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하여서는 확실하지 않지만스트레스가 우리 몸안에 변화시킬수있는 화학적 작용에 연관시켜,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것이다.우리가 육체적 질환을 경험하게될때 의사를 찾는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우리를괴롭히는 마음의 문제,즉 스트레스가 우리들로 하여금 병의 침입에 대항할 육체적힘을 쇠퇴하게 하거나일단 병에걸린 몸의회복을지연하게 하거나 또는 스트레스 자체가 어떤 질병에 쉽게 걸리게 하거나, 직접 우리들을 육체적으로 앓게 하는점에 관하여서도 깊은이해가 있어야 되겠다.

5. 스트레스와 정신적 기능

스트레스가 정신적 기능에끼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긴장된 사람은 정신적 창조력이 쇠퇴해진다. 어린아이가 스트레스를 계속당하면 학습활동이 저해된다.사업가가 스트레스를 계속당하면 사업의 창조력이 둔화된다.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증가,축적되면심한 정신질환에 걸릴 가능성도 있다.즉 제종 공포증 우울증,신경증등이 그것이다.

지금 한인 이민가정에정차로 두드러지게 일어나는 현상은 중년주부들의 우울증현상과 청소년들의 반사회적 불량아적 현상인데, 이를 분석해보면 복잡한가정환경에서 피할수없는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라고볼 수있다.

중년남성들에게도 급격한 기분변동증,갑자기 좋아했다가 갑자기 우울해하는 현상이 보이기도 한다.자칫하면 고함지르고 싸움하려 달려들고, 지나치게 격분하고,증오심나고 하는 현상은 모두 스트레스와직결된다.알콜중독,약품중독뿐 아니라 노름이나 도락에 정신을 잃는 현상도 스트레스와 큰 관계가 있다.

6. 스트레스와 인간및 가족관계

스트레스는 분노,불안,공포,긴장등을 가져온다는것을 앞에서 말하였다.그러므로 스트레스에 의하여고통을받는 사람들의 인간관계내지 가족관계가 어떠하리라는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스트레스 현상으로 다음 몇가지 자기방어현상을 들 수있다.스트레스를 적절히 해결못한 사람들은 쉽게남을 원망하고 현실부정적이고,망상적이고,자기가말하기 싫은것은 쉽게 잊은척하고,자기행동을 언제나합리화 하려하고,자기기분을 남에게 분풀이하고,고립적이고,남의사정에 대하여고려하는 인정이 안보이고,자기 죄책감 때문에 때로 지나치게 남의 환심을 사려하고,경박히 행동하고, 또는 마음이 성장해지기보단 오히려 유아적인 행동으로 퇴보감을 보이고,열등감에 의하여 때로 지나치게 자기과시 또는 보상행위를보이는 행동을 한다.

우리들은 이와같은 자기방어 현상이 자기에게 보이기 시작하면 스트레스에 의하여 우리들이 인간관계에 부정적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믿어도 좋을것이다 예를들어 언제나 아내를원망하는남편,또는 언제나아이처럼 불평하고 우는시늉하는 아내가 있다면 그 부부관계가 건전하게 보전될 수 없고,언제나 시비걸고 싸움거는 회원이나 교인이 있으면 화목스럽고 건설적인 조직이나 교회가 될수없다.

스트레스는 직접 이와같이 인간관계를 어렵게할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인간관계에 영향을 끼치는바도지대하다.예를들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남편은 식욕뿐 아니라 성적욕망도 점차로 잃어가고,급기야 아내도 멀리하게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이는 아내도 마찬가지이다.불안 공포감에 언제나 시달리는 아내가 기쁘고명랑하게 남편을 대하기어렵고,역시 그러한 스트레스에 있는 부모가 자녀들을 또한 곱게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계속)

뉴욕서 반공데모

21일 교포 1백명 참가

(뉴욕) 볼티모어 무도인협회와 뉴욕한인회는 21일 오후1시 북한대표부(80ST 매디슨애베뉴) 앞에서 최홍희, 최중화부자를 규탄하는 반공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의 궐기대회에는 볼티모어 한인회, 무도인협회, 뉴욕한인회, 필라델피아한인회 회장단을 비롯, 약 1백여명의 교포가 우중에 참석했다.

정홍택 뉴욕한인회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궐기대회에서 박지원 뉴욕한인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최부성, 최성용, 김수일 사범의 최홍희, 최중화 목상 격파, 볼티모어 김명회장의 김일성에게 보내는 경고문낭독등 구호제창을 하며 행진을 하는 시위를 오후 1시50분경까지했다.

◇북한 대표부 앞에서 뉴욕,볼티모어,필라델피아 교포 1백명이 모여 최홍희,최중화 부자를 규탄하는 반공 궐기대회를 약 1시간동안 벌였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최고의 음식、저렴한 가격、성심성의껏、염가로 봉사합니다。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매일연재 캐나다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141)

팔리·모왓 원작·원재훈 옮김

“그 시절은 좋은 시절이었고 또 고된 시절이기도 했었지요.

이제 그 곳은 까마귀와 갈매기만 남아있고,그 산밑에 누가와서 캠프도 치지않고 텅비어 있읍니다. 그의 시절도 지나가 버렸고,곧 나의 시절도 지날것이며,그 후에는 카블로나이트와 내가 알고있는 세상에 대하여 당신들에게 더 이상 이야기 할 수가 없을것입니다.”

20. 이 사람들과 의 마지막 날들

8월말이 가까워질때 우리들은 북쪽에서 비석들이 쓸쓸히 황량한 벌판에서보초를 서는 것을 뒤로 하고 윈디베이로 돌아왔다.

이동하는 사슴의 선두는 이미 우리를 앞질러 갔고, 사슴의 길목에서 앤디의사슴에 관한 연구도 끝이 났다. 이상한 앙쿠니 주위는 지금 살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생각되었다.나는 이제 이할미우트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돌아가서 듣고 싶었던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여행은 무사했고,오호토는 자기아버지의 무서운 예언이 들어맞지 않은것을 기쁘게 생각하였다.

사람들은 아직도 살아있었지만 실탄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굶주리고 있었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실탄을 거의 다 나누어 주었고,이 땅에서 우리가 있을 기간도 끝이 오고 있었다. 한달 가량 더 지체하는 동안 우리들은 언제나 이 둘이 함께 있었던 것을 보아온것 처럼 사슴과 이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 들과 함께 보냈고,이 사람들의 깊은 마음 속으로부터 만족감과 행복감을 갖는 그런 시간이었다. 지금 나자신 그 땅에서 보낸 날들이 행복한 추억이라고 기억할 때마다 즐겁기만 하다.

사슴이 겨울철 공격(이할미우트의 겨울식량준비)을 피하여 멀리 남쪽의 숲으로 길을 재촉하고 있을 즈음 우리 역시 바렌 땅에서 작별을 고했다. 밤은이미 길어지고,낮은 짧아져서 카일라신의 무서운 격노가 우리에게 닥쳐 왔다. 우리들은 햇빛도 별빛도거의 볼 수가 없었다.

회색구름이 동쪽에서 경주하듯이 몰려왔고,산위의 색이 바랜 이끼위에 서서 바라 보면 세상의 지붕이 닿을듯이 낮게 보이며, 우리의 얼굴에 와닿는 안개가 차가운 망령처럼 느껴졌다.

대지는 죽어가고 있었고, 우리 자신들의 세계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다.

우리들의 카누는 오랫동안의 여행으로 이제 낡아져버려 엉망이 된채로 물가에 놓여 있었다. 그 주위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빠져 나가는동안 필요한시시한 장비가 쌓여 있었다.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어서 차갑고 음침한 뿌연 안개는 시체의 얼굴에 매달려 있는 기분나쁜 땀방울처럼 우리들 주위에 맴돌았다.

오호토와 오텍이 나와서 뼈대가 깨지고 매끄럽지못한 카누에 몇개 안되는 우리들의 짐을 챙겨주었다.

오호토는 실탄갑에서 나온 놋쇠로 기교를 다하여 정성들여서 반투명한 돌에 씌워 만든 작은 파이프에 담배를 피워 물고 있었다. 나는 백인식으로 그에게굳바이하고 작별을 고했다. 우리가 손을 잡아 악수를 나눈 다음 그는 파이프를 입에서 빼고 들더니 말 한마디없이 나에게 건네 주었다. 그것은 송별의 선물 치고는 시시한 선물이었다.

(계속)

한국인의 도매상

한인연합상사

CASH & CARRY

Mar.24-Apr.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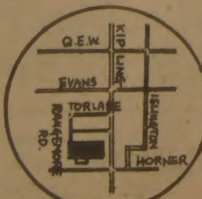
Delsey toilet paper	24x2's	$17.29
Palmolive liq. cleaner	24x500ml.	26.39
Purina dog chow	10x2kg.	20.25
Allen's apple juice	12x48oz.	14.39
Pamper's toddler	12x24's	56.39
McCormick's peg top candy	12xper(box)	7.90

한 인 연 합 상 사

251-6578

U.K.L.CASH & CARRY

27 RANGEMORE DR.TOR.



점심특별스페샬

기 간 : 1982년4월15일까지

시 간 : 12시~오후2시까지(월~금)

$3.50 : 냉면, 짜장면, 곰탕, 짬뽕, 재장백반

$5.00 : 유부초밥, 생선초밥, 회덮밥, 김초밥

4월12일부터 해장국 출현

오전9시~밤1시

한국서 일류요리사 한국관에 오다!

한식및 궁중요리사 : 김옥자 • 일식전문요리사 : 김우현

한 국 관

대표 : 나옥녀

•영업시간• 오전11시~새벽1시

628 BLOOR ST. W. ☎ : 536-0290, 531-0277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부시 美副統領 내달訪韓

修交百年 앞두고 韓美관계 高揚계기로

조지·부시 美國부통령이 劉彰順국무총리의 초청으로 오는4월하순 공식 訪韓한다고 외무부가 25일발표했다.

부시부통령은 訪韓기간중 全斗煥 대통령을 비롯, 劉총리, 盧信永외무장관등 정부 지도자들을 차례로예방, 韓美양국간의 긴밀한友誼를 재확인하고 양국공동관심사에 관해 의견을나눌예정이다.

부시부통령의 訪韓은 특히 오는 5월22일의 韓美修交1백周年을 앞두고 이뤄진다는 점에서 兩國간의 협력과 신뢰를 더욱 高揚시키는 계기가 될것으로 풀이되고있다.

부시부통령의 이번 訪韓은 한국을비롯, 日本、싱가포르, 뉴질랜드, 濠洲등 太平洋沿岸국가들에대한 巡訪의 일환으로 구체적인 訪韓日字와滯韓日程은追後발표될예정이라고 외무부 관계자는밝혔다.

부시부통령의 이번 訪韓은 66년 험프리前美부통령의 訪韓과 70년 애그뉴前부통령의 訪韓에이어 현직 美부통령으로는 세번째 訪韓이된다.

美上院의장직을 겸하고있는 부시부통령은 72년 美·中共修交이후 74년부터 1년동안 北京주재 美연락사무소장을 역임하고 美중앙정보국장(76~77년)、美라이스大客員교수(78~80년)를거쳐 81년1월20일 레이건美·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에 당선, 취임했다.

◇조지·부시美부통령

새마을指導者 29명 全대통령、勳章수여

全斗煥 대통령은 25일 하오 청와대에서 우수새마을지도자 29명을 접견, 새마을훈장을수여한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다과를 베풀며 공로를 치하했다. (사진)

金滿堤씨에도

全斗煥 대통령은 25일상오 청와대에서 金滿堤前한국개발연구원장에게 국민훈장 無窮花章을 주었다.

이자리에는 羅雄培재무·金容烋총무처장관과 鄭寅用기획원차관이 배석했다.

訪韓은 상징·기념적 性格
美軍철수 白紙化등 재확인

解說

부시美부통령의 訪韓은 韓美양국간의 기존友誼를 재다짐하는「상징적이며 紀念的인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지난해 2월 全斗煥대통령의 訪美와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다져진 두 나라간의「신뢰회복」을 더욱 고양시키는 계기를 이루게 됐다는점에서 이러한 성격을 엿볼수있다.

양국은 또 오는 5월22일로 修交 1백돌을 맞게돼 부시부통령의 訪韓을계기로 양국간에 선포된「修交의 해」는 더욱 큰의미를 갖게될 것으로 보인다.

그의訪韓은 이달말로 예정된 와인버거 美국방장관과 5~6월로 알려진 헤이그 美국무장관의 訪韓과함께 레이건행정부 高位首腦陣의 연쇄訪韓이라는 점에서 양국의 돈독한 友誼는 신뢰를 넘어 확신의 번계로 접어들게된것으로 전망된다.

부시 부통령의訪韓은 25일상오 盧信永외무부장관을 예방한 리처드·워커駐韓美대사에 의해 韓國측에 통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韓美양국간에는 현재외교적 현안이 거의 없기때문에 부시 부통령이 滯韓중 정부지도자들과 숙의를 거듭할 뚜렷한 의제는 예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굳이 지적한다면 지난해 2월의 韓美정상회담에서 합의된 駐韓美軍 철수의 白紙化와 신뢰회복을 재확인하는 韓美간의「經常外交」의 일환으로 분석될수있다.

또 그의 訪韓이 한국이외에 日本、싱가포르、뉴질랜드、濠洲등 태평양 연안국가에 대한 순방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韓美양국이 합의한「環太平洋 시대의 開幕」과 관련, 이의 실현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될것이 확실하다. 【金勝雄기자】

盧외무·美대사 어제30분 要談

盧信永외무부장관은 25일상오 리처드·워커 駐韓美대사의 예방을 받고 30분간 요담했다.

워커대사는 이자리에서 최근 釜山美문화원방화사건에 대한 관계기관의 수사활동에 대해 謝意를 표한것으로 알려졌다.

왜 綜合병원만 찾는가
患者 설자리도 없다

醫保人口 27%에도 "飽和"
道立병원病床은 텅텅비어
合理的 醫療체계확립 급해
患者도 의료인도 모두不便

「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해방이후부터 생겨 우리나라 의료계의 고질이 되기 시작한 이현상은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된이후 심각도가 더해져 대책이 시급하다. 더구나 도립병원이 제구실을 못하게되고 지방중소도시의 의료기관이 약화되는 현실까지겹쳐 서울의 종합병원은 포화상태가 가속화 돼 의료인력이 낭비되는 반면 많은 환자들이 큰 불편을겪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국민의「의료난」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전국의료관리공단」(가칭)을 설립하기로 했으나 관련부처간의 이견이 엇갈려 확정을 짓지못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전국민의 27%정도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있는데도 이같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오는 88년부터 전체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려면 늦어도 금년 하반기까지는 합리적인 의료전달 체계를 확립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副作用심한 醫療체계 —— 갈수록 심화돼온 종합병원의 환자집중현상은 이제 포화상태에 이르러 환자본인의 불편은물론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배치등 갖가지 부작용을 야기하고있는 실정。【25일 상오9시 서울S병원】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은 정부뿐만 아니라 의료업계에서도 그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데 이에따라 주무부서인 보사부는 지난해 한국인구보건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의료전달체계의 모형(案)을 제시받았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을 추진하기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며 의료인력수급관계등이 선결문제로부각돼 주무부서인 보사부와 문교부 경제기획원 내무부등이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하고 있다는 것.

환자들이 주거지중심의 1차의료기관을 무시하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종합병원으로만 몰리고 있는현상은 이미 한계점에와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77년부터 81년까지 의료보험수혜대상자는 연평균 20%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같은기간 의료보험환자수는 매년 2백%나 증가, 병원을 찾는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음을 보여주고있다.

이때문에 지난 한해동안 의료보험환자중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일반병원 입원환자의 5배를 초과했다.

또 전국 20개 대학부속병원중 연간병상이용률이 90%를 초과한 곳이 11개나 됐으며 세브란스병원、백병원등 6개소는 1백%를 넘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5천2백21개의 병상을 보유하고있는 시도립병원의 병상이용률은 39.1%에 지나지않아 대도시의 대학부속병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있다.

이같은 종합병원의 환자집중현상은 결국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돼있지않기 때문인것으로 풀이된다.

관계전문가들은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가 안고있는 문제점을 ▲보건의료관계의 업무관장부서가 다원화돼있고 ▲의료정책이 전국단위로 획일적으로 책정되기때문에 지역적 특수여건이 감안되지않고 있으며 ▲병원과 의원의 기능분담이 불분명하고 ▲전문의와 일반의의 기능상의 구분이명확하지 못하며 ▲의사들사이의 진척차이가 심하고 ▲의료자원의 분포가 지역적으로 불균형상태를 이루고 있는 실정등을 들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의 관장기관이 보사부(원본적 의료행정)、경제기획원(예산관계)、내무부(시도립병원과보건소등 공공분야)、문교부(의료인력양성)등으로 다양화돼있는것은 획일적인 의료정책추진의 장애요소라고 지적해왔다.

또 전문의는 특수역할과기능을가진 의사이므로 그기능을 다하기위해서는 시설과장비를 충분히 이용할수 있으며 다른분야의 전문의와 공동으로 진료할수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것이 바람직한데도 전문의의 대부분이 의원급에서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고 단독개업을 하고있어 그기능과 역할이 극히제한 받게됐으며 일반의와 협조통은 보완체계가 수립되지않아 그기능분담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고있다.

의료업계에서는 정부의 책확정과 함께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해야 국민들이편리한 진료를 받을수 있을것이라고 입을모으고있다.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은 이같은 의료전달체계의 모형을 구축하기위해 지난해 11월27일부터 12월23일까지 11개조사팀이 전국의 8천2백55가구와 병의원 7백7개를대상으로 전무적인 조사를 실시했었다. 【鄭兼鎬기자】

올림픽福券 7월發行

정부는 88년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경비염출방안의 일환으로 오는7월1일부터 올림픽복권을, 그리고 올림픽유치 1주년기념주화를 오는 9월말부터 각각 발행한다.

정부는 또 오는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많은국민이 참관할수있도록 84년 1월부터 발행, 이복권에 당첨된 2천명에대해서는 항공운임, 숙박비등 일체의비용을 부담한다.

올림픽복권이 발행되면 주택복권 발행은 폐지된다. 올림픽복권발행전담기관은 올림픽조직위원회 지원사업단이다.

올림픽유치기념복권은 백원권단식(2백원)과 5백원권 2종이며 상금은 5백원권 1등이 1억원, 2등 5천만원, 3등 3천만원으로 하되 당첨자가 희망할 경우 복금대신 앞으로 주택공사가 건설할 올림픽아파트를 분양해줄 방침이다.

요르단西岸 충돌事態
아랍、이占領終熄촉구
유엔安保理 긴급회의서

【유엔본부 24일 AP聯合】유엔安保理는 아랍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점령지역에 대한 폭력및 탄압정책을 종식시켜야한다고 주장하고있는 가운데 24일하오 요르단 江西岸 사태에 관한긴급회의를 시작했다.

이날 첫발언에 나선 하젬·누세이베 駐유엔 요르단대사는 요르단 강서안지주「팔레스타인들의 저항은 전점령지역거주민들의 反이스라엘봉기의 시작에 불과하다고경고하면서 유엔은 거의 15년간에 걸친 이스라엘의 아랍점령상태를 종식하기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랍그룹의장인 누세이베대사는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서안에서 맨주먹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중무장한 군대를동원、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말하고 유엔은 이스라엘당국에의해 박탈된 알비레의 시위원회권한을 회복시키라고 촉구했다.

다디아·알라·파시리아대표도 이사건과 관련, 이스라엘은 더욱 강경한 어조로 이스라엘에 제재를가하고 유엔에서 축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와인버거 28일來韓

【워싱턴24日=曺洋煥특파원】와인버거美국방장관은 韓美안보협의회에 참석키위해 28일하오 서울에 도착한다고 렘크 美국방성대변인이 24일 말했다.

와인버거장관은 29일에는 周永福국방장관과 회담하며 30일에는 상오에 안보협의회에 참석한후 하오에 청와대로 全斗煥대통령을 禮訪한다고 이대변인은 밝혔다.

全대통령과 와인버거국방장관의 청와대회담은 레이건행정부 출범이래 서울에서 열리는 첫 韓美고위회담으로 양국간의 방위문제뿐아니라 그밖의 주요관심사가 광범위하게 협의될것으로 보여지고있다.

이번 회담을 위해 존즈합참의장, 웨스트 美국방성차관보, 롱美태평양지구사령관이 와인버거장관을 수행한다.

◇와인버거의 傾聽 캐스퍼·와인버거美국방장관(오른쪽)이 24일 기자회견에서 조세프·룬스나토(北大西洋條約機構) 사무총장의 강조사항을 경청하고있다. 이날 회견은 나토무기의 유럽배치문제에 관해 언급했다. 【콜로라도스프링즈(美콜로라도州)24日AP聯合】

反이騷擾악용 西岸합병기도
PLO지도자 우려

【베이루트24日AFP聯合】이스라엘은 요르단江西岸에서 가열돼온 反이스라엘소요를 이용하여 이지역을 합병하려들지도 모른다고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한지도자가 24일 우려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후원을얻어 요르단강서안을 합병, 「보다 더 강력한 이스라엘」을 건설하려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아랍市長 2명 이서 또 解任

【예루살렘25日AFP聯合】이스라엘당국은 요르단강 서안 점령지의 팔레스타인 시장 2명을 해임했다고 한 이스라엘 軍 대변인은 말했다.

이대변인은 요르단강 서안 나블루스의 바삼·알·사카시장과 라말라의 카림·할레프시장이 25일 이스라엘의 지역군사령관에 소환된후 해임사실을 서면으로 통고받았다고 전하고 해임이유는 이들이 주민들을 선동하고 민정당국의 질서유지노력을 인정치 않았기때문이라고밝혔다.

社会漫評

시샘추위…

地平線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 타임에 매주 낯익은 전면광고가 실린다。『당신은 百萬長者가 되기를 원하십니까?』고 묻는것은 타임의 광고、뉴스위크의 광고는『百萬長者를 탄생시키는것이 우리 영업입니다』라고 뽐낸다。 둘다 한스·헬츠크、베셀이라는 서독회사의 복권광고다。복금은 양쪽모두 최고 2백만마르크(약17억원)。

▼서독회사간의 국제적인 광고경쟁에서 보듯 복권이 성하기는 독일을 친다。1차대전의 전재복구를 위해 시작됐다는 독일의 복권은 그 매상이 한해 2조6천4백억원을 넘는다。근검·절약이라는 독일사람의 이미지와는 동떨어진 숫자다。독일다음가는「복권국가」는 미국、그 실적은 1조6천5백억원、그 다음은 프랑스 1조2천5백억원、일본 4천5백억원의 순으로 꼽힌다。

▼이처럼 복권은 여러나라에서 인기있는「도박」이다。복권을 공인하고 있는 나라가 전세계에 80개국、국제복권업협회(AILE)라는 국제단체는 벌써 20여년의 역사를 자랑한다。우리나라도 재작년 10월 이 단체에 가입했다。50년대의 애국복권、금주로 5백22회에 이르는 복권발행의 실적이 있으니、회원 자격은 충분하다。법적으로도「福票발행·현상·기타 사행위단속법」이 있어 빈틈이 없다。

▼법이란 묘한 것이어서、이렇게「단속」이란 이름으로「도박」을 공인한다。69년 처음 발행된 주택복권은 이 법에 근거하여 지난해 10월 5백회째까지 자그마치 7억3천6백만장이 팔렸다。값으로는 7백36억원。이가운데 약 40% 2백96억원이 주택자금으로 조성됐다。그 많은「행운의 화제」와 관심을요량해서는 수익이 생각보다 적다。

▼이 주택복권이 오는 7월부터 올림픽복권으로 바뀐다。지금과 같은 1백원짜리도 발행하지만、복금 1억원의「큰판」은 복권의 액면이 5배、복금은 최고 6、6배팔이나 오른다。「도박」은 판이 클수록 열기를 더하는 법이니까、올림픽복권이 불티날것은 틀림이 없다。7월부터는 아마 가는곳 마다「한 여름밤의 돼지 꿈」화제가 무성할 것이다。

▼그것은 그것대로 좋은일이다。현대를 사는 사람에게 그만한 드림은 약이된다。다만 복권이란 언제나「自願稅金」이나 다름없다는 점은 기억하는것이 현명하다。그것이「稅金」이라면、「節稅」할줄 아는것이 납세자의 의당한 지혜요、세금을 걷는 쪽은 稅源이 얼마나 될지、과세가 얼마나 公正한지를 생각해야 옳다。「복권長者」를 꿈꾸는 사람들、그들의 대부분은 서민층인것이 통례이기 때문이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하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 P
922-3111 (B)
791-8196 (R)

Y—S 보석상
—각종보석
—나이야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 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민 영 숙
(B)368-7961 (R)690-5217

취임예배안내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배하려 들지말고 오히려 그들의 모범이 되십시요. 그러면 목자의 으뜸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월계관을 받게 될것입니다. (벧전 5:3-4)

본 교회 제2대 담임목사로 청빙되신 조남유목사님의 취임예배를 드리고저 하오니 오셔서 함께 축하와 격려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 아 래 —

때 : 1982년 4월 4일 오후 2시
곳 : 본 교회(3819 Bloor St. West) St. Andrew's church
설교 : 홍 순 관 목사님(동부장로교회 시무)
안내전화 : 742—2193(정 집 사)
1982. 3. 15
— 개별 초청 생략

토론토 대한교회 제직일동
KOREAN CHURCH OF TORONTO
3819 Bloor St. W. Islington M8B 1K7

BREAD-MAN
(Woodchester) Ltd.
2458 Dundas st. W. Miss. Ont.

◎년간매상 : $190,000
◎면 적 : 918 sq. ft.
◎렌 트 : 965불
◎리 스 : 83년 3월31일까지
◎옵 션 : 5년
◎아 스 킹 : $120,000
◎다운페이 : $50,000

※한 가족(4명경우)이 할 경우 년 수입 5만불 보장.

문의처☎ : 675—8930
Mr. 오

머리털이 빠져 고민하십니까?
머리털을 보존 하십시오.
STOP HAIR LOSS NOW!
●위험신호 :
①당신이 머리를 빗을때 빠지는 머리털을 많이 보십니까?
②머리가 가렵거나 비듬이 많으십니까?
③당신의 머리털이 건조하거나 아니면 기름이 많으십니까?
④당신의 머리가 잘빠지거나 불균형 하게 자랍니까?
당신이 위의 말 어느곳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늦기전에 전문가를 만나보십시오.
※상담은 FREE입니다.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오후8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3시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537-3104

신장개업
동창, 단체회의, 계모임 이라고요?
당연히 크링톤 하우스지요.
○회의실(20명~100명)
○댄스룸(디스크·재키)
○게임룸
○식당(스낵바, 주문에 따라 간소한 한식도 써비스함)
○TAVERN
크링톤 하우스
693 BLOOR ST. WEST
크리스티·지하철 앞
☎535—9541 김 영 규 배

日本서 「北朝鮮王朝 成立秘史」 펴내

金日成과 함께 北傀정권수립에 참여했던 前北傀실력자가 金日成정권 생성과정의허구성과 잔혹한 피의숙청과정등을 폭로한 책을 최근 日本에서 출판, 北傀정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파헤쳤다. 林隱이라는 필명을 사용한이 前北傀고위간부는 지난 60년대초 소련으로 망명, 자신의 체험과 소련측의 자료를 바탕으로 소련에서 집필완성한 『北朝鮮王朝成立秘史』(金日成正傳·東京自由社刊)에서 金日成의 8·15이전 행적에 대해 『金日成은 1941년 20여명의 동료들과함께 소련의 하바로프스크 비야스크村으로 도망, 소련 중국 조선인 혼성부대로 편성된 총2백여명의 「제88특별여단」의 대위로 있었으며 소련군비호하에 몸을 의지하고있다가 그곳에서 해방을 맞았다』고 폭로했다.

이 책은 또 金日成이 北朝鮮독재왕조를 세우면서 南勞黨과를 비롯 소련파 延安과 국내파등을 차례로 제거하는피의 숙청을 전개한 사실을낱낱이 폭로하고 희생자들은 총살 사고사 자살등의 형태로 암살되었다고 밝혔다. 60년대초 소련과숙청때 이를 피해 소련으로 피신했다는 저자는 『지금도 나는 공산주의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자신의 경험과 소련의자료를 근거로하고 있는외에 北傀정권수립전후의 사진과 기록들을 담고 있다. 다음은 총3백2페이지에 이르는 이책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東京=宋孝彬특파원】

「金日成 王朝」秘史

肅淸은 生存의 수단이며 政權유지의 武器

前北傀간부 林隱 「잔혹성」 폭로 〈1〉

動亂땐 압록강으로 혼자도망질 「스탈린추궁」두렵자 朴憲永핑계

영광은나 책임은너

金日成의 숙청은 관성적인습관이나 스포츠와 같은 취미는 아니다.

반대로 그에게 있어서 숙청은 생존의 수단이며 목적달성을 위한 최선의 무기였다.

숙청은 金日成의 권력투쟁의 논리이며 귀결이기도하다.

북한에서 가장 인기있는 작품은 「피바다」이다.

가극과 연극 그리고 영화로 각색되어 상영되고있다.

작자는 金日成이라고 하지만 의심스럽다. 그러나 숙청의 피바다라면 金日成의 작품임에틀림없을 것이다.

金日成은 무엇보다도 피바다를 필요로 했고 목적달성을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분별없는 그의 모험주의는한국동란을 일으켰다.

金日成은 후퇴명령을 내리지도 않고 제일먼저 중공국경 압록강으로 도망갔다가 스탈린의 책임추궁을 당할까두려워했다.

그를 주변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金日成은 완전히 자신을 잃고 자포자기의 상태였다.

1950년 10월20일 平壤이 함락되어 중공군이 참전하는10월25일까지 金日成은 매우 불안해했다.

피로물든 暗鬪

중공군의 지원에 따라 전세가 일변되어 1951년1월에는 또다시 서울에 육박하게 됐고 38선경계선에서 공방전을 벌이는 소강상태에 돌입했다.

金日成은 또다시 朴憲永을비롯한 남로당간부들이 전쟁개시의 책임을 물어보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金日成은 전쟁추진자가 다름아닌 본인이며 정치적 군사적 실패의 책임을 질사람도 또한 金日成 자신이었다.

두렵고 무서운政敵

金日成은 그래서 朴憲永을미국의 스파이라고 조작하여 숙청했다.

전쟁개시로부터 패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책임도 모두 남로당과인 朴憲永에게 뒤집어씌웠다.

金日成은 朴憲永을 비롯하여 당과 정부의 要職에 있던 정적을 모두 없애버렸다. 1950년 10월 조선로동당 제3차 全員대회에서 金一, 崔光, 許成澤등을 꾸짖기 며칠전 열렸던 군사위원회 광경을 소개하겠다.

이 군사위원에는 金策 前線사령관, 崔庸健보위상, 金一 前線사령부군사위원, 金日정치 총부국장, 소련대사 스티코프등이참석했다.

金日成 『우리의 무장력이 떨어지지 않는데 전선이 왜 이렇게 무너지는가』

金策 (침묵을 지킨뒤) 『잘 나가지 않습니다』

金一 『美공군의 절대적 우위조건아래서 우리 지상군은 생각보다 잘 싸울수가 없다. 후방이 절단되어 (仁川상륙) 전선을 지탱해 나갈수가 없다』

金日成 『군의 정치문제를 다루는 놈들의 머리가 이런 정도라면 잘될리가없다. 金一은 당장 그만 둬라. 남조선에 가라. 거기서빨치산을만들어싸워라』

통역으로부터 무엇때문에다투고 있는가를 듣고 스티코프는 동의를 표시했다.

그러나 金一은 그후 남조선에 가지 않았다. 金一은 봉신성 정치국장, 내무성 정치국장등을 역임하고 중앙당비서, 내각부수상, 정무원총리, 부주석으로 등용되고있다.

金一의 성격이 온후하고 실무능력이 있기때문에 金日成은 그를 나무라지만 계속 중용하고 있는 것이다.

金策이 죽은후 朴憲永과 許哥誼, 崔昌益등이 숙청된후 북조선의 지도자로서는 金一만이 유일하게 남았다.

50년말께부터 金日成은 朴憲永, 許哥誼, 金策등 3명을 제거하려는 계산을 굳혔다. 그이유는 패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는데 있으며 政敵을 제거하려는데 그의 둘째목적이 있었다.

金日成이 스탈린에 의해 실각한다면 북한에서 지도자로서 가장 평價가 높은 인물은 朴憲永일것이라고 金日成은 생각했다. 그다음이 소련출신의 許哥誼이며 許는 직접 모스크바와 연락하여 어떤 행동을 취할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혁명경력이 찬란하고 정치수단이 높은 金策도 자신의 경쟁자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했다.

金日成이 이세사람을 경계하고 숙청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부자연스런 죽음이 이를 입증하고있다.

베일속의 金策死亡

金策은 사고로 죽었다고하나 사실은 金日成의 음모에 의해 죽은 것이라는 소문이 전해지고 있으며 1981년1월31일자 로동신문은 金策동지의 서거30주년 기념추모회에서 추도사를 행한 林春秋의 추도사를 다음과 같이 싣고있다.

『경애하는 수령은 돌연 방문한 金策동지를 보고 위태한 밤길을 예고도 없이 방문한 것에 대해 걱정하는 말을 했다. 그 말을 한지 몇시간도 지나지않아 위대한 수령의 전송을 받고 집에 돌아갔는데 金策동지가 죽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林春秋의 추도사에서 밝힌대로 金策이 최후로 만난 자가金日成이었다.

金策의 건강상태는 좋았다.

그런 金策이 집에 돌아온뒤 시체로 변한 것이다. 공식적으로 전하는 얘기는 金策이 연탄가스중독으로 죽었다고말한다.

金策의 침실은 전기온돌을쓰고있었으며 연탄가스로 죽을이유가 없다.

이처럼 金日成은 자기의정적은 모두 제거해버렸다.

金日成의 숙청목적은 패전의 책임을 다른사람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항일투쟁역사를 드러내려는데 있다.

또한 金日成의 중요한목적은 金日成왕조의 창건에 있었다.

金日成은 인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유능한 민족지도자들을 말살했다.

그래야만 자신의투쟁을 미화하고 날조할수 있기때문이다.

金日成은 빨치산과의 그누구에게도 정권을 나눠주려고하지않았다. 자신의 후계자에는 아들 金正日을 선정했다. 언제 이것을 실현할는가는 金日成자신밖에 몰랐다. 그實弟인 金英柱의 정치적비중이 높아졌을때도 金日成은 그의정권을 이양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숙부·생질의 暗鬪

金英柱의 정치적 무대는 사라졌다. 金日成의 후처 金聖愛가 江靑처럼 정치적 야망을 가질지도 모른다.

어쨌든 숙부, 생질간의 정치적 암투에서 金正日이 승리하여 현재 가장높은 줏가를 올리고있다. 그는 당중앙총비서의 대행자로서 실권을 장악하고있고 金聖愛나 다른 어떤자의 권력근도 허락하지 않고있다.

金日成자신이 살아있는한 종신국가주석으로 남을 것이다.

金正日에로의 정권이양을 위해 지장이 되는 자는 金日成이 살아있을때 제거할 것이다.

金東奎, 南一, 朴餘龍, 金英柱등대부분이숙청, 실각됐다.

金一의 건강상태가 나쁘지 않다면 그는 사라질 가능성이 많다. 徐哲, 林春秋, 吳振宇의 처리문제도 金日成부자가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康良煜, 朴成哲, 吳白龍등은 친척관계에 있고 무능하기때문에 경계할 필요가 없다.

父子에 충성맹세

현재 정부와 당기관에 정책을 대행하고 있는것은 金正日에게 충성을 다하고있는 사람들로 메워져있다.

金日成에게 충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金正日에게도충성하여야만 등용된다.

金日成은 자신의왕조를 영원히 계속하기위해 이처럼 숙청을 계속하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金正日의 입장은 대단히 곤란하다.

사회주의의체제에서 개인숭배는 금기로 되어있고 봉건제도의유물인 왕조를 다시 건설하려는 야욕은 수령의 황태자라는 낙인을 찍히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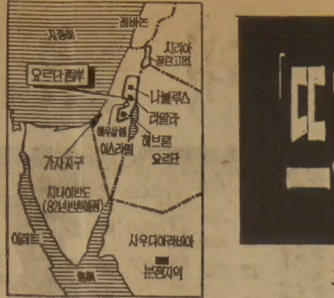
경제는 파산상태에 있고 민주주의의 고갈증에 걸려 질식상태에 있는 인민들과 피에 물든 칼밖에 북한에는 없다.

인민들은 언제까지나 주체사상에 마취되지는 않는다.

역사는 金正日에 대해 폭군 金日成의 자식으로 남든가, 진정한 조선인민의 자식으로 남든가의 두가지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다.

「뜨거운紛爭」 요르단江 西岸

팔레스타인 住民, 極限투쟁化



이스라엘 점령 요르단江 西岸과 가자지구가 다시뜨거운 분쟁의 현장으로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이 6일째 反이스라엘파업과 시위를 벌이고있던 원주민 팔레스타인人들을 24일 요르단江 西岸에서 팔레스타인 청년3명이 이스라엘軍 한테 사살됐다. 같은날 이스라엘군인도 한명 아랍인에게 찔려 죽었다.

또 아랍인 한명이폭사하는가하면 베들레헴에서는 아랍계경찰3명이 이스라엘당국의 질서유지명령을 정면으로 거부, 제복을 벗어던지는 抗命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항명대열에 가담한 아랍계경찰관수는모두32명으로늘어났다.

지난67년이래 이스라엘 점령지에서 발생한 각종소요사태중 가장 격렬한 양상을 띠고있는 이번사태는 이날 가자지구의 라파에서 요르단江西岸남쪽 헤브론까지 파급됐다. 동시에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은 당초 23일까지 끝내기로한 反이스라엘 파업을 무기한연장하기로결정했다.

이번 소요사태는 요르단강 西岸 엘비레의 아랍인 市長 이브라힘·타월을 이스라엘당국이 지난19일 강제 해임하고 7人자문회까지 해산한데서 비롯됐다.

타월은 요르단江 西岸내 23명의 아랍市長중한사람. 그는 지난 76년이스라엘당국이 주선한 선거에서 시장으로 당당히 당선, 지금까지 일해왔다.

이스라엘 당국이 군대를 동원, 그를 좇아낸 명목은 이스라엘 行政官과 협력하지 않는다는것. 베긴 이스라엘 정부는 67년전쟁때점령한 요르단강西岸(인구70만)과 가자지구를 軍政으로 통치해오다가 自治부여에 앞선 과도조치로 이스라엘 民政官을 임명, 아랍인 市長들을 감독해왔다.

현지 아랍인들은 이 移行조치가 형식상 自治權을 더 준것같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 두지역을영구지배하려는 불길한 조짐으로 우려해왔다. 타월을 비롯, 市長3명의해임은 그런 의심을 더욱가중시켜 아랍인을 모두 反이스라엘운동에 몰아세웠다.

이스라엘이 점령중인 요르단江西岸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소요가 계속되고있는 가운데 한 이스라엘병사가 23일 팔레스타인 데모대들이 내던진 불타는타이어를 끄기위해 발로차고 있다. 【라말라(요르단江西岸) AP特電=聯合】

「아랍人 市長 해임」이 불씨 진압하던 警察 32명도 抗命

이에앞서 이스라엘이 東예루살렘과 골란고원合併(81년12월)이 있었던만큼 요르단江 西岸과 가자지구가 다음 合併대상이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커질수밖에 없다. 그것은 곧 팔레스타인국 창설의꿈을 아주 말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당국이 타월시장의 후임으로 이스라엘육군의 원손중령을 임명하자 20일부터 요르단강 서안지역의 모든 상가가 철시하고 근로자들은 파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軍과 투석전을 벌이는 격렬한 항의시위가 벌어졌다.

총파업과 시위는 22일에는 다른 점령지역인 가자지구로 확산되었다.

시위가 확산되면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이스라엘군대뿐아니라 민간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으며 예닌 일대에서는 시위군중들이 화염병까지 동원, 이스라엘군의 탱크와 맞서기도 했다.

이스라엘당국과 팔레스타인주민들이 극한 대립으로 맞서게 된 배후는 팔레스타인 자치문제를 둘러싼 「동상이몽」 때문이다.

캠프 데이비드협정에의하면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협의하여 요르단江西岸과 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의 자치를 실시키로되어있다.

현재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팔레스타인 자치협상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자치문제에 대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측은 각기 다른속셈을 갖고있다.

팔레스타인및 아랍세계가는 이지역에 팔레스타인국가 창설을 궁극적인 목표로 정하고있다. 물론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와 아랍강경국은 팔레스타인자치를 부정하고 즉각적인국가창설을 주장하지만 이집트등 온건국가는 자치를 통한 점진적 국가창설을 추진하고있다.

이에반해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팔레스타인국가 창설을 부인한다.

또 이지역에 자치를 실시한다해도 강력하고 계속적인 이스라엘의 통제가있어야한다는것이 이스라엘의 속셈이다.

이스라엘의 이번 강경조치도 앞으로 자치에대비, 통제를 강화하기위한 사전포석이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베긴수상의 사퇴서제출파동까지 몰고온 4월25일의 시나이반도철수를 앞두고 신경이 날카로와지고있다.

팔레스타인측도 이스라엘이 요르단江西岸땅을 합병하려는 음모를 꾸미고있다고 주장하는데는 상당한 근거가있다.

베긴수상은 한측근에게 『캠프 데이비드협정이 존재하는한 이지역을 합병할수없다. 그러나 캠프 데이비드의 협정이 언젠가깨질 것은 명백하다』고 말해 궁극적인 목표는 이두지역의 합병임을 시사했다.

【申相頏기자】

콜럼비아號 實驗日程 변경 TV카메라故障 : 修理작업

【케이프카내베럴24日 AP·UPI=聯合】미유인우주왕복선 콜럼비아號는 발사 사흘째인 24일 예기치않은 TV카메라고장과 수리작업으로 실험일정을 변경, 이날 실시할 예정이던 로보트 팔의 화물이동실험을 하루 연기하고 대신 무중력상태하에서의 곤충실험을 하루 앞당겨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일부 고장에도 불구하고 다른 작업들은 모두 기대이상으로 훌륭하게 수행되어 지상에 있는 관계요원들과과학자들은 잭·루즈머와 고든·풀러튼두우주인에게 『송신해온 자료들에 매우 만족한다』는 말을 전했다.

飛行신기록 세울듯 3일째 54시간突破

【케이프카내베럴25日AP=聯合】 3차우주비행에나선 美有人우주왕복선 콜럼비아號는 발사 3일째인 24일, 앞서 2차여행에서 세운 54시간21분의 우주비행기록을 깨고 새로운 우주비행기록 수립에나섰다.

콜럼비아號는 이날 기수를 태양쪽으로 향한채 지구주위를 37회째 선회하던중 54시간의 우주비행기록을 깼다.

이에앞서 두우주인은 콜럼비아號의 TV카메라에 모습을 나타내고 미국의 해안을 생생한 색채로 담은 멋진사진을 송신하면서 이에관한해설을 하기도했다.

歸還광경을 公開 4만명 入場시켜

【화이트샌즈미사일발사기지(美뉴멕시코州)24日AP=聯合】 美軍당국은 화이트샌즈에 착륙예정인 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의 지구귀환광경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기로한 당초의 계획을 변경, 최소 4만명을 이 제한구역안에 입장시킬 것이라고 24일 발표했다.

蘇, 中共에 和解제의

브레즈네프 「20년간敵對」 終熄 촉구

【모스크바24日UPI=聯合】 소련공산당서기장겸 최고회의 간부회의장 레오니드·브레즈네프는 24일 臺灣문제를둘러싼 미·중공간의 쌀쌀한 관계를 계기로잡아 中共에대해 20년간에걸친 中·蘇적대관계를 종식시키자고 촉구하면서 소련은 관계개선을위한 확고한 조치를 취할준비가 되어있다고말했다.

브레즈네프는 이날 중앙국경으로부터 4백82㎞ 떨어진 중앙아시아 우즈벡 공화국수도 타슈켄트에서 행한 연설에서 소련은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교착된 中·蘇국경회담을 재개할 용의를 갖고있다고 밝히고 『중공에대한 소련의 위협은 있을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중공관계를10년이래 최악의 상태에 빠뜨린 臺灣문제에 직접 언급, 『우리는 결코 소위 2개의 중국이란 개념을 지지한적이 없으며 臺灣에 대한 중공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한다』고 말함으로써 臺灣이 중공의 일부라는 중공측주장에 지지를 표시했다.

외교분석가들은 이날 브레즈네프의 유례없는 對중공유화발언이 미·중공불화를 완전히이용하려는데 목적을 둔 중요한 제의라고말했다.

외교관들은 소련이 지난2개월간 中·蘇국경회담 재개제의등 일련의 對중화해제스처를 내놓았음을지적, 이날 브레즈네프의 연설이 뒤이어 나온것은 소련이 중공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음을시사하는 것이라고말했다.

美, 쿠바에 密使파견 엘叛軍지원 중단케

【워싱턴25日AP=聯合】 헤이그 미국무장관은 쿠바정부에게 엘살바도르반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도록 설득하기위해 이달초 쿠바에 밀사를 보냈었다고 미국의 CBS방송이 24일밤보도했다.

◇거꾸로가는 時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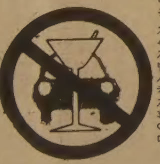
東京에서는 최근 보통時計와는 反對方向으로 훠이 돌아가는 손목시계가 市販돼 인기를 끌고있다. 「푸마 라」고하는 이時計는 장난삼아 만들어낸것이며 약2시간 차고다닌결과 시간을읽는데 익숙해졌다고 메이커측이 자랑삼아 밝히고있다 價格은 원貨로 약8만원. 【東京AP航空便=聯合】

海外토픽

축구주심이 총뽑아 ★격분한 선수들 제지위해

축구경기의 주심이 자신의 판정에 항의하는 선수와 팬들을 권총으로 위협, 봉변을 가까스로 모면한 사건이 최근 유고에서 발생해 난폭해지는 경기장의 폭력사태의일면을 보여 주고있다.

이같은 사건은 지난21일유고의 사바치에서 열린 국내리그 경기에서 발생했는데 주심인 불타디미트·스토코비치가 분노한 선수와 팬들이 자신에게 달려들자 차고있던 권총을 뽑아 이들을 제지한것. 【베오그라드=AP】



外務部本部 요원 外國語교육 실시

외무부는 외교관들의 外國語구사능력을 개발하고 영어이외의 제2외국어의 숙달을 의무화하기위해 본부요원 全員(2백37명)에 대해 오는29일부터 7월19일까지15週間의 외국어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외무부는 또 在外공관에근무하는 직원들에게 現地語를 연수시켜 외교요원의 語學능력을 계속개발시킬계획이다.

메아리

해방후의 政黨史를 펼쳐보면 無數한 政黨들의 消長盛衰에 우선 놀라게된다. 創黨登錄을 하고 오래도록 活動을한 정당도 많았지만 「假稱」으로 발기준비위원회만 만들었다 도중하차 한것도 부지기수다. 「假稱」으로 시종한 정당만줄잡아 40개에 이르며 그「假稱」또한 별난수밖에 없었다. 「統理」「主民」「中和庶民」「庶農民黃道」「鄕天」「人主」등등….

해방직후에도 政黨은 많이 생겨났지만 4·19후 또한 수두룩 나왔었다. 이때생긴 정당들은 大別하여 保守·革新두갈래였다. 뒤따라 서서히 政黨간의 離合集散이 시작되면서부터 保守는 保守끼리, 革新은 革新끼리 統合개편의 실랑이를 벌였다. 그러나 革新政黨간에는 온건·급진두路線이 대립하여 결국 統合을 이루지못하고 말았다.

그후 「온건」「혁신」을 내걸고 한 政黨이 생겨났는데 그때의 「假稱」은 「民主社會黨」이었다. 徐某씨가 창당발기인대표로된 이 혁신당은 정강에서 「民主社會主義」를 표방했었다.

지난29일, 다시 民主社會主義를 내걸며 하나의 政黨이 발족하였다. 創黨이아닌 「合黨」에의해서다. 그것도 종전의 新政黨이라는 保守黨과 民社黨이라던 革新黨 끼리다. 政黨간의 이합집산이나 해체·통합이 부단히 있어왔지만 「保·革결합」이란 우리 政黨史上 처음 있는 일.

第4黨의 구색

이 統合정당의 노선은 보수와 혁신의 두길이 아니라 「혁신」의길로 나아가기로 합의를 보았다한다. 따라서 保·革중간적인정당이 새로 생겨난것이 아니라 기존 혁신정당이 좀더 커졌다고 보는것이 옳을지모른다. 아무리 통합정당의 당명을 接合식의「新政社會黨」으로 했다해도 당의 이념이 民主社會主義인 이상 그것은 혁신정당임에 틀림없겠다.

民社黨측에서는 西歐사회당과의 유대, 「사회주의·인터내셔널」(SI)에의 가입기반조성등을 위해 새 黨名에 「社會」란 표현을 꼭 붙여야되겠다고 했고, 또 SI같은데서 『議席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왔을때의 곤욕에서 풀려나자면 역시 당세확장이 필요했다는등의 이유를 밝혔다.

이제 새 출발을 한 新政社會黨은 의석이 3석으로 늘었고 원내에서는 「第4黨」으로 불리게 되었다. SI나 다른나라 民主社會주의정당에 대해서도 新社黨은 한결 가슴을 펼수있겠다. 對外的으론 우리도 이런, 저런 政黨의 구색을갖춘 폭이 될것이고—.

문제는 S·노이만의 말처럼 「日常人」이 얼마만큼 社會民主主義정당을 지지하는「政治的動物」로 轉化될것인가 하는점이다.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벤트러, USED-CAR

◎차종류에 따라 Cash Rebate(Bonus)있음
◎카나다에서 Buick Line 으로는 Top Sale dealer임

* Best After Service * Best Pr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의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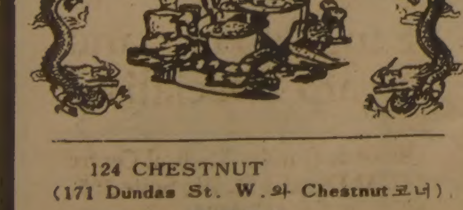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 ~ 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 와 Chestnut코너)
977-97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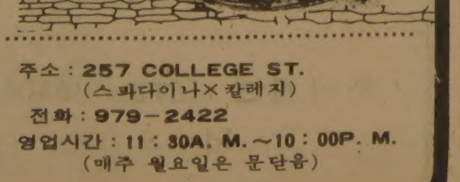
京華樓 (경화루)

PEKING— RESTAURANT

※전통적인 맨다린 음식
※특별 : 북경오리 음식

* 겨울 스페샬(Peking Duck & Firepot)

●진미의 해산물 요리
●국수, 야채전문
●항상上海점심 스페샬



주소 : 257 COLLEGE ST.
(스파다이나× 칼레지)
전화 : 979-2422
영업시간 : 11 : 30A. M.~10 : 00P. M.
(매주 월요일은 문닫음)

MLS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금주의 새리스팅

○고층 아파트먼트 빌딩들

①12층, 89Unit, 100대의 주차장을 가진 10년된 아파트 건물
가격 : $2,400,000

②15층, 104Unit, 129대 파킹시설, 3에이커, 실내수영장, 11년된 아파트 건물, 가격 : $3,450,000

③12층, 241Unit, 오타와에 소재
가격 : $5,780,000

이외에 여러종류의 사업체
(버라이어티, 식당, 도넛샵, 기프트샵등)

※메트로 토론토 전역을 카바하는 가옥매매에 대해 문의바랍니다.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5 (B), 286-1548(R) M3B 1Z3

알뜰 해외여행

初行者를 위한 가이드 <6>

旅客機는 中間자리가 安全하다

비행기 출발시간에서 2시간쯤 앞당겨 공항에 나가는것이 좋다. 시간이 임박해서 나왔다가는 진땀을 흘리게마련이며 말이 잘통하지않는 외국공항에서는 큰곤욕을 치르기 일쑤다.

2시간 먼저 가 出國수속을
소지貴重品 稅關에 신고를

手荷物엔 이름표를

해외여행을 처음하는 사람은 공항으로가는 차속에서부터 설레이고 들뜨게 마련이다. 복잡한 여행수속을 가까스로 끝내고「이제야 비행기를타게 됐구나」하는 생각에서 기분은 벌써 하늘을 날고있다.

그러나 마지막관문은 남아있다. 출국수속은 어떻게 해야하고 짐은 어떻게부쳐야하나?공항에서의 수속은 해외여행초공항에 드나들때마다 반드시 거쳐야하는 과정이므로「요령」을 알아두는것이 중요하다. 먼저 시간적여유를 가져야한다. 따라서 공항에는 비행기출발2시간전쯤 도착하는게 좋다.

외국공항의경우는 선진국、후진국에 따라 다르고 미국의 공항에서「한국인」만 유별나게 대우를 받는 점이있어 일률적으로 말할수는 없으나 우리 金浦공항의경우 가장 시간을 넉넉히 잡아야한다.

공항에 나갈때는 대개 자가용승용차나 택시를 타게되는데 金浦공항 국제선 터미널은 2층에서 하차할수있고 곧바로 출국수속으로 들어갈수있다.

먼저 수하물 보안검사를 받고 탑승할 항공사 탑승수속(CHECK-IN) 카운터에 비행기표와 여권을 제시하면, 항공사직원이 수하물을 접수하고 좌석배정을 해준다. 일반승객이 돈을 별도로 내지않고 부칠수있는 화물은 미국행이 70kg、다른지역 20kg인데 갯수는 2개이다. 수하물에는 英文으로 표기한 이름표를 꼭 부착해야 한다.

뒷자리는 피해야

체크인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좌석배정이다. 좌석은「체크인」순서대로 선택할수가 있다. 안전성으로 볼때는 앞자리가、안락성으로 치면 날개부분의 중간좌석이 좋다고들 하나 그때 그때의 사정에따라 다르다. 뒷좌석은 분사음과 함께 많이 흔들려대부분꺼린다.

대개 초행승객은 창가를 좋아하고 많이 탔던 사람은 앞뒤에 관계없이 통로쪽에 앉는 좌석을 택하는경향이있다. 좌석을 받을때 이런 선택보다는 금연석에 앉을것인지 끽연석에 앉을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비행기안에서는 금연석에서 절대로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기 때문에 애연가는 꼭 끽연석(SMOKING ZONE)을 요구해야 한다.

외국항공기의 금연석에서 멋모르고 담배를피웠다가 망신당한 사례가 많다.

체크인할때 항공사직원이 ED(출입국신고)카드를 작성하라고 말할것이다. 미리 작성못한 사람은 카운터에서 한장을 꺼내 쓰면된다. 체크인이 끝나면 여권·비행기표와 함께 새로 보딩패스를 받는다. 공항사용료는 미국(3달러)일본(1천5백엔)에서도 받지만 중동지역은 안받는다.

체크인이 끝나면 17~35세 남자는 2층 북쪽끝에 위치한 병무청사무실에 들러 병무청에서 내준 출국신고서를 제출하고 여권에 확인을 받는 일을 유념해야 한다.

편리한 空港 안내서

金浦공항에는 아직 출국준비가 덜된 승객을 위한 시설이 많다. 우선 비행기표를 공항에서 살수 있으며, 환전은 못했을경우에는 1층에 있는 조흥은행 金浦지점에서 달러를 바꿀수 있다. 또 검역소에서 예방접종을 맞을수도 있다. 지정병원에서 받은 옐로북도 출국전 검역소에서 확인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아주 드문 일이긴 하나 예약초과(OVER BOOKING)현상이 생길수 있다. 비행기정원보다 예약승객이 많은 경우다. 오버부킹은 항공사운영의 관례다. 통계적으로 예약승객의 7%내외가 탑승을 안한다. 이래서 항공사는 정원의 5%정도 초과예약을 받고 있다.

이런 경우 미국등에선 승객들에게 사정을 설명한후 다음편 탑승약속과 함께 체재비를 비롯한 상당한 보상을 제시하고 양보를 권유하는게 상례。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체크인 순서대로 태우고 못탄 사람을 항공사의 지정호텔에 투숙시켜주는 정도가 고작이다。그러나 예외도 있다。

지난 겨울 金浦공항에서 어느 외국항공사가 오버부킹을해 南美교포일가족 3명이 예약비행기를 못탔다。이들은 항공사에 항의、南美도착까지의 손해를계산、1인당 4백달러씩 모두 1천2백달러의 보상을받은 적도있다。

金浦공항에는 1、2、3층에 모두 안내석이있어 필요에 따라 수속과정을 의논할수도있으니 활용하면 좋다。

이런 체크인과정이끝나면 여행자는 배웅나온 가족·친지와 인사를나누고 보세구역으로 들어가게된다。우선 휴대품을X레이 투시기에 넣은후 자신은 금속탐지기를 통해 나가고 다시 검색여직원의 검사를받아야 한다。가끔 돈지갑도 검사하는 경우가있다。한도이상의달러를 가지고있나알아보기위해서다。

膳物은 면세매점서

다음은 세관신고。카메라、목걸이、반지、밍크、고급시계등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한다。이런 고가품을 갖고도 신고를 게을리했다간 귀국할때 외국에서산것으로 몰려 엄청난 관세를 물게되고 잘못하다간 밀수혐의를 받게되는 것이다。실제 金浦공항입국검사장에선 이런일로 종종 시비가 생긴다。

세관신고가 끝나면 출국최종수속인 법무사열을 받게된다。이곳엔 여권과 ED카드 보딩패스를 제시한다。법무사열에선 여권상의 잘못 여부를 체크하는데 블랙리스트에오른 출입국금지자도 이곳에서 밝혀진다。물론 건전한 시민인 초행자는 별로 신경쓸곳이 아니다。

이로써 모든 탑승수속은 끝난다。여권 비행기표등은 깊숙이 챙겨넣고 보딩패스만 갖고있다가 탑승하면 그만이다。

보세구역안에는 면세매점이 있다。수속하느라 경황이 없었던 여행자는 이곳에서 친지에게 선사할 물건을 싸게살수 있다。인삼주、김、오징어、각종 민예품이 있고 양주、양담배、시계、향수등 외제품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면세점에 들어서자마자 양담배를 박스로사 챙기기가 바쁜데 바람직하지못한 태도。여행할땐 눈썹도 무겁다는 말이 있다。양담배는세계도처에 널려있다。기내에서 필요한 1、2갑이면 족하다。

이보다는 국산담배를 갖고나가 친지에게 선물로 준다든가 여행중 만난 외국인에게 권하며 화제를 당기는것이 더욱 운치가 있다는걸 잊지말자。

金浦면세점에서는 달러、円貨는 물론 한화도 얼마든지 쓸수 있다。주머니에 남은한화를 이곳에서 쓰는것도 좋은방법。

대우받는 1등승객

공항에서는 일반승객(보통 이코노미클래스승객으로 불린다)과 달리 대우받는 2가지 타입의 VIP가 있다。1등승객(FIRST CLASS) 과 차관급이상의 고관。

말할것도없이 1등승객은 항공사로선 귀빈이다。수속에서 탑승까지 대우가 다르다。체크인카운터가 다르고、탑승때까지 3층항공사 라운지에서 푹신한 쇼파에 앉아 쉴수 있다。또 세관신고등을 할때도 항공사직원들이 배려를 해준다。또 비행기에 오를때도 일반승객이 모두 타고난다음 여유있게 탄다。항공사들은 1등승객라운지에 이름을 붙인다。KAL은 아리랑라운지、NWA는롭라운지、JAL은사쿠라라운지등。

국제선의 경우 金浦공항에서 트랩을 오르는일은 거의없다。로딩부리지를 통해 그대로비행기에 탈수있기 때문이다。보딩패스에적힌 게이트앞에서 기다리다 항공사직원이 탑승을권할때 타면된다。

政界要職 거친「조직의 名手」

내달 訪韓하는 부시美副統領

얼굴

조지·허버트·워커·부시美부통령(57)은 지난64년 정계에 투신한후 하원의원、駐北京연락사무소장、CIA(중앙정보국)국장을두루 거치면서 치밀한 조직전문가、필사적인 목표추구론자、야심가로 정평이 나있는 인물。

그는 지난80년 공화당예비선거에서 초반전에는 선두주자가 되기도 했으나 역부족으로 도중하차、레이건후보의 러닝메이트로 가담해 뛰어난 조직력과 정열로 레이건당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부시부통령은 1924년6월12일 매서추세츠주 밀톤의 상원의원집안에서 태어났다。18세때 미국최연소파일러트로 2차대전에 참전했으며 48년에는 명문예일大경제학과를 우등으로 졸업한후 텍사스로가서 66년까지 석유사업에 손대 대기업가로 성장했다。64년에 상원의원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셨으나 66년과 68년 하원의원에 당선됐으며 70년에는 상원의원에 다시 도전했다가 또다시 낙선되기도 했다。

그는 70년 당시 닉슨대통령의 눈에띄어 유엔대사로 발탁된후 공화당전국위원장(73년)、駐北京연락사무소장、CIA국장등 화려한 관직경험을 쌓았다。지난해 레이건대통령 피격당시「보조대통령」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는가하면 지난2월에는 출근길에 피격소동을 겪기도 했다。훤칠한 키에 귀공자타입으로 부인 바브라·피어스여사와의 사이에 5남매를 두고 있다。

比에 新婦수출붐
작년7천명해외로

필리핀에 최근 신부수출붐이 일어났다。작년 한해동안 7천명의 필리핀여성이 외국남성과 결혼、해외로 빠져나갔다。이중 3천명은 호주、4천명은 미국과 유럽지역으로 건너갔다。

신부수출은 보통 결혼상담소의 중매로 이루어진다。중매는 사진으로의뢰하거나 직접 신랑감이 필리핀을 방문、선을 본후 빠르면 1주일내에 결혼식을 올리고、6개월이면 비자를 받아 남편나라로 가게된다。

필리핀여자와 결혼한 외국남성들은『필리핀 여성들이 이해심이 많다』고 칭찬하고 있다。

런던의 버스요금
세계서 가장비싸

일요일인 지난21일 영국정부가 단행한 시내버스요금인상으로 런던은 세계에서교통요금이 가장 비싼도시가 됐다。

한국일보 詩壇

山茱萸

章湖

두지터 아래마을
눈 밑에서 냉이뿌리를 캐던
코 흘리개 빨간 볼같은
봉오리 두어개 달린
산수유 한가지를 꺾어다
병에 꽂아
창가에 놓아두었더니
노란 망울 벌었다。
손주놈 발가락같은 꽃차례
그 속눈썹같은 꽃술에
햇살 어린다。
여태도 석입눈이 질펀한 응달、
그 산속 봉오리들은
두지터 아이들처럼 을씨년스레
바람받이에서 떨고 있겠는데
날 따라와서
저만 벌었다。
편 찮을까。

나의 이력서

金蘇東

(題字 金蘇東)

⑱

자동차는 해안선을 타고 시모다(下田)로 向해 질주한다。멀리 그림같은 섬들을 보면서 내가탔던 [illegible]메이터는어느새 40마일의 숫자를 가리킨다。이즈(伊豆)반도의 남쪽 시모다는 온천과 일본차로 이름난 역사의 고장이다。

일본의 작가들이 이곳을 무대로 쓴 작품이 허다하게 많다。예술의 향기를 자욱하게 안고있는 시모다를 꼭 한번은 찾아보려던 내염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시모다夜曲」、「이즈(伊豆)의 舞姬」、「黑船」등 시모다港에 얽힌 日本의 사연들은 많다。특히 검은 군함을 타고온 페리제독과 하리스는 다 이 항구에 정박했고、尊王攘夷를 내세운 도쿠가와막부(德川幕府)가 가쓰야스요시(勝安芳)을 보내 페리제독과 담판을 시도한 것도 이곳이다。

에도막부(江戶幕府)는 이 미국군함「黑船」문제로 한때 충격과 고

인상깊었던 伊豆半島

민을 겪었다。이 구로부네(黑船)를 에워싼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후일 소설로 영화로 연극으로 작품화됐다。그러한 유서있는 시모다港에 입박했다는 것은 일본영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 셈이다。

이튿날 아침일찍 창문을 여니 고요한 해면에는 가랑비가 뿌리고 있

藝術의香氣자욱…꼭 찾으려던꿈 이뤄

었다。이곳이 바로 그 수많은 항구정서로 일본영화들을 풍요하게 한 시모다나루터다。영화「黑船」에서 미처 느껴보지 못한 일본적인 그리움과 정서를 알뜰하게 체득한것 같다。

일본옷차림으로 종이우산을 받쳐들고 게다를 신은 젊은여성이 해안거리를 가는 모습은 일본의 시대극을 실감나게 보는듯했다。일본영화에 담긴섬나라의로맨티시즘을 이해할수있는 감동적인 추억의 하나다。비를 실은 구름이 자욱하게 돈바다를 그대로남겨놓고 떠나야하는 노스탤지어는 내가 일본을 이해할수있는 가장큰 기억으로 남아있다。

비내리는 시모다항을 뒤돌아보며 하리스제독이 타고있는 미국군함「黑船」의 환상을 그려본다。바다를 낀 해안가도는 안개가 깊다。그러한 추억들이 그후 일본영화를 나에게 더욱 접근시킨 요인이 된것같다。

1933년도에 개봉된「이즈의 오도리꼬」(伊豆の踊り子)는 남국정서와 시모다의 서정시같은 느낌으로 추억에 남는 일본영화다。고쇼헤이노스께(五所平之助) 감독작품으로 그때의명우 오히나다덴(大日方傳)과 다나까기누요(田中絹代)가 열연한 수작이다。개봉당시 영화애호가들을 열광케 했고 지방에서도 인기가 대단했다。일본영화 무성시대말기의 명작으로 지금도 그추억이 생생하다。이즈의 거리를 순회하는 떠돌이 연예단체의 청초한 소녀와 지방 고등학생과의 가냘픈 연정을 그린 순정물이다。일본의 향수와 일본의 인정들이 담긴 그런 휴매니즘을 볼수 있는 작품이다。이즈반도를 한바퀴돌아온 그 자동차 여행에서 일본을배웠다。

◇1933년에 개봉된 「伊豆의 踊子」의 한장면。田中絹代와 大日方傳이 주연한 이영화는 일본 무성영화시대 말기의 걸작이다。

소설·영화에 자주나오는 名所 많아
드라이브 한번으로 日本 다 본 기분

그 소년 소녀의 소박한 연모의정이 아름다운 이즈의 서정속에서 솔직하게 그려진 이영화는 고쇼헤이노스께의 독자적인 경지를 수립한 무성시대의 걸작이다。

그후 영화클럽에서 우리들은 열을올려 비평하고 토론했다。내 영화수업의 인상깊은 출발점이기도하며 영상조의 자연주의적 향방을 시사해준 시대이기도 하다。

영화는 재미있어야하고、영화는볼것이 있어야한다。그러나 영화에는 자연이 있어야하고 인간이있어야한다。이것이 내 지론이며 주장이다。인생은 그 환경속에서 지배되는것이며 자연속에서 영위되고있다。그 속에서 오묘하게 얽히고 설킨 인간갈등을 대담하고 솔직하게 묘사해야된다는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R. 후라하티가만든 영화「아란(Man of Aran)」、「北國의 怪異」(Nanook of the North)」、「南海의 白影」(White shadow of southern seas)」、「南海의 모아나」(Moana of South sea)、「타부」(Tabu)같은 것들은 세계를 놀라게한명작이다。자연그대로의 사실에 치중한 그 다큐멘터리의 묘사에는 감동과 정서와 미학이있다。영화의 전달능력을 고도로 과시한 작품들이다。

LE SALON

HAI R DESIGNER BY PAT

CUT & STYLING	$30
STYLING	$16~20
COLOUR	$20~50
PERM, CUT & STYLING	$65~80
PROTEIN TREATMENT	$7~15
HENNA	$27~35

SKIN CARE SPECIALIST BY LOUISE

FACIAL	$35~40
EYELASH TINT	$12
EYE BROW ARCH	$7
MANICURE	$8
PEDICURE	$15
LEG WAX	$25~40
BIKINI OR UNDER ARMS	$12
FACE WAX	$18

화장품 판매
MADE IN FRANCE YANKA

※시간예약을 하실때는 리셉숀에 하여 주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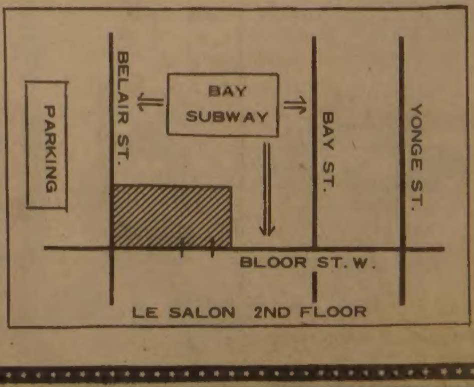
PAT(YONG-SOOK)PAK

경 력

1945년11월22일 인천출생
1964년 서울여자예림 미용기술학교 졸업
1970년 서울명동 라메르 미용실근무
1972년 토론토 MICHAEL KLUTHE BEAUTY SALON 근무
1976년 토론토 GUS CARUSO'S SELF-EMPLOYER
1982년 토론토 LE SALON SELF EMPLOYER

APPOINTMENT HOUR

TUE	9:30~5:30
WED	9:30~5:30
TRU.	9:30~6:30
FRI.	9:30~4:00
SAT.	9:00~3:00



82 BLOOR ST. W.(2층)
☎: 964-2715

駐韓 美대사관 建物
政府、移讓촉구키로
80년9월로 한국歸屬
새廳舍 新築때까지 허용

정부는 정부廳舍 再배치계획의 확정을 계기로 현경제기획원청사와 나란히 있는 駐韓美대사관건물을 한국정부에 조속히 移讓해 주도록 美側에 촉구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소식통은 25일 『현재 駐韓美대사관이 사용중인 건물은 美국제개발처(USAID)의 기능이 종료된 80년9월로 한국정부에 歸屬된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다만 새대사관건물을 新築할때까지 이건물을 당분간사용하고싶다는 美側의 희망과 韓美간의 특수한관계등을 고려、이를 잠정사용토록 허용하고 있는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駐韓美대사관 건물은 유솜(USOM)과 한국정부간에 체결된 사업約定에 따라 韓美상호안보계획이 존속할때까지 유솜과 그後續기관이 사용한다는조건으로 지난61년 美정부자금으로 한국정부소유의 토지에건립됐다。

이 건물은 그후 유솜과 그 후속기관인 駐韓美국제개발처(USAID)가 사용해오다 지난68년부터 駐韓美대사관이 들어서 지금까지 사용해오고있다。

그러나 80년9월 駐韓美국제개발처의 기능이 종료됨에 따라 한국정부에 귀속됐는데 美대사관측은 새청사의 敷地가 확보될때까지 현건물을계속사용할수 있도록 한국정부에 요청、정부의 양해를 얻은것으로 알려졌다。

「勞動市場」이 생긴다
민간상설로 큰都市에 취업신청받아 알선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로부터 求職신청을받아 기업들이 필요로하는 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해주는 민간상설노동시장이 오는 6월 서울 釜山등 전국주요도시에 개설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산업사회가 필요로하는 인력을 확보、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고용을 증대하고 인력의 배분및 활용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민간직업안정기구를 설치 운용키로했다고밝혔다。

노동부의 인가를받아 민간30여개의 업종별 지역별 경제단체에의해 설립이 추진되고있는 이 취업알선소는경영자 총협회와 산하 釜山 大邱 大田 光州및 仁川지부와 제단체에 설립됨으로써 전국규모의 취업알선망을 갖추게된다。

한국과 因緣깊었던 아이젠하워
52년 大統領당선자로 韓國戰線 시찰
李대통령의 北進고집꺾고 끝내 休戰
2차대전후 콜럼비아大 總長도 역임

53년에서 60년까지 미국 대통령을지낸 아이젠하워장군은 한국과 인연이깊은 미국 대통령에 속한다。

3년을 넘어끈 한국전을 그는 휴전으로 마무리지었고 4·19로 제2공화국이 탄생하기직전 서울에서 1백여만 시민들의 열광적인 환영을받았다。

환한 웃음、「아이크」로 통하는 대머리5성장군은 2차대전때의 歐洲연합군 최고사령관이었을뿐아니라 戰後 미국 콜럼비아大총장으로、또 NATO군 초대사령관으로、어찌보면 가장 군인답지않게 세계인에게 인기가 있었다。주로 유럽에 인연이 깊은

◇55년 9월 아이젠하워대통령은 작은 심장마비증세를 일으켜 입원, 1개월동안 치료끝에 예의 아이크웃음을 되찾았다。 5星장군이었던 그는 다섯별이달린 환자복에 원수휘장이있는 넥타이를 매기를 좋아했다。

그가 한국과의 인연은 한국전만으로 생긴것은 아니다。46년여름 그는 중국대륙의 싸움을 조사하기위해 극동방문길에 서울에 들러 하지중장의 미군정이 겪는 한반도 내에서의 냉전을 잠시 둘러보았다。

그의 회고록「백악관시절—變化를 위한 위임」에 나오는 한국의 인상은 기후、지형에얽힌 지극히후박한것이다。

52년 12월2일 대통령후보때 공약한대로 그는 일군의 참모를 이끌고 戰火가 한창인 한국을 대통령 당선자로 방문했다。

이때는 더위대신 추위가 화제의 중심이었다。미국이 자랑하는 戰略家이기도한 그는 이미 전선은 고착、소강상태에 빠져있음을 직감할수있었다。中共군은 밀리고 밀리는 속에서 이미 고지를 요새화해 대포가 땅굴을 통해 들락날락 거렸고 화력도 유엔군 못지 않았다。

50년 6·25가 발발했을때 콜럼비아大총장이었던 그는 트루먼을 방문、한국에 공군·해군 지원뿐 아니라 지상군 투입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었다。

그런 그가 2년6개월여를 끌고있는 한국전을보고 결론내린것은 한반도내의 평화회복을 위해서는 西方동맹국과의 우의를지속하는 전제위에 「명예로운 휴전」을 해야 한다는것으로 변했다。

그에게 한웅큼의 불안을안겨주는것은 노구를 이끌고 전선시찰에 동행한 李承晩대통령의 끈질김과 고집이었다。李 대통령은 전선에서 공격을 펴 압록강까지 밀고가자。한국군을 증강시켜달라』고추위속에서도열변했다。

이열변은 53년2월들어 상이포로교환등으로 휴전회담이 재개됐고 전쟁이 휴전으로 치닫자 李 대통령은 그에게 잉크방울이 튀기는 격정속에 3~4차례 친전을 보냈다。

『휴전 회담이 재개되고협정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중공군은 한반도에 남게된다。한국정부는 압록강까지 북진하기를 동의하는 우방국 군대만 남기를 바란다。미군이 남겠다면 海·空軍 지원을해 주어야한다。만약 물러가겠다면 물러가라』

『중공군의 주둔은 한국에게 저항없는 사형선고와 같은것이다。중공과 유엔군의 동시 철군이 이루어지는 전제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선행되어야 한다。미 해·공군력은 한국에 있어야한다。만약 이제안이 거부될때 한국은 분단적인 휴전협정을반대하며 단독으로도 싸운다』

李 대통령의 격정은 결국 6월17일 2만5천여명의 反共포로석방으로 미국이 벌이고 있는 휴전회담에 태업의 불을 부었다。

아이젠하워도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당신의 행위는 50년 7월15일 조인된 유엔군 사령관에게 한반도작전지휘권을 위임한것을 위반한 것이다。이런 행동의 재개는 한국의 자유 쟁취를 위해 우방이 흘린 피와 용맹성에 대한 희생을 결과한 것이다。즉각 사태를 수습해야 할 것이다』

결국 李 대통령은 7월12일 휴전에 동의했고 7월27일 휴전은 성립됐다。『이순간 우리는 (21개참전국및 한국)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많은 우리들 자손의 명예로운 휴전을 위해 생명을 바쳤다。이는 바로 自由民의 용기를 다시 증명해주는 것이다。이제 적수중에있던 포로는 돌아올것이다。또한 우리 수중에 있는 포로도 자유의사에 따라 갈곳으로 갈 것이다。그러나 다시 부언하면 우리는 한 전쟁에서 휴전을 통해 승리했을 뿐이다。世界전반에대한 승리는 아니다』

아이젠하워의 이런 변명적 승리의욕은 결국 越南戰으로 비화했고 존슨 대통령과 朴正熙 대통령의 만남을 예고해주는 것이기도 했다。【朴涌培기자】

美国 이런일·저런일

「中共壁」에 敗退 거듭
全英배드민턴 黃善愛·柳尙希 기대깨어져

黃善愛를 비롯한 한국남녀 배드민턴 대표팀은 24일 개막된 제72회 全英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첫날 경기에서 中共선수에패해 대거탈락했다고 선수단이 알려왔다。

지난해 이대회 여자단식챔피언인 黃善愛는 1회전서英國의 고워츠를 11-2、11-4로 물리쳤으나、2회전서中共의 송유핑에게 11-8、2-11、0-11로 역전패했다。柳尙希역시 1회전서 中共의 우디시에게 2-11、2-11로 패했다。

4명의 한국여자선수중 부전승으로 2회전에 오른 金允淑은 英國의 브리지를 12-10、12-10으로、金練子는 日本의 요네쿠라를 11-5、11-6으로 물리치고 3회전에 올랐다。

그러나 金允淑은 3회전서 랭킹1위의 張愛玲과、金練子는 3회전서 첸루이첸、4회전서 쑤롱등 中共선수들과 싸우게되어 전망이밝지못하다。

해설
선수의 質量서 中共에뒤져
戰術개발·海外情報 어두어

81년시즌 세계 배드민턴 무대를 휩쓸었던「黃善愛돌풍」은 中共의 두꺼운 벽에막혀 1년만에 주저앉고말았다。中共은 탁구에이어 배드민턴도 막강한힘으로 세계 정상을 달리고 있다。

81년 시즌 全英오픈을 비롯、스웨덴、日本、臺灣등 4개국제대회를 석권하여 세계 배드민턴王座에 올랐던 黃善愛는 지난해 8월 美國서 열린 월드·게임결승전서 中共의 張愛玲과 격돌、7-11、11-9、9-12로 패배했다。

西歐주도의 국제배드민턴연맹(IBF)과 中共주도의 세계배드민턴연맹(WBF)의 통합이후 이루어진 한국과 中共의 대결에서 한국은계속 열세를 기록、「세계제패」의 환각을깨트려 놓았다。

黃善愛는 금년초 日本오픈준결승서 中共의 리링웨이에 0-2、스웨덴·오픈 2회전서 우디시에 1-2、이번 全英오픈서 송유핑에 1-2로패배、전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소수의 스타·플레이어에 의한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다。선수층의 다변화、선수육성을위한 효율적인투자、中共을비롯한 외국선수에대한 정보수집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배드민턴의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할것이다。【方錫鎬기자】

阿洲 탄자니아 마송 選手
서울마라톤出戰 어제入國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마라토너 아가티우스·마송(20·사진)이 82년 서울국제마라톤에 참가하기위해 25일 서울에왔다。미수교국인 탄자니아인으로서는 처음 한국땅을 밟은 마송은 77년에 선수생활을 시작、작년 9월열린 北京마라톤에 첫 출전했으며 최고기록은 2시간15분으로 국내랭킹 2위。

전직 국교교사인 마송은 워커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좋은 기록을 내겠다』고 다짐했다。

亞洲競技까지 만류
趙廣來·朴成華사퇴

속보=대한 축구협회는 25일 이사회를 열고 대표팀 사퇴의사를 밝힌 HB 趙廣來와 FB 朴成華의 사퇴문제를 논의、오는 11월 印度아시안 게임때까지 계속 대표팀에 남아 국가에 봉사하도록 권유키로 했다。

崔회장은 금명간 두선수와 만나 대표팀 잔류에 따른문제를 협의할것으로알려졌다。

구독신청 533·2361

브라질·아르헨·西獨·스페인
월드컵蹴球 결선서 겨룰듯

【런던24日路透聯合】 브라질의 지난날 축구스타 펠레는 오는 6월에 스페인에서 열리는 월드컵 축구대회에서는 브라질·아르헨티나·西獨및 홈팀 스페인이 결선진출을놓고 각축을 벌일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축구진흥을위한 한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런던에온 펠레는『이번 월드컵 대회의 우승국을 점치기는 매우 어려운일』이라고 말하고 벨기에도 이번대회에서 다크 호스로부각될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畵

"마누라가 어떤고기를 사 달랬는지 잊어먹었단 말이야"

"가만 있자"

"선생보다 머리가 더 잘 돌아가는 송아지 골이 여기 있수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70>
朴婉緖 作　金光培 畵

明暗 ④

수지는 집안식구가 말릴사이 없이 날렵하게 몸을 날려 그 곳을 벗어났다。

수지가 이인재와 만나기로 한 장소는 후문 근처 동창회관 앞이었다。수지네 식구들이 있는 곳과는 반대쪽이어서 넓은 캠퍼스를 가로지르는 먼 거리였다。

수지는 올케가 진행시키고 있는 혼담에 대해 짐작하고 있었고、자기나이가 혼기를 놓치려하고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오늘이야말로 인재와의 관계에 어떤 마무리를 짓든 새로운 시작이 있든 해야할것 같았다。

과(科)는 다르지만 인재와는 대학입학동기였다。그러나 수지는 오늘 대학원을 졸업하고 인재는 대학을 졸업했다。수지가 대학원에 간 것은 학문에 대한 깊은 뜻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인재가 군복무하느라고 처진 시간을 맞춰주기위한 배려였다。그러나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배려였을뿐 인재하고 그럴만한 약속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두사람 사이에 사귐이 오랜만큼 학교내에서 널리 알려진 커플이었지만 기우는 커플로도 소문이 나있었다。

두사람은 여러모로 기울었고 기우는쪽은 하나같이 인재쪽이었다。수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인재는 대학을 졸업했대서가 아니었다。그런 차이는 동갑 커플 사이에선 흔한、아니 있을수 밖에 없는 차이여서 문제삼을게못됐다。

인재는 촌스럽고 수수한 얼굴에 소심하고 따뜻한 눈을 가지고 있었고 수지는 도회적인 세련된 용모와 변덕스럽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수지는 옷맞추고 물건 사러다니고 음악회나 전시회를 기웃대는 일로 분주했고 인재는 아르바이트를몇탕씩 뛰느라고 눈코뜰 새가 없었다。인재는 궁상맞고 수지는 화려했다。수지는 매사에 자신만만했고 인재는 열등감이 몸에 배 있어서 무슨 일이고 나서기를 좋아하지않았다。인재는 값싸고 분량이 많은 음식집을 좋아했고 수지는 비싸고 분위기 있는 집을 밝혔다。인재는 달라는것 없이도 불쌍해 보일때가 있는 반면、수지는 주는 것 없이도 남의 기를 죽일 때가있었다。

그렇다고 둘 사이가 이런 이질감 하나만으로 오랫동안 싫증 안나고 끌어온것도 아니었다。

수지는 인재를 만나면 시간 가는줄 모르게 즐겁고 헤어지면 곧 또 만나고 싶어졌다。수지는 인재한테 두메산골에서 보낸 그의 국민학교시절、읍내에서 보낸 중학교시절、소도시에서 보낸 고등학교시절 얘기를 듣는 걸 특히 좋아했다。그의 소년시절은 입지전(立志傳)속의 위인의 그 시절만큼이나 헐벗고、굶주린 거였지만 보다나은 고장으로 향한 줄기찬 도전의 의지로하여 조금도 비참했던것 같진 않았다。

더군다나 수지하고 단둘이 있을 때의 인재의 말솜씨는 유창하고 정감이 풍부했다。수지는 그가 거친 가난을 비참하기는 커녕 꿋꿋하고 싱싱한 생명력이 넘치는 별난 것처럼 느끼기까지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녀는 두메 산골에서 읍으로、읍에서 소도시로、소도시에서 서울의 명문대학으로 한단계 높은 곳을 향해 차근차근 시도한 그의 도전에 열렬한 응원을 보냈을뿐아니라 그가 마지막으로 도전할수있는 봉우리에 자신을 세워두는 상상을 즐겼다。

『얘、너 돌았니? 그 촌뜨기가 어디가 좋아서 여지껏 못헤어나니? 그만큼 가지고 놀았으면 됐지』

그 안어울리는 한쌍의 교제가 오래가니 이렇게 충고해주는 친구도 생겨났다。

流星의 賦 <342>
李炳注 作　李友範 畵

風前의 燈火 ⑰

홍계남은 충주근처까지 되돌아 갈 작정을 세웠다。

그 목적의 하나는 신립군과 이일군의 잔병이 산간유곡에 숨어 있을 것으로 보고 그것을 수습하는데 있고、제2의 목적은 적이 잔류시켜 놓은 거점(據點)을 격파하여 적을 후방에서 교란시킴으로써 그 전진의 기세를 꺾자는데 있었고、제3의 목적은 피난중인 사람 운데서 장정을 뽑아 합세시킴으로써 대군(大軍)을 만들자는데 있었고、제4의 목적은 그렇게 형성된 대군으로써 언젠가 적의 주력(主力)을 분쇄하려는데 있었다。

이러한 목적제시와 작전계획이 하달되자 군의 사기는 일시에 올랐다。

홍계남은 삼방면으로 척후병(斥候兵)을 내며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정여림(靜如林)、조용하길 숲처럼 하고 동여풍(動如風)、움직일 땐 바람처럼 하라! 이편에선 보면서 저편에겐 보이지 않는 것이 척후의 요체이니라』

척후들의 탐색과 보고는 정확했다。그 탐색한 보고에 따라 홍계남은 적의 3번대인 흑전장정군(黑田長政軍)이 취한 진로의 방도(傍道)를 역진(逆進)하여 충주를 향했는데、진천에서 청안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적의 거점을 야심(夜深)을 이용하여 습격、그곳에 주둔해 있던 적 약천명가량을 도육했다。

그런데 적은 우리 군사가 어느 방면으로 와서 공격하고 어느 방면으로 퇴각했는지 알수가 없어、일시 한섬에 들어갔던 병력을 되돌리는 소동을 벌였다。

이 전승의 기록은 우리 측에는 없지만 일본의 기록엔 있다。

그곳을 지키고있던 자는 흑전장정의 부하 쇼오노·야스께(庄野彌助)란 놈인데 뒤에 흑전장정과의 회고담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것이다。

『청안 근처엔 조선병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한섬에 무혈입성했다는 소식을 축하하느라고 연회를 베풀었는데 물론 주위에 삼엄한 경계망을 치는걸 잊지 않았죠。그런데 난데없이 사방에서 함성이 났다싶더니 순식간에 수라장이 되어버린 겁니다。나는 그들과 격전끝에 간신히 살아남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떨립니다。조선에 건너가서 처음 당한 일이었으니까요。그때까지 어디 한군데서나 싸움다운 싸움을 해보기나 했어야죠。뒤에 들으니 그때의 장군이 홍계남이라지 뭡니까。일본에서 몇번 들은 이름이어서 어디서 만나나 했는데 글쎄 거기서 만났단 말입니다。내 부하 한놈이 피를 철철흘리고 죽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신장(神將)을 만났다는 겝니다』

역시 이것도 대전투가 아니라서 우리 측에 기록이 없어졌는진 모르나 홍계남이 이끄는 군대는 충주가까이에 갔을 땐 5백명으로 불어 있었다。그리고 그는 청안습격의 충격을 사라지길 기다려 충주 단월역(丹月驛)에 주둔하고 있던 왜병 천명을 기습으로 도살했다。

그곳을 지키고 있던 자는 소서행장의 부장 와끼베(脇部)란 놈이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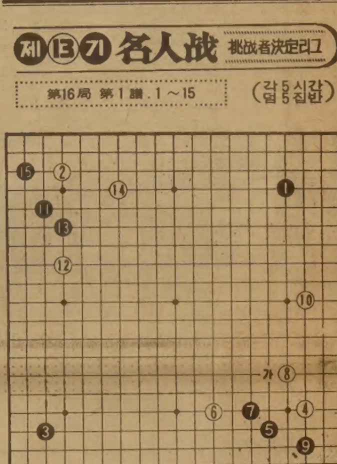
『조선군이 신출귀몰하여 어찌할 줄을 몰랐는데、알고 보니 그것이 홍계남장군이었더라』

고 편지에 쓰고 있다。

홍계남은 바로 그 충주에서 신립장군의 패배를 일부분이나마 설욕한 셈이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6局 第1譜 1~15　(각5시간 덤5집반)



白(7段) 徐奉洙〈3勝1敗〉
黑(6段) 張秀英〈3勝1敗〉

지난번 승단대회결과 甲組에서 張5단과 梁相國5단이 각각 6단에 승단했다。

참고로 6단이상의 段別名單을 보면、8단 趙南哲、金寅、尹奇鉉、曺薰鉉등 4명이고、7단 金在九、鄭昌鉉、河燦錫、盧永夏、徐奉洙등 5명이며 6단 姜哲民、高在熙、金東明、劉丙虎、俞健在、洪鍾賢、金熙中、梁相國、張秀英、徐能旭등 10명이다。그러니까 張6단은 총81명기사중에서 서열순으로18위를 마크한셈인데 연령(30살)에 비하면 결코 빠른축에 들지는 못하지만 그의 性格·棋品대로 한치씩 착실하게 전진한다고 보아 틀림이 없겠고 따라서 멀지않은날 정상의 일곽은 차지할것으로 우선 믿어진다。

그것은 그렇고 이바둑은 3승1패 동률자의 대결로서 피차간 도전권의 향방이 판가름되는 중요한 한판이다。

左上, 右下 似而非同形

자주 화제에 오르지만、작년도에 이두기사는 추억거리의 바둑을 남긴바 있다。중반전에 徐7단의 黑대마를 잡고 질라야 질수없는 판국을、張6단은 공연한오기와 욕심으로 역전패당했던 것이다。그때도 각기 중요한바둑이어서 만약 張6단이 승세를 신중히 밀고나갔더라면 도전권을 땄을지 모른다。徐7단으로서는 실로 진땀나는 한판이었던 까닭에 이번에는 추호의 방심도 못한다고 초반부터 허리띠 단단히、죄는 식의 출발이다。

한편 張6단은 전투에 자신이 생겼는지 黑1、3의 대각선으로 투지를 불사른다。白6이하 10까지는 정석。

그러나 黑7은 최근「간」에 뛰는형이 유행처럼 두어지고 있다。좌상귀黑11이하 15는 우하귀와 똑같은데 다만 白14가 다르다。이수의 뜻은 무엇일까。【一凡】

KOREA HOUSE

영업시간 연장안내

교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자라온 본 KOREA 하우스에서는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업시간을 변경, 연장하고 보다 나은 써비스로 고객여러분을 모시려 하오니, 많이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변경시간 : 종전—오전11시~오후11시 에서
현재 : 오전12시~새벽1시

※점심시간에는 Lunch Special 이 있읍니다.

666 BLOOR ST. W.
☎ : 536—86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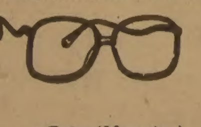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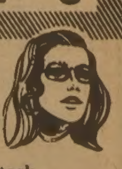
아직도 <한국일보>를 구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일보>는 캐나다 교포사회에서의 유일한 일간지이며, 우리 이민생활의 반려자입니다.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며, 교민사회의 거울로 언제나 그리운 고향소식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와 함께 교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립니다.

한국일보는 잠시도 휴식없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토론토사 (416) 533—2361
구독료 : 월9달러, 6개월 50달러, 년99달러
■보내실곳 : THE KOREA TIMES(HAN KOOK IL BO)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구독 신청서
한국일보
NAME ....
ADDRESS .... APT
CITY .... PROVINCE ....
POSTAL CODE □□□ □□□ PHONE ....

블루어안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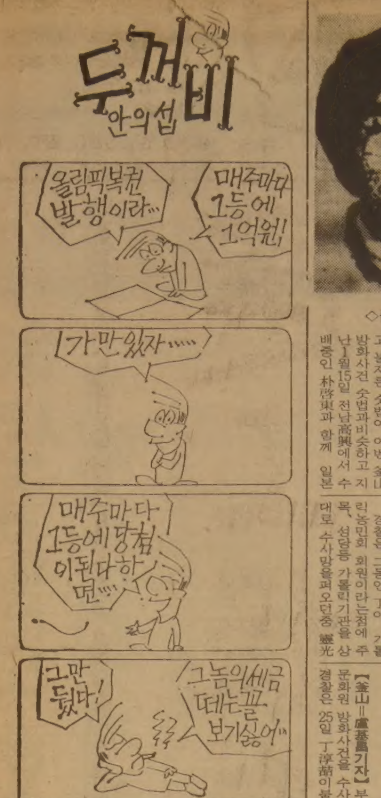



●Zeiss(Marwite)　●Rodenstock
●Christian Dior　●Nina Ricci
●Menrad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안과의사알선(No Appointment)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영업시간 : 월~목·9 : 30AM~7AM
금·9 : 30AM~8PM
토·9 : 30AM~6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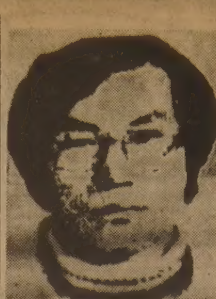
635 BLOOR ST. W
531—2236 (B) 886—0722(R)



방화범 丁淳喆 靈光서 검거

圓佛敎 교당內서

釜山사건은 관련없는듯


◇붙잡힌 丁淳喆

치안본부는 釜山 美문화원 방화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수배중이던 丁淳喆(27·光州市月山洞533의12)을 25일 새벽0시10분께 전남 靈光郡白岫面吉龍里 원불교교당내에서 검거, 釜山방화사건의 범행과 배후조종여부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치안본부는 이날 丁을 서울로 압송, 丁과 이번사건용의자로 수배중인 李鎬喆(24)·朴啓東(30·K大제적생)등과의 범행모의및 배후조종혐의등을 캐고있으나 釜山방화사건의 범행사실은 아직 밝혀내지못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丁의 검거로 사건수사가 진전될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초 지난80년12월9일 전남光州 美문화원방화사건당시 丁이 휘발유를뿌고 불지른 숫법이 이번 釜山방화사건 숫법과비슷하고 지난1월15일 전남高興에서 수배중인 朴啓東과 함께 일본으로 밀항을 기도했으며 또 최근 釜山에 잠입했다는 정보가 있어 丁을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해왔었다.

경찰은 丁이 일단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丁이 비밀리에 접촉해온 것으로 알려진 朴과李의 행적을 좇는데 결정적 단서를 쥐고있기때문에 朴등을 검거하면 釜山방화사건의 관련자들이 쉽게드러날것으로 보고 이들의 행적을 캐고있다.

경찰은 그동안 丁이 가톨릭농민회 회원이라는점에 주목, 성당등 가톨릭기관을 상대로 수사망을펴오던중 靈光의 원불교교당에 인상이비슷한 사람이있다는 정보를 입수, 이날밤 교당안에 숨어있던 丁을 검거하게된것.

丁은 지난80년 光州美문화원방화사건의 범인5명중 주범으로 나머지4명은 이미잡혔으나 현상금 1백만원이걸린채 수배를 받아왔었다.

가톨릭신자로 세례명이 마르코인 丁은 그동안 숨어다니면서 「김해선」 또는 「김해」등의 가명을 사용해왔다.

전남麗川郡雙峰面鳳溪里에서 태어난 丁은 麗水에서 중고교를 졸업, 光州C대학2학년을 중퇴한뒤 학원소요를배후에서 주동해온 혐의도 받고있다.

한편 丁의 아버지 丁동주씨(60·光州市月山3洞289의21)는 아들의 검거소식에 『속이 편하다. 죄의 댓가를 치르고나와 새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丁씨는 또 아들이 여수에서 고교를 졸업한뒤 떨어져 살아왔기때문에 지난77년 군에서 제대한뒤 단한번 만난일이 있을뿐이라고 말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光州C대학에는 다닌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自首하고싶다"電話 女子목소리로 搜査本部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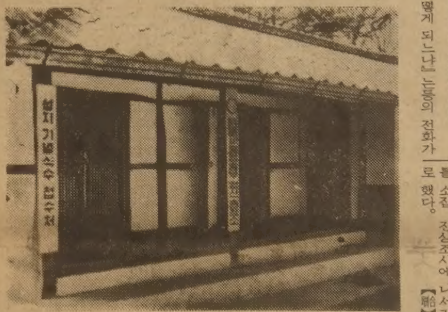
【釜山=盧基昌기자】 부산美문화원 방화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25일 丁淳喆이 붙잡혔지만 丁이 이사건과는 관련이 없는것으로보여 원점으로 되돌아가 현장중심으로 탐문수사를 재개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국도극장 관람객 63명중 3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이며 화재현장에서 용해된채로발견된 플래스틱통을 감정한 결과 「청혼」색 이었음은 밝혀졌으나 형태감정이 불가능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플래스틱통2개가 발견된 산장여관 지하실 인쇄소와 하수구에서 직경30㎝의 기름통투경을 발견, 범인들이 버린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한편 24일상오10시께 수사본부에는 경상도말씨의 남탐한 여자목소리로 『내가 범인이다. 마음이 괴로와 자수를 하고 싶다』『자수하면 어떻게 되느냐』는등의 전화가 걸려왔다.

이 여자는 경찰관이 자수를 권유하자 『나는 자수하고싶은데 다른 2명이 죽어도 자수를 할수없다며 우기고 있다』고말한후 전화를 끊어버렸다는것이다.


◇전국에 지명수배중이던 丁淳喆이 숨어있다 잡힌 원불교영광총부 영산출장소.

圓佛敎 긴급회의 犯人은신에 유감

【裡里】원불교총부는 25일 상오 光州 美문화원방화사건 주범으로 수배중이던 丁淳喆(27)이 원불교교당에서 검거된데대해 전체신도와 함께 진심으로 유감의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裡里의 원불교총부는 25일상오8시30분 金建修교정원장주재로 긴급간부회의를 소집,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韓】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진주 오팔 536-1692

5 5 50

다섯시간기다려 診察은 5분만에 藥타는데50여분

서울綜合병원 患者들 기다림에 지쳤다

진찰·入院「福券」타는 심정

지방까지 너도나도 서울行

유명敎授 6월까지 이미예약
가까운 開業醫두고 먼곳으로
가벼운 증세에도 큰병원찾아

「3·3·30」。무슨 암호숫자같지만 서울의 종합병원을 한번쯤 가본사람이면 다아는 숫자다。이는 의료보험실시(76년)이후 종합병원으로만 몰리고있는 병원실태를 꼬집은 한 말로 「3시간기다려 3분진찰받고 30분 기다려 약을 탄다」는 뜻。그러나 그것도 옛말。종합병원의 외래창구는 계속 붐벼 이제는 「5·5·50」가 될 판이다。

◇선생님 뵙기 힘듭니다 종합병원의 웬이름 알려진 의사들은 하루에 1백명이상의 환자를 맞이해야되기 때문에 「3분진료」란 말이 생겨날 정도다。이같은 「속성진료」로는 환자가충분히 진료를 받을수 없다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서울에서도 가장 붐빈다는 서울대학교병원에는 하루 평균 1천9백여명의 외래환자가 몰린다. 이중 의사를 만나 3분이라도 진료를 받는 환자는 며칠전서부터 예약을 해둔 70%에 불과하다. 나머지 30%는 의사의 얼굴도 보지못한채 『언제쯤오면 진료를 받을수 있겠다』는 예약만 하고 돌아간다. 평균 예약기간은 2~3일이지만 일부 유명교수는 몇개월씩 환자가 밀린다. 내과 金모교수의 경우가 대표적인예로 오는 6월말까지의 예약이이미 지난 3월초에 꽉차버렸다.

또 진료는 받았지만 입원여부를 결정짓기 위해서는 몇차례의 재진을 받아야 하는데 서울거주 환자들은 통원이라도 할수있지만 지방환자들은 친척집이나 여관에 머물면서 재진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이때문에 병원입구에서조금 떨어진 대학여관의 경우 하루평균 환자손님들이 6~7개의방을 차지하며 인근 한일여관등 5개의 여관도 마찬가지.

손님들은 대부분이 지방에서 올라와 수술을 하려온 사람은 4~10일, 외래진료를 받으러온 사람들은 1~2일씩 묵고 나간다.

그러나 이들처럼 여관에 투숙까지 하면서 서울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지방의 병원에서도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질병이라는데문제가 심각하다.

환자들마다 서울로가면 좀더 좋은 시설이나 더 나은 진단을 받을것이라는막연한 생각때문이다.

또 K대부속병원은 전체외래환자의 30%가 종합병원을 이용하지않아도될 비교적 가벼운 증세의 환자여서 대학교수가 감기나 설사환자를 치료해야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종합병원의 환자집중 현상은 경제, 문화수준의 향상으로인한 자연증가 외에 의료보험제도의 확대실시로 가입자라면 누구나 적은 비용으로 좋은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때문이지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전달체계」가 이들 환자들을 수용하기에는 너무나많은 미비점을 갖고있다고 단정한다.

여기에 ▲국민들 사이에 널리퍼져있는 종합병원 선호사상과 ▲개인병원에 대한 상대적인 불신감 ▲고급의료기관의 대도시집중등이 여전히 복합적으로 작용하고있어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의료보험연합회 통계에 의하면 지난7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의 의료보험환자의 연인원은 77년 2백41만6백45명, 78년 7백51만5백58명, 79년 1천4백44만3천7백97명, 80년 2천6백92만1천6백58명, 81년 4천3백33만4천5백32명으로 해마다 2배이상씩 늘어났다.

그러나 피부양자를 포함한 의료보험 수익대상자는 77년 3백14만명, 78년 3백82만명, 79년 4백66만3천명, 80년 5백84만명, 81년 6백99만2천명으로 연평균 20%의 증가에 지나지 않아 보험환자의 급증현상이 한눈에나타나며 81년 한해동안 의료보험환자중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3천85만명으로 일반병원 입원환자 6백19만8천명의 5배나 됐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환자의 증가와 종합병원집중현상은 결국 ▲의료자원의 비효율적배치는 물론 ▲대부분이 대학병원인 종합병원의 고유기능인 교육기능이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있으며 ▲환자에게는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가져왔다고 말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가장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경제적인 의료전달체계와 전국적인 의료망의 재정비가 시급히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鄭在龍기자】

서류僞造 예식장등 7억원 횡령

호텔前理事구속

서울시경은 25일 서울東大門區典農洞620의29 淸凉里역앞 맘모스호텔 전경리이사 金炯晙씨(33)를 사문서위조및 동행사와 사기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의하면 金씨는 지난해8월20일 최광휘씨(서울東大門區典農洞620의29·홍콩관광업대표이사)에게 맘모스호텔 3층예식장을 8억원에 임대해준것처럼 호텔대표 박찬현씨의 도장까지찍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건네주고 현금 1억6천8백만원, 수표및 약속어음 5억2천4백만원등 모두 6억9천2백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있다.

金씨는 또 81년9월28일 맘모스호텔 거래처인 제일은행 武橋洞지점 약속어음용지에 81년11월28일 액면 3천만원을 적어넣어 위조, 같은날하오2시께 서울中區明洞외교다실에서 박정은씨에게 환전을 부탁하면서 선이자3부5리를공제한2천7백90만원을 받아가로챈혐의도받고있다.

한편 홍콩관광업대표 최씨는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내보이며 『예식장사진부를 맡게해주겠다』『드레스부를 맡게해주겠다』고 속이고 1백20여명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가로챈혐의로 서울江東경찰서에서 수사를받고 있다.

懲戒학생 서클加入 허용 서울大 지도敎授 추천때

서울大는 25일 학생들의건의에 따라 서클운영규정을일부개정, 지금까지 서클가입이 금지돼있던 징계해제학생들에대해서도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을경우에는 서클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서울大는 또 본부등록서클의 요건을 완화해 지금까지는 1개단과대학 15명, 6개 단과대학 90명이상의 회원을 확보토록 했던것을 1개대5명, 6개대 60명이상으로 완화했다.

개정된 규정은 또 지도교수가 해외여행·사망·전출등으로 부재시는 서클활동이중지되던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지도교수의 수를 현재의 1인에서 2인이상으로할수있도록 했다.

死境 慧哲사미승에 各界서 誠金보내와

속보=심부전증으로 사경을 헤매는 사미승 慧哲스님의기사(한국일보 3월24일자11면박스)를 본 독자들이 24일하오 현재 6백55만4천원의 성금을 보내왔다.

24일상오에는 익명의 보살이 세브란스병원을찾아 2백만원의 성금을 전달했고 익명의 남자신도도 1백만원을 보냈다.

또 한국심장회(회장 李雄求)는 慧哲사미승이 수술후 무료로 정기진찰을 해주기로 했다.

성금내역은 다음과같다.

▲始興묘각사포교원보살1백18만원▲江南區瑞草洞무지개아파트5동703호 정영씨5만원▲京畿坡州郡內邑 釜谷里 배운흥씨1만원▲華溪寺신도10만원▲楊등진씨5만원▲무명의보살1만7천원▲삼청사주지20만원▲불교신문사장10만원▲익명의보살7만원▲익명의 신도 1만원▲明寺주지 方尙浩씨 20만원▲익명의 보살 1백만원▲鍾路區薰井洞 朴瑞巖씨 1만원▲仁川朱安洞 익명의독자 5만원▲조계종 삼선포교원주립통학강원학인스님일동 9만원▲徽慶洞보살 10만원▲李昇起씨 헌혈증서16장▲한국야쿠르트유업(株)사원의 손길펴기위원회일동30만원

原審깨고 罰金刑 佛國寺분규 사건

【大邱】대구지법 형사2부(재판장 송진훈부장판사)는 25일 불국사 전총무국장 이흥주, 전재무국장 김상옥, 전교무국장 박경태등 3명의 피고인에 대한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70만원씩의 벌금을 선고했다.【韓】

고객이주워 맡긴돈 銀行員이 꿀꺽

서울南大門경찰서는 25일 국민은행본점 영업부행원 崔璟賢씨(24·서울龍山區元曉路2街74의1)를 횡령및사기미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崔씨는 지난18일 상오10시30분께 국민은행본점영업부에 들어왔던 金鍾淑양(21·회사원)이 의자위에서 주워 주인을 찾아달라고 맡긴 尹一根씨(34)소유의 1백만원권자기앞수표 1장과 현금 1만원, 신세계백화점 크레디트카드등이 든 지갑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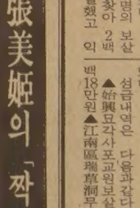
初動수사 소홀물어 釜山市警간부 免職

【釜山】시경은 25일 釜山美문화원화재사건의 초동수사감식소홀에 대한 책임을물어 시경감식계장 마승현경감을 직위해제했다.【韓】

張美姬의 「짝사랑」

演劇에 몰두 색다른정신修養

스타 張美姬양(25·사진·서울麻浦區西橋洞338의4)이 연극에 몰두하겠다 해서 이상할건 없다。영화배우가 연기력의 향상을위해 더러 그러는 경우가 있으니까 하는말이다。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캐더린·헵번、말론·브란도、엘리자베드·테일러같은 대배우도 「연극」에 열중한 예가있고 우리나라도 金東園、黃貞順같은이가 연극도하고 영화도 했다。그런데 張양의경우는 다소 가십性이 없지가않다。연예계나 연극계의「입방아」들은 그녀가「정신수양」을 위해 연극에 빠지고 싶다고 얘기한것을 주목하는 모양이다。



하기사 張양만큼 有名稅를 톡톡히 치른 스타도 별로 없다。76년 「성춘향」으로 발탁돼 톱스타로 발돋움하면서 그녀가 걸어야했던 길은 정말 험난한 「가시밭길」이었다。

「명문 E여고 졸업생 사칭」「腐정치인 張모씨의 사생아說」「송려J씨와 뜨거운사이」「야구선수C씨와 염문」「의문의 억대집마련」등 구설수가 오르내리더니 급기야는 「花草앵커우먼」이란 잡음속에서 대담쇼 「9시에 만납시다」에서 도중하차 한다。

그뒤 「X양사건」이란 「악성의 스캔들」 사건의 엄청난 소용돌이속에서 표류해야 했고… 키 1m65㎝、몸무게 46㎏。

X스캔들로 표류… 「黃眞伊」변신

화면에서는 청승맞고 가식이 많아 보이기도하는 얼굴이지만 화장기없는 모습은 단아하고 깔끔하다。일찍 돈을 많이 벌었지만 돈을아껴 물건을 사본적이 없다는 그녀。핸드백에는 크레디트카드와 단돈 몇천원。도저히 그「엄청난 소문」의 희생자같지 않다。

『저는 대중의 꽃이니까 대중들이 스트레스를 위해 제 구설수를즐기는 것을 탓할수 없지요』 젊은 여인의 입에서 나온 「체념적」인 대사는 조금은 음울하게 들렸다。

어느나라의 연예계든 가십이 많은것은 洋의東西가 비슷하다。그러나 우리사회는 좀 심하다고 느껴지는때가 많다。林和秀씨가 金喜甲씨를 때려 늑골을 부러뜨렸다는 자유당시절부터 우리는 연예인을 「폭력적」으로 다루었다는 많은갓자의 얘기를 들었다。특히 예쁜 여배우들의 수난이 심했다고도 전해진다。

연예인은 엔터테이너(즐겁게 해주는사람)이다。가슴에 멍이든 여가수가 꾀꼬리같은 노래를 할수는 없을것이다。

張양이 출연하는 黃眞伊(극단부리=4월8일~14일 문예회관)를 기다리며 「폭력」의 군림이없는 연예계를 생각해본다。【崔成子기자】

오리엔탈 · 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 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 Computer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문의 환영 —
● SPECIAL SALE
자녀교육및 Business겸용
Apple II Plus'64 K
● SOFTWARE SERVICE
General Ledger
Account Receivable
Inventory Control
Payroll및 Word Processing
● PERIPHERALS
Printer, Games, Music, Graphics
826 FORESTWOOD DR., MISSISSAUGA, ONT. L5C 1G7
☎ : 275-0702 오 영 일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합.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영 호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 883-9407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가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목, 금, 토, 일 권순근과 그일행 출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週刊한국

Benjamin Moore PAINTS
블루어 하드웨어
전기제품 일절
가정용, 공업용 TOOL.
재료일절
땅매수리
변 의 섭
주소 : 608 BLOOR ST. W.
전화 : 531-6183

한국의 妓生

選上妓妾

글 全完吉
그림 李良友

官妓는 임기가 없다。또한 일자를 바꾸는 일도 거의 없다。監營이나 掌樂院 어느 官衙에 배치되건 한번 배치되면 은퇴할 때까지 근무해야만 했다。情人을 따라 갈수도 없다。그러나 接客業슈이 유야무야되듯 官妓가 누구에게건 처첩이 될수 없었지만 이 역시 흐지부지되었다。

한번 配置되면 退役때까지 딴곳으로 옮길수 없고
情人따라 夜間逃走해도 首領이 눈감아 줘야 無事

♥줄행랑의 모험

고려시대는 물론 조선시대에도 신분과 직업이 세습되고、거주지를 자유의사대로 옮길 수 없었으니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敎坊에서 교육을 마치고 어디엔가 배치되면 퇴역할 때까지 한 곳에 머무른다는 것이 官妓에겐 명에나 다름없었다。특히 기생은 아름답고、樂舞와 詩를 읽혀 속성이 자유분방해진데다가 그와 인연을 맺는 사람들이 자주 떠났기에 더욱 그러했다。조선의 수령은 임기가 보통 3년이었으므로〈연임하여 6년이 되는 예가 있었고、3년을 채 채우지 못하는 예도 있었지만 대개 3년이었다〉3년마다 갈려가고 사신은 며칠 혹은 몇달 머물다가 떠났기에 그들의 아픔은 사랑이 깊은 만큼 컸고、큰 만큼 떠나고 싶은 욕망이 컸으리라。그렇지만 원칙적으로 기생은 임지를 떠날 수가 없었다。

굳이 떠나고 싶다면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었다。그러나 도망은 도박이나 다름없었다。수령이 情人을 따라가도록 눈감아 주어야 했고、情人을 날릴때 따라갔댔자 그가 예전처럼 사랑해주느냐도 문제였다。정인이 수령이었건、나그네였건 객지에서 외로운 밤에 만났다가 이불속에서 속삭인 밀어는 욕정에 불이 당긴 허풍선이기 십상이어서 따라 오란대로 따라갔자 딴전이기 십상이다。언젠가 내가 다시 돌아올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라 하여 수절하고 기다렸지만 며칠간의 풍정이라 까마득히 잊어버려 수절하다 지친 童妓가 상사병에 죽은 이야기도 적지 않다。

한 예를 들자면、雲谷 李載毅(1768~1849)이 安邊에 갔다가 童妓와 하룻밤 侍寢하고 헤어지면서 가지고 있던 부채와 香囊을 주고 뒷기약을 약속하여 그 기녀가 그날부터 다른 사람을 거부하고 절개를 지켰지만〈하룻밤〉을 까마득히 잊은 이회발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자 상사병에 죽어 뒤늦게 이를 안 이회발이 참회하여 장사비용을 후하게 주었다는 이야기를 鄭東愈가 晝永編에 적어 놓았다。

그러나 사랑이 무엇을 두려워하랴。누가 말했던가。인종도、신분도、종교를 아랑곳하지 않고 죽음을 아까와하지 않는다고。사랑이 죽음보다 더욱 숭고한 것이기에。

수령이 기생의 도망을 묵인하려면 행방불명 처리를 하거나、惡疾에 걸린 양 꾸며 妓籍에서 삭제해야 했다。

그러나 도망을 묵인하기보다는 體罰하는 예가 더 많았다。만일 기생이 도망하여 어느 관리와 서울에서 재회한 사실이 밝혀지면 기생이 처벌됨은 물론 수령의 考課가 下考가 되며 상대 연인은 삭탈관직되었다。그렇지만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임찾아 머나먼 길 줄행랑을 치는 예가 있었다。

林西河가 이처럼 도망한 기생을 은근히 부추기고 있다。

붉은 단장이 새벽을 기다려서 금꽃을 붙이니、재촉하여 부름을 받아 비단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다。수령의 엄한 호령을 두려워하지 않고、공연히 행하는 손님이 인연이 나쁘다고 꾸짖는다。다락에 올라가서 퉁소 부는 짝이 되지 못하고、달로 달아나서 도리어 약을 훔치는 신선이 되었도다。

벼슬 길에 있는 마음으로 學士들에게 말을 붙이노니、어진 마음으로 부들 채찍을 보일 필요가 없다。(紅粧待曉帖金鈿、爲被催呼上錦筵不怕長官嚴號令、漫嗔行客惡因緣、乘樓未作吹簫伴、奔月還爲竊藥仙、寄語靑雲賢學士、仁心不用示蒲鞭)〈稗官雜記〉

그런데 만일 鄕妓가 임찾아 서울에(혹은 그의 고향으로) 왔다 하더라도 임의 마음이 그새 변하여 몰라라 하거나、情人이 사망하였다면 그는 울데갈데 없는 떠돌이가 된다。고향이 있지만 갈 수 없고、신분을 밝히면 처벌되므로 신분을 감추고 누구에겐가 의지하여 연명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도 있다。酒家의 주모가 되거나 첩이 되거나、婢女가 되어 늙거품이 된 영화를 안고 조용히 살아갔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情人을 만나 행복해진 예가 많다。이러한 사실은 官妓의 사유화를 의미하며、조선의 官妓제도의 붕괴현상을 보는 것이다。다음과 같은 에피소드에서 그런 실예를 본다。

풋사랑 믿고 守節하던 童妓 想思病으로 죽기 일쑤
서울 양반들 반반한鄕妓 다 뽑아가 시골엔 醜物만

♥選上妓 독차지

孝寧大君의 아들인 永川君 定은 사람됨이 활달하여 팔리지 않고 성품 역시 순진하고 근엄하여 무슨 일이든 바르게 행하는데다가 書格이 기이한 풍류인이었다。또 酒色을 좋아하여 鄕妓가 뽑혀서 서울에 오면 집으로 데려다가 의복을 잘 차려 입히고 젊은 사람들이 유혹하여 기생이 도망하더라도 굳이 찾으려 하지 않았다。〈慵齋叢話〉

柳方孝란 사람 역시 酒色을 즐겨 당대의 호걸로 자부하였다。그는 아버지의 허물때문에 벼슬살이를 하지 못했는데 남대문 밖 집에서 친구인 沈瀞·尹▯과 더불어 매양 손님을 맞아다가 술과 안주를 풍성하게 내고 음악을 연주케 하였다。살림이 넉넉했던 그는 기생을 아주 집에 머물게까지 하였다。〈上同〉

이들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官妓는 두 종류가 있다。京妓와 鄕妓다。경기 역시 지방 관아의 婢女중에서 선발되지만 경기는 서울 관아에 배치되어 宮中 연회와 외국 사신 접대연에 동원된다。향기도 소임은 비슷하지만 大小 사신과 將卒을 위하여 시침한다。서울에서 커다란 궁중 연회、이를테면 왕과 왕비의 생일 축하연회、公主의 下嫁儀、王大妃의 壽宴따위가 열릴 때 京妓를 모두 동원하고도 숫자가 부족할 때가 있다。이럴 때 향기중에서 용모가 아름답고 재주가 뛰어난 자를 임시로 선발하여 서울로 불러 온다。이를 選上妓라 한다。선상기는 이밖에도 향기의 재주가 몹시 뛰어날 때 아주 경기로 적을 옮기는 경우도 있다。임시로 選上되건 영구히 妓籍을 옮기건 향기에겐 커다란 영광이다。아마도 이런 사유로 選上되어 올라 온 향기를 영천군이 독차지한것 같다。

향기 역시 京妓나 마찬가지로 妾삼을 수 없음은 물론 同宿할 수 없었다。그러나 永川君은 宗室이고 成宗은 王族을 우대했던 터라 관용을 베푼 것으로 추측된다。이와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향기가 選上되면 여비(路費)와 의상을 소속 관아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소속 감영에서는 넉넉하게 비용을 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감영의 재정이 넉넉하면야 대지만 어느 감영에서건 기생에게 의복·화장품을 충분히 대지 못해 소위 인기있는 기생이라야 시침이나 연회에서 팁을 받아 풍족했지 헐벗고 굶주리기 예사였다。그러므로 選上妓를 보내는 감사(혹은 수령)는 서울에 친분있는 인사에게 부탁하여 향기를 치장시켰다。임시 妓夫노릇을 부탁하는 것이다。이럴 경우 妓女同宿禁令이 있긴 하지만 넌지시 동숙함으로써 은혜를 입은 자와 베푼 자 쌍방이 합의를 본 셈이 된다。

아마 永川君은 자신의 신분과 재산을 빙자하여 選上되는 향기 모두에게 옷과 의복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풍류를 즐기는 멋에 젖었던 것으로 믿어진다。혹시 선상된 향기가 王의 마음에 들어 궁중 女妓로 발탁되거나 장악원에 배치되면 모르지만 연회가 끝나 돌아가게 되면 다시 그 집에 가서 신세를 져야 했다。먼 길을 떠나자면 많은 노자가 들기 때문이다。참고로 選上妓에 관한 기록을 보면 仁祖(1643年)때와 英祖(1744年)때 각각 52名씩 女妓를 임시로 뽑아 올렸다가 보냈다。그렇지만 일단 選上된 향기가 귀향한 예는 그리 많지 않았던것같다。왜냐하면 대부분의 향기가 京妓가 되기를 바랐고、鄕妓는 선발된 자라 용모나 재주가 뛰어나므로 돌아가기 싫어하는 향기를 누구든 그냥 돌려보낼 리가 없다。더우기 잠시 은혜를 베푼 자가 소매를 놓아줄 리 없다。향기가 도망하여 永川君의 집에서처럼 젊은이의 품에 안기거나 벼슬아치의 妾으로 변신하기 일쑤였다。

그러기에 원칙적으로 妓女를 처첩삼지 못하지만 처첩이 생겨난것이다。

또 柳方孝처럼 재력으로 妓女를 집에 두기도 하였다。이 역시 원칙적으로는 불가한 일이지만 이러한 일이 벌어진것은 아마도 자기 재류형식으로 둔것이라 추측된다。왜냐하면 樂學都監에 사례하고 기생을 데려다가 관치에 동원할수 있었기 때문이다(大典參照)。아니면 退妓를 둔것이거나、妓籍을 면수한 贖人(이는 엄격히 말하면 妓生이 아니고 娼女다。妓와 娼은 다름。나중에 따로 다룰 예정임)일수도 있다。어쨌든 世宗·世祖·成宗代 즉 朝鮮初期에 이미 妓女제도는 定型을 잃어가고 사유물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

그래서 연산왕은 이러한 현상에까증을 내고 다음과 같은 傳旨를 내렸다。「…외방 娼妓중에서 용모와 재주가 다소 그럴듯한 자는 朝官이나 功臣들이 노비라 핑계하고、丘史 노비및 率丁이라 핑계하며 혹은 京主人·京房子·京婢·選上妓·樂工의 봉족이나 판비로 가칭하여 姬妾으로 차지하니 이로써 나이 젊고 장래있는 자는 대부분이 私家로 돌아가고 남아있는 자는 모두 용모가 추한 末妓로서 잔치에 쓸만한 자가 없을지경이다。伶樂의 조잡함이 실로 이때문이니 자못 임금의 신하된 자로서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다。그래서 중외에 효유하여 금지하는 것이다。만일 이 新法을 원망하는 말을 하거나 지키지 않는 자는 사형의 형벌을 받으리라。〈燕山王10年 즉 1504년10월13일에 공포된 금령의 취지문이다〉

그러니 이미 成宗代에、아니 그 이전에 아름답고 재주있는 기생은 공유물이 아니라 사유물이 되어갔다。〈계속〉

今週의 바둑

후지사와 棋聖位 6연패

日 棋界 떠들썩…도전자 林海峰 막판서 惜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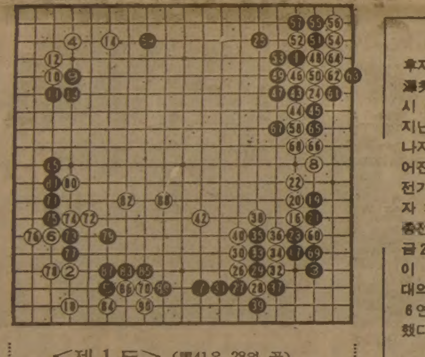
「棋聖戰의 사나이」후지사와·슈우꼬(藤澤秀行·9단)가 또다시 타이틀을 방어했다。지난 17·18일 일본 가나자와(金澤)市에서 벌어진 제6회 棋聖戰도전기 제7국에서 도전자 林海峰 9단에 不計勝, 총전적 4승3패로 상금2천만엔(약6억원)이 걸린 일본기계 최대의 타이틀인 棋聖位 6연패의 위업을 이룩했다。

화려한 기풍과 자유분방한 생활태도로 국내외에 많은 팬을 갖고있는 후지사와는 다른 棋戰은 거들떠 보지도않고 오직 창설이래 타이틀을 쥐고있는 棋聖戰에만 전력을 기울여 6연패를 기록함으로써 1년에 바둑 일곱판만 두면서도 먹고사는「괴물 슈우꼬」라는별명을 가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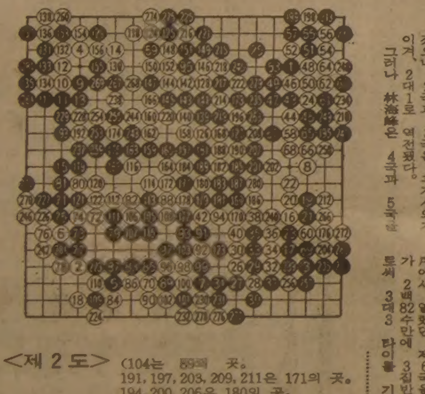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이번 棋聖戰 7번기는 후지사와 棋聖과 도전자 林海峰9단이 엎치락 뒤치락 열전을 벌이면서 역전、재역전을거듭、팬들을 열광시켰다。

1월13·14양일간 미야자끼(宮崎)에서 열린 제1국은 林海峰이 이겼으나 2국과 3국은 후지사와가 이겨、2대1로 역전됐다。

그러나 林海峰은 4국과 5국을 다시 내리이겨 전세는 3대2로 또다시 뒤집어졌다가 지난 10·11일 神戸에서 열렸던 제6국을 후지사와가 2백82수만에 3집반을 이김으로써 3대3 타이를 기록했었다。



<제1도> (黑41은 28의 곳)



<제2도> (104는 89의 곳。191, 197, 203, 209, 211은 171의 곳。194, 200, 206은 180의 곳。236은 214, 251은 63, 252는 234, 258은 174, 226는 255, 264는 127, 282는 217의 곳)

3대2로 막판에 몰려 6연패해 왔던 棋聖位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던 후지사와가 극적으로 起死回生한 제6국을 소개한다。

제1도

○…黑5、7은 취향이며 白16、黑17로 우하귀에 흔히 보기 힘든 형태가 생겨났다。白26에 黑27이 의표를 찌른 점。林海峰은 1시간7분의 장고끝에 白28이하 42까지 두었으나 黑은 43、45로 우상귀를 손질한뒤 黑59로 상변의 폭을 넓혀 활기를 띠었다。

白70은 분수(分手)적으로 여기서부터 반면에 파탄이 일기 시작했다。白72에 대해 후지사와는 73、75로 절단했으나 79로 뻗것이 시기상조였다。

제2도

○…흑은 95로 상변에 손을 돌렸으나 96이하로 하변이 살찌고 중앙백세력이 두꺼워져 백유리의 형세가 됐다。

후지사와는 형세를 만회하기위해 수차례 승부를 걸었으나 판세를 뒤집을 수는 없었다。

백180이 결정적 패착。이수를 189자리에 두었으면 백의 승리는 움직일수 없었다。

林9단은 국후에「내가 나쁜 수를 생각하지 못했다」고 후회했다。

趙治勳 제3타이틀 넘봐
名人·本因坊 획득에 이어 十段戰서 혈전

○…名人·本因坊을 한손에 쥐고있는 기계에 군림하고있는 趙治勳 9단은 이번에는 10段타이틀마저 획득하기위해 오오따께·히데오(大竹英雄)10段에 도전、1승1패를 기록했다。

5번승부로 결정되는 10段戰도전기 제3국은 25일 열릴 예정。〈譜〉

고국소식이 궁금하십니까? 신문 구독 및 광고 문의(업무국) (416)533·2361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일보

새 移民政策 실시 20년 ①

특집 해외移民 실태

1962년 해외이주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이민정책이 실시된지 올해로 20년째―. 그 20년동안에 타향살이를 자원해서 이역만리 타국으로 떠난 해외동포가 세계 70개국에 50만을 넘고있다. 이밖에 하와이 이민 2세·3세, 기타 체류자를 합치면 美國에만도 60만을 넘는 교포가 살고있다. 그중 적지않은 동포들이 이민생활에 성공, 현지사회에서 『근면·성실하고 두뇌가 우수한 한국인』이란 평을 듣고 있다고 한다. 새 이민정책 실시 20년째를 맞아 한국동포의 이민생활 실태, 각국의 이민정책, 성공사례, 이민생활요령, 이민가이드등을 총점검해 본다.

政府의 移民政策

세계 70餘個國에 50만명 이상이 韓國떠나
年4만여명…農·漁業 企業移民등 밝은 展望

타향살이엔 설움도 많고 사연도 많다. 그런데도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新天地를 찾아 떠났고 또 떠나려 하고 있다.

이민 연륜이 더해 갈수록 성공사례가 늘어가는 요즘에는 웬만한 사람이면 한 두번쯤 이민 문제를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다.

정부 당국에서도 인구분산과 국력신장의 2중효과를 거둘 수있는 이민에 대해 적극적인 시책을 펴고 있다.

지난해 한햇동안 우리나라의 해외이주자는 3만7천5백10명으로 79년의 3만5천4백41명에 비해 약 5·8%가 증가했다.

이중 약 80%가 미국 이민이며 39세 이하의 젊은층이 82%였다.

이주자를 직업별로 보면 무직, 주부, 아동이 2만4천9백82명, 학생이 6천2백55명, 회사원 2천3백48명, 상업및 서비스업 1천8백30명, 단순노무자 7백97명, 교직자 3백20명, 의료인 3백9명, 전문기술자 2백21명, 공무원 2백7명 등이었다.

성별로는 여자가 2만2천5백78명으로 6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결혼과 국제 입양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20~39세 사이가 42%, 20세 미만이 4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 62년 해외이주법 제정 이후 작년말까지 집계된 해외이주자는 미국 등 70여개국에 모두 41만6천82명에 달해 매년 3만5천~4만명이 해외에 이주한 셈이다.

국별로는 80%가량인 33만4천2백49명이 미국 이민이고 캐나다 1만9천1백65명, 파라과이 1만3천1백73명, 브라질 1만1백30명, 스웨덴 5천96명, 아르헨티나 4천2백87명, 덴마크 4천3백20명, 일본 2천8백68명, 호주 2천6백8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新天地를 찾아 이민을 떠나는 동포들. 金浦국제공항은 해마다 4만여명씩 이민을 떠나는 동포들로 항상 붐빈다.

보사부 당국자는 올해부터 그동안의 해외 이주 부적합자 범위를 완화하는 한편 南美농업이민, 어업이민, 기업이민 등을 새로 추진하고 있어 해외이주자는 매년 크게 증가할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이러한 전망에 발맞추듯 보사부는 지난 4월, 캐나다에 보낼 독신자 봉제공 2백명을 선발, 현재 훈련중인데 이들은 오는 6월중에 떠난다.

정부는 이밖에도 南美지역에 대한 농업이민사업을 비롯한 계획이민을 적극 추진, 올해안에 농업이민 60가구를 내보낼 계획이다.

뿐만아니라 해외이주사업을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 中南美를 비롯한 호주등 受民가능 대상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주요 受民國의 유력인사를 초청해서 우리 인력의 우수성을 보여줄 예정인데 상대국마다 대체로 좋은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各國 移民 실태

▼美國

전세계에서 모여든 인종이 각양각색의 자유를 만끽하며 사는 풍요의 땅 미국.

미국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교민이 체류자를 합쳐 60만9천7백34명에 이르고 있고 해마다 3만여명이 연고 초청, 국제결혼, 입양, 취업등의 방법으로 미국 이민을 떠나고 있다.

현재의 추세대로 미국이민이 진행된다면 미국내에서 한국의 지위는 무시못할 정도로 향상될 것이 틀림없다.

美國엔 2、3世 체류자까지 합쳐 61만명이나 되고…
6순위 無緣故취업移民은 작년에 3백15건 8백91명

移民의 유형은 여러가지로 나눌수 있지만 美國의 경우 특수 移民과 일반 移民으로 구분하는 것이 편리하다.

특수 移民 대상은 美市民權者의 배우자, 美市民權者의 21세이하 미혼자녀, 美市民權者의 부모, 美國 정부기관에서 15년이상 근무한 자로 이 경우는 쿼터적용을 받지 않고 무제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비해 1개국당 연간 최고 2만명씩의 쿼터를 적용해서 받아들이는 일반이민의 경우는 7위까지의 순위가 있다.

그중 1순위자는 美市民權者의 21세이상 미혼자녀로 쿼터 상한선의 20%, 2순위는 美영주권자의 배우자및 미혼자녀로 역시 20%, 3순위자는 원래 美國內에 취업하게 된 의사, 약사, 간호원,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이었으나 근래에는 6순위에 포함돼 처리되고 있다.

4순위자는 美市民權者의 기혼자녀로 역시 20%, 5순위자는 美市民權者의 형제자매로 24%, 6순위자는 연고가 없는 취업이민케이스로 10%, 나머지 7순위자가 망명요청자 등으로 6%다.

이중에서 일반인의 관심을 모으는 것이 6순위에 해당되는 무연고 취업이민케이스인데 지난해에는 3백15건에 8백91명이 떠났다.

◇美國생활에서 成人들에게 가장 큰 문젯점은 言語이다. 韓人YWCA서는 동포 노인들을 위해 無料 영어강좌를 마련하고 있다.

취업이민 대상 직종은 의사, 약사, 간호원, 영양사, 물리치료사, 재단사, 원예사, 요리사등 일반 라이선스직을 비롯, 자동차정비공, 의자카버수리공, 오토바이수리공, 중장비 운전및 정비공, 기계수리공, 냉동공, 목공, 재봉사, 시계수리공, 병아리감별사, 구두수리공, 봉제공, 전기공, 카메라수리공, 屠鷄工등 총 2백여종―. 이중 닭의 목을 자르는 屠鷄工 등 일부 직종은 경력이 필요없지만 대부분의 기능공은 일정기간의 경력 증명서를 갖춰야한다.

屠鷄工등 일부는 經歷不要
지금도 技術·技能者받아줘

미국이 필요로 하는 일정한 기술을 갖춘 사람이 미국에 취업이민을 하려면 우선 미국에 실시하고있는 이민정책을 파악해야 한다.

미국노동법은 미국내의 업체나 개인이 직원을 채용할 경우, 월 2~3회에 걸쳐 고용조건을 명시한 채용공고를 신문에 내도록 규정하고있다.

이렇게 해서 국내외 지원자가 없으면 외국인을 채용하게 되는데 고용하게 되는 고용주는 특정외국인을 채용하기로 결정했다해도 州노동성의 개인노동허가를 받고 移民局의 심사를 거쳐야 피고용인에게 초청장을 낼 수 있다.

국내에서 현재 정부인가를 받고 취업이민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국내 법인체로는 국영기업인 해외개발공사를 비롯, 민간업체인 범홍공사, 南美이주공사, 삼양 이주공사의 4개 업체가 있다.

이들 법인체는 각각 이민 대상국에 해외지사를 설치, 현지의 이민수속 지정변호사와 계약관계를 맺고 취업알선을 의뢰하고 있다.

현지의 지정변호사는 求人광고를 통해 고용자측과 접촉, 외국인 고용 교섭을 벌인뒤 고용자가 원하는 대상을 선발하도록 이들 관계법인체에 통고해 온다.

관계법인체에서는 미리 취업이민 희망자 등록을 받았다가 통고받는대로 해당자를 선발해서 보내고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원활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문젯점은 첫째 미국에서는 취업이주를 위한 고용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노동성과 이민국 허가 수속에 소요되는 상당액의 이주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점, 둘째 미국의 이민법은 쿼터와 우선 순위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속 착수에서 비자를 받기까지 2년내지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세째 駐韓美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시 고용자의 상태를 재확인하기 때문에 당초의 고용주가 파산했거나 폐업했을 때, 또는 채용을 취소했을 경우, 비자발급을 취소한다는 점이다.

캐나다는 百點 評點制로 50點따야하는 엄격한 審査…
縫裁工등 集團취업移民 좋은 성과를거두어 展望 좋아

이런 문제가 생겨 취업이민이 성사되지 않을 때 신청자는 신청당시 지불했던 취업 알선료를 반제해 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미국쪽 알선기관에서는 『신청자가 미국에 있어서 단기간에 취업했다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취업이민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시간을 끈것은 신청자측 책임』이라고 주장, 비용 반제를 거부해온 것이다.

이렇게 되자 국내의 관계법인체들은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이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할것이라고 우려해서 지난 76년 이후부터는 신규 신청을 중단하고 계류자 정리에만 주력하고있는 실정이다.

다만 신규신청이라도 미국에 친지가 있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미국 지사 또는 제휴 알선기관을 직접 소개, 고용주를 확인시키는 한편, 이주알선료도 미국 친지가 대신 지불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관계법인체들은 『지금도 미국은 필요한 기술 기능자를 계속 받아주고 있는 실정이어서 추진방법을 개선하면 이민에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캐나다

캐나다는 인종, 국적, 종교, 성별에 구애되지 않고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주 희망자는 캐나다생활에 정착할수있는 능력여부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받기때문에 이민숫자는 해마다 줄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캐나다의 이민관계 규정에 의하면 캐나다의 이민은 가족, 피난민및 기타 신청자로 분류된다. 가족의 경우, 캐나다 시민이나 영주자는 18세가 되면 누구나 가까운 가족을 재정보증해서 초청할수 있다.

초청 대상은 배우자나 배우자의 21세미만 동반 미혼자녀, 초청자의 21세미만 미혼자녀, 60세이상의 부모와 조부모및 그 동반 피부양자, 18세 미만의 미혼 또는 고아인 형제 자매, 조카및 손자인 약혼자와 그 동반 21세미만 미혼자녀 등이다.

이러한 가족부류 신청자는 평점제에 적용되지않으나 기본건강과 인격을 갖춰야한다. 또 이들에 대한 이민 비자가 발급되려면 초청자는 피초청자에 대한 숙식과 보호, 양육을 10년간 책임질것을 전술하고 서명해야한다.

濠洲도 評點制, 경제적·개인적要因 60點따야
中南美는 문호開放… 企業移民 길까지 트여

캐나다에 이민할수있는 대상은 이밖에 취업자, 13세미만의 고아나 기아 또는 어린이 복지기관에 의탁된 자로서 해외입양을 원하는 자, 캐나다 거주자의 친척 (연령및 촌수 불문)으로서 사고무친자 1인, 피난민, 기타 이민대상자들이다.

한편 캐나다 이민비자발급 여부를 결정짓는 평점제는 백점만점으로 이중 50점을 받아야 하는데 그 내용은 교육정도(12점)특수직업준비정도(15점)경력(8점)직업적응도(15점)고용계약여부(10점)이주지역필요 여부(5점)연령(10점)영어·불어능력(10점)적응도(10점)친척(5점)등이다.

캐나다 이민 희망자는 신청자 스스로가 서울에 있는 캐나다대사관 영사과에서 이민 예비 질의 과정을 거쳐 해당 여부를 판정받는다. 해당자로 판정받으면 영주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최종 적격여부를 심사받을수있다.

또 친지나 고용주가 캐나다 移民局으로부터 신청허가를 받아 한국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 영사과에 통고, 영사과에서 해당 신청자의 적격여부 심사 기회를 만들어서 이민할수있는 길도 있다.

한편 캐나다에 취업이민할 수 있는 직종은 대부분 기술직인데 고용조건도 유리하고 한국인에 대한 인식도 좋은 편이어서 전망은 밝은 편이다.

캐나다 이민은 미국과 달리 중간 알선기관의 개입을 금하고 있는 편이나 해외개발공사측은 봉제공의 경우와 같은 집단 취업이민을 끈질기게 추진한 결과 계속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전망도 밝은 편이다.

캐나다에 이민중인 한국동포들은 대체로 『한때 고생은 했지만 위나 사회보장이 잘된 사회여서 이제는 인생을 즐기면서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있다.

▼濠洲

濠洲도 英연방권내에 있는 캐나다와 같이 평점제를 채택,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민 신청 대상은 인종, 국적, 종교 등에 전혀 차별이 없다.

濠洲의 이민신청자는 경제적 요인과 개인이주 요인을 각각 30점씩 도합 60점을 확보해야 한다. 직계가족이 결합할 경우, 경제적 요인은 면제되나 개인적 요인은 최소 20점을 얻어야 한다.

한편 이민대상자 중 16세 이하는 평점 대상에서 면제된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민 신청에서 유리한 대상은 ①호주에 보증인 또는 지명 추천할수 있는 가족 친지및 친구가 있거나 자신의 고용주를 확보한 사람 ②숙련공으로서 호주에서 요구되는 직종 ③충분한 경력으로 취업이 가능한 자 ④자신의 재산을 옮겨 사업할수 있는 자 ⑤해당 직종 분야에서 대화할수 있는 능력의 영어 실력과 기준 이상의 교육수준이 있는 사람 등이다.

평점 내용에서는 호주내에서 인정되는 기술, 직종을 비롯, 재산, 생활능력, 나이, 영어능력 등이 경제적 요인의 체크기준이고, 교육, 영어능력, 이민자로서의 각오, 현실성, 적응성, 재정보증및 지명추천여부, 방용 등이 주요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다.

▼中南美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이 있는 中南美 지역은 기술이민, 농업이민, 어업이민, 기업이민 등을 보낼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돼있는 지역이다.

특히 南美의 칠레와 아르헨티나에는 최근 기업이민의 길이 트여 주목 받고 있다.

자본10萬弗內 봉재·목공예·플래스틱業유망
自國개발 人力환영, 칠레엔 養殖業이민推進

지난 18일 현재 南美를 순방중이던 千命基 보사부장관에 따르면 한국은 칠레에 소규모 제조업소를 중심으로한 기업이민을 보낼수 있도록 양국이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한국은 자본규모 10만달러 이하의 봉제, 목공예, 플래스틱제조업등 기업 이민을 연내로 보낼수 있게 됐는데 이때에는 기업주와 그 가족은 물론 일정수의 종사자가 집단으로 칠레 정부의 이주 허가를 받아 이민을 하게 된다.

千장관은 칠레에 이어 아르헨티나 당국자와도 회담, 아르헨티나 로부터도 『아르헨티나 지역개발을 위해 한국에 이민의 문호를 다시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한다.

이밖에 中南美지역의 受民정책과 그 제도를 각국별로 알아보면―.

▼브라질

1960년대까지 이민 문호를 개방, 이민을 받아들였으나 지난 72년 브라질 인구가 1억을 넘어서면서부터 자유이민을 억제하고 국가경제개발에 필요한 선택적인 이민만 받아들이고 있다.

▼아르헨티나

과거 백인 중심주의였으나 2차대전후 이를 완화, 적극적인 인구증가 정책으로 자국 개발에 기여할수 있도록 이민 문호를 개방하고있다.

▼파라과이

개방이민정책에 의거, 自國개발 인력을 환영하고 있으며 국토개발및 기술도입의 필요성과 각종 문젯점 발생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면서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다.

▼볼리비아

국가개발에 기여할수 있는 이민이라면 환영 하고 있고 각종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칠레

自國개발에 참여 하는 이민을 환영하고 있으며 현재 이민관계 법규를 정비중에 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부부 직계가족및 형제자매 등 광의의 가족 합류를 허용하고 있다. 취업이주는 현지 공관 조회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칠레 이민의 전망이 밝다고 판단, 올 하반기에 칠레의 수산자원 조사를 위해 조사단을 파견하는 한편 어업이민, 특히 양식업 분야의 이민을 추진할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농업이민을 추진 하기 위해 이미 칠레에 2백 ha의 땅을 확보, 시험케이스로 10 가구를 이민시킬 계획이다.

中南美 지역에선 이밖에도 에콰도르, 가이아나, 온두라스, 우루과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페루 등이 별도의 受民 제도는 마련하지 않고 있지만 인도적 견지에서의 가족합류를 허용하고 필요에 의한 취업이주를 받아들이고있다.

移民 성공事例

◇閔丙哲씨

미국에서 이민생활을 하고있는사람들은 흔히 『미국이민에서 성공 하려면 영어, 기술, 건강의 3대요건을 갖춰야한다』고 말한다.

美國서 성공하려면
英語·기술·健康 3요건 갖춰야
韓國人의 근면·성실한 生活태도 認定받아

◇뉴욕의 韓人동포 사회도 인구 10만을 넘어섰으며 어느 공립학교에서나 한국 어린이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뉴욕의 퀸즈 제89공립학교에서 美國선생이 한국어린이들을 點名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閔丙哲씨(36)는 이민 초기부터 성공할수 있는 여건을 갖춘 셈이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閔씨는 이민을 떠나기 4년전인 70년부터 73년까지 KBS에서 생활영어방송을 담당, 실력파 강사로 그 이름이 적지않게 알려졌었다. 그러다가 연고초청으로 미국이민을 떠난것이 74년12월. 이때 가족은 73년4월에 결혼한 부인 趙秀蓮씨(34)뿐이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얻은 閔씨는 일리노이州立大 대학원에서 영어교육학을 전공, 석사과정을 밟는 한편, 처음으로 시카고 州立大부설 영어교육원의 강사직을 맡았다.

閔씨의 영어실력은 미국현지에서도 인정을 받아 처음엔 한국교포만을 지도했으나 차츰 일본, 대만, 남미, 월남등 다른 소수 민족까지 제자로 삼을수 있었다고한다.

당시 閔씨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강사료는 시간당 7달러. 하루 5시간의 강의에서 얻는 수입은 35달러로 週5일근무 한달 수입은 7백달러 정도였다.

이 수입은 월 1백40달러의 집세를 물면서 문화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였다.

閔씨는 영어강사생활을 하는 한편 별도로 영어교육 관계 저서를 계속 출간했다. 부인 趙씨는 남편의 저서를 파는 일을 부업으로 삼았다.

이민 5년만인 지난 80년초 미국시민권을 딴 閔씨는 미국생활이 안정권에 이르자 1년에 두차례씩 귀국해서 국내에서도 영어 강의와 출판활동을 벌였다. 그러다가 지난 1월 시카고 州立대학에서의 영어강사직을 사임하고 시카고 트루먼대학의 영어연구원장직을 맡았다가 현재는 별도로 시카고 영어연구원을 설립했다.

閔씨에 따르면 그의 하루 일정은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사무실을 중심으로 강의와 이민 상담, 출판활동, 저서영어연구 등으로 쉴틈이 없다고한다.

그러나 토요일이면 아내와 두아들을 자가용에 싣고 주말여행을 다니면서 여유있는 생활을 즐기고있다.

그의 집은 시카고 중심가에서 22㎞정도 떨어진 주택지에 자리잡고있다.

대지 2백여평에 건평이50평이넘는 그의 집은 10만달러에 매입했다는것.

이중 5만달러는 현찰로, 5만달러는 은행융자를 받아 25년 기한으로 매월 5백50달러씩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

閔씨는 또 79년형 선더버드 8기통 자가용을 1만달러에구입했다는데 이것 역시 5천달러는 현찰로, 5천달러는 은행융자를 받아 3년기한에 월 1백50달러씩 원리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월 불입금에 생활비, 용돈을 모두 합쳐 월간 지출액은 1천8백달러 정도라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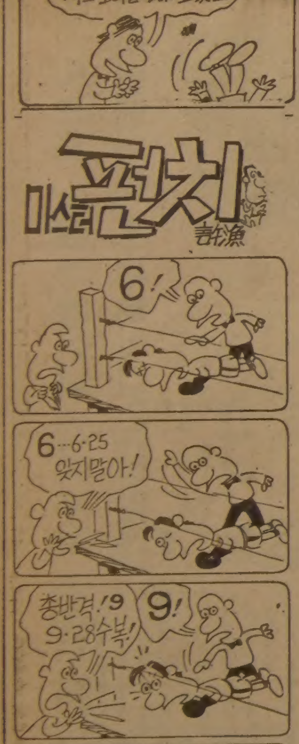
요즘에도 韓·美間을 빈번히 왕래하며 MBC-라디오아침방송에서 이민관계 생활영어방송을 담당하고 있는 閔씨는 『한국인의 우수한 두뇌와 근면·성실한 생활태도는 미국사회에서 인정을 받고있다』고 전제, 『현재 추세대로 나간다면 한국인 2세, 3세가 미국 정계에 진출해서 조국을 위한 로비활동을 벌일 날도 멀지않다』고 말에 힘을 주고 있다.

閔丙哲씨 경우처럼 처음부터 순탄한 이민생활을 해온 교포도 적지않지만 같은고생을 거듭한 끝에 이제 겨우 정착한 케이스도수두룩하다.

外大 영어과를 졸업하고 샐러리맨 생활을 하다가 지난 75년에 뉴욕으로 이민, 초기에 택시운전사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잡화상을 경영하는 윤봉춘씨(41)는 『뉴욕 맨해턴 시내에서 택시운전하는 동양사람을 만나면, 십중팔구는 한국사람』이라고 전하고있다.

또 서울에서 언론계와 교육계에 종사하다가 77년3월에 渡美했다는 김성근씨(57)는 『초창기에 주유소 펌프맨 생활을 시작할때는 수치감에 얼굴을 못 들었지만 지금은 안정을 되찾았다』고 체험담을 들려준다.

<다음號에 계속>



藥주고 病주고

微量의 無味·無色 약물의 正體

이것이 眞相이다 <제 3 회>

가네히라 스캔들을 지난 2주간에 걸쳐 폭로한 일본의 권위있는 주간지 週刊文春은 이번주엔 가네히라가 권투선수에게 먹인 藥物의 전체를 파헤쳐 세상을 또 한차례 경악케 하고 있다. 사용 약물은 정신신경과에서 주로 쓰이고 있는 프로마진, 크로르·프로마진, 다이아제팜등 세가지를 섞어서 조제한것. 이 약은 진정제의 일종으로 먹으면 근육의 힘이 빠지고 졸음이 오는데 맛이 無味해서 음식물에 섞어 넣어도 음식맛은 그대로다. 週刊文春의 폭로는 이처럼 약물까지 꼬집고 있어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法的확신을 갖게 하는 物證은 없어 『먹이지 않았다』는 반론에 대한 결정타는 나오지 않은 셈이다. 또 복통과 설사, 식은 땀등을 유발시킨 약물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文春」에서 주장하고 있는 약물을 먹은 선수의 병적증상을 逆으로 추적해서 투여가능성이 있는 약물을 추정해 본다.

■"다리가 후들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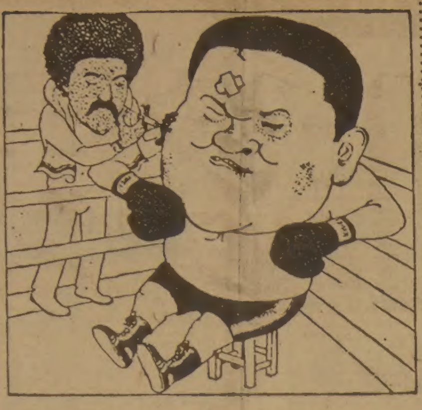
가네히라 스캔들의 유력한 증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崔承哲씨(41)는 『週刊文春의 기사내용은 대부분 사실』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金龍鉉선수는 약물이 주입된 것을 사전에 알아 먹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하오 한국권투위원회가 가네히라 약물중독 사건과 관련된 金龍鉉선수를 비롯, 매니저 崔承哲씨, 트레이너 鄭英華씨등 프로복싱 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가진 기자

緊急연재 「복싱毒物」第3彈

권투선수를 맥못추게 할수있는 약물은 얼마든지

푸로마진·바리움 음식물에 섞어도 음식맛 그대로



◇구시켄에 당하는 가네히라(?)韓·日프로복싱계를 흔들어놓은 가네히라 스캔들을 빗댄 캐리커처. 구시켄의 세컨드로 나서 링위에 오른 가네히라에게 약물을 주입하고 있다.

회견에서 이처럼 밝힌 崔씨는 『도까시끼―金龍鉉戰은 가네히라 흑막중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 이를 파헤치는데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이에반해 당사자인 金龍鉉은 『지난해 5월31일 일본에서 로드 웍을 끝내고 鄭트레이너가 준 오린지 1개를 먹었고 다음날도 전날과같이 1개를 먹었다. 경기당일인 6월2일 계체량을 마치고 대기실에 있었는데 땀이 흐르고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경기때 싸워 보지 못했다』며 엇갈린 주장을 했다.

■"먹었다" "안먹였다"

또한 당시의 트레이너였던 鄭씨도 『1일(81년6월1일) 崔매니저가 약이들어 있어도 죽을 약은 들어 있지 않을테니 먹어보자고 해 6개중 2개를 먹었다. 30분쯤 지나자 뱃속이 불편해 金선수에게는 먹이지 않았다』고 金선수에 대한 약물중독설을 부인했다.

한편 金煥珍선수는 지난해 12월 도까시끼·가쓰오와의 대전에서 『체중조절에도 별 무리가 없었고 KO 단발만을 노리다 포인트를 잃어 실패했다』고 말했다.

가네히라 스캔들은 이처럼 약물 오린지를 「먹였다」 「안먹였다」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던 15일 일본권투위원회에선 「권투건전화대책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가네히라의 약물사용의혹을 조사하기 시작,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가네히라가 직접 주사기를 들고 약물을 주입했다는 오린지―金龍鉉은 로드·웍을 하고 한개, 그 다음날 또 한개를 먹었다고 주장하나 트레이너는 이상해서 먹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藥物넣은 음식물

지금까지 「文春」의 폭로 내용가운데 약물을 섞어넣은 음식물은 오린지와 스테이크, 스테이크 소스로 돼 있다. 그렇다면 선수에게 약물의 맛이나 냄새등으로 눈치를 채이지 않고 약물을 섞어넣는 일이 성공할수 있을까?

金龍鉉선수와 崔매니저·鄭트레이너등 일행이 일본에 도착한것은 시합 3일전인 81년5월30일이었다.

文春기사에 따르면 최초로 시도된 약물투여 식품은 조그맣고 두툼한 덴·린껌이었고 다음에 준비된 것은 레먼이었으나 이것들이 여의치 않자 오린지로 바꿨다.

오린지에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할때 약물이 너무 진해서 주사바늘이 막히기도 했다는 것이다. 고생끝

이것이 眞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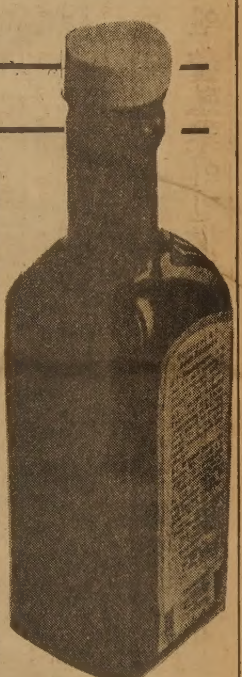
에 약물주입에 성공한 오린지는 모두 6개였고 이것을 호텔 프런트에 맡겨 金선수 일행이 저녁때 수령했다고 「文春」은 폭로했다.

■動物실험용 藥物

「文春」은 또 78년5월7일 히로시마에서 열렸던 챔피언 구시껜과 파나마의 리오스와의 대전에서 가네히라가 리오스가 묵고 있는 호텔 요리사를 매수, 그가 먹는 스테이크 소스속에 독물을 넣어 리오스를 패하게 했다고 밝히고 그 댓가로 요리사에게 10만엔을 줬다고 폭로했다. 이밖에도 가네히라는 8차방어전때(파나마의 로페즈), 9차방어전(파나마의 페드로사), 11차방어전(金龍鉉), 12차방어전(칠레의 바르가스)때 각각 상대선수에게 약물투입을 기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약물 음모에 성공한 78년5월8일의 리오스와의 시합 당시, 리오스 일행은 가네히라가 회장인 교에이(協榮)쪽에서 알선해준 히로시마내의 C비즈니스 호텔에 투숙했었다.

당시 음모는 분말로 된 약물을 주스에 타 넣으면 들킬 염려가 크다고 해서 드레싱에 넣느냐 아니면 파일 속에 넣느냐 망설이다가 호텔 요리장의 발상대로 스테이크 소스에 넣기로 결정, 시합 전날 밤과 당일 계체량 후에 넣었다는 것이다. 이 약물은 병원에 가면 흔히 주는 3각으로 싼 흰 분말이었다고 한다.



◇無味한 약물을 섞어 권투선수가 스테이크에 발라 먹을때도 이상한 맛을 느끼지 못하게 한 스테이크 소스。

동물藥理學 범주에 속하는 藥物일 가능성 높아

藥効보다 副作用 악용 手法도…예방은 음식 직접 만들어 먹어야

文春이 폭로한 약물 프로마진, 크로르·프로마진은 흰색의 약물이다. 분말도 있고 주사약도 있다. 정신과에서 진정제로 주로 쓰이고 있는데 사용량이 굉장히 많다. 정상인에게 투여량이 적으면 별로 진정효과가 안 나타난다.

어쨌든 이 약을 먹으면 근육의 힘이 빠져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투지력이 떨어진다. 또한 맛이 없는 無味의 약물이라서 음식물에 섞어넣을 경우 음식맛도 원래 그대로다.

다이아제팜의 상품명은 수면제인 바리움이다. 이 약도 프로마진과 똑같이 정신과용의 진정제다. 약효도 마찬가진데 색깔만이 프로마진처럼 희지가 않은 노란색이다. 주사약과 분말 두가지가 다 있으며 맛은 無味에 가깝다. 색깔이 노란 다이아제팜을 오린지에 주사기로 주입했을 경우 좀처럼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돼있다.

이같은 진정제외에도 약물을 사용해서 권투선수를 맥못추게 할수있는 약물은 적지않다. 그러나 無味하면서 또 미량으로 혼합, 음식물의 색깔도 변치않게 하면서 강력한 작용을 나타나게하는 약물이란 동물실험용에서나 찾아볼수 있을뿐이라는게 약리학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권투선수를 괴롭히기 위해 약물을 썼다면 동물약리학 범주에 속하는 약물일 가능성이 높다.

복통과 설사를 유발시키는 약은 부교감 흥분제를 꼽을수 있다. 아주 미량으로도 설사와 복통이 나며 많이 먹을 때는 극약이 돼 위험하며 일반적으로 맛은 無味하다. 농약으로 잘 알려진 독물 파라치온, 마라치온도 복통과 설사를 나게 하고 구토와 식은 땀도 난다. 이 독약은 체내에서 파괴되지 않는 거의 영구적인 물질로 이따금 사과껍질에 묻은것을 닦지 않고 먹고나서 구토·설사가 나 전염병이 아닌가 소동을 벌인적까지 있었던 약물이다.

이같은 독·극물은 미량일 경우 거의 맛이 없는게 특징이다. 또 물에 잘 녹는다.

高大의대 약리학교실에 의하면 항히스타민제는 대개 졸음이 온다. 또 다리만 후둘후둘 맥이 빠지고 떨리는 수의근이완제도 있다. 이것은 미량으로도 효과가 나타나는 약으로 원래 수술을 받고있는 환자가 몸을 마구 움직여 뼈를 상할 위험이 있을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해 쓰는것이다.

법의학자 文國鎭 박사는 어떤 약물이 가진 약효가 아닌 그 부작용을 악용하는 수법이 쓰인게 아닌가 추정한다.

예로 감기치료를 위한 항히스타민제를 많이 먹었을 때 몸이 느른해지고 졸음이 오는 등의 부작용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약물은 多量을 써야 그 노리는 효과를 나타내며 또 無味가 아닌, 맛을 지닌 약물이라서 오린지같은 과일에 섞으면 눈치채게 될것이라 한다.

단맛이 많이 나는 주스류나 맛이 진한 코피에 섞으면 몰라도, 개개의 오렌

緊急연재 「복싱毒物」第3彈

지나 스테이크소스에 섞으면 맛이 틀려진다는것. 또 스테이크 소스를 약효가 날만큼 대량으로 먹지는 않는다고 보고있다. 또 복통과 설사를 나게하는것으로 화학물질이 들어간 자극성 있는 의약품, 세균등을 생각할수 있으나 세균은 전쟁법에서나 가능한 물질일뿐이며 화학물질제 의약품어라면 본인 자신도 감지하는 양이 되기 때문에 이역시 권투선수에게는 투여했을리 만무하다고 한다.

■가네히라藥物 正體

이래서 文박사는 가네히라가 약물을 투여한게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견해다.

커미션 닥터 李鍾浩씨는 권투선수를 맥 못추게 한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할 경우, 시합 직전에 수면제나 근육이완제를 썼을 것으로 본다. 또 이노제를 투여하는것도 생각할수있다고 한다.

선수들은 계체량에 앞서 체중을 감량시키는 것만으로도 팔·다리가 떨리는데 여기에 이노제까지 투입시킬 경우 체내의 전해질대사로 탈수장애가 와서 몽롱해지며 힘도 물론 없어진다.

또, 하제나 완장제를 먹이면 음식물 섭취한것을 다 배설해 힘이 빠지고 복통이나 구토의 증세가 있을 수 있다.

李씨는 무슨 약으로 선수를 맥 못추게 했을것이라고 딱 꼬집어내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어노제·취면제·근육이완제·하제·완장제·토사제의 가능성을 지적할수있다며 이들 경계하고있다. 그외에 극약의 사용가능성은 부정하는 견해다. 동시에 이같은 약물은 그 투여량에 따라 생명을 잃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약물지식이 있어야 어떤 효과를 노린 목적을 이룰수 있다고 한다. 약물을 섞을 때 스테이크에 뿌릴 가능성은 얼마든지 가상해 볼 수 있어 음식은 직접 만들어 먹는것이 이상적인 예방이 될것이라고.

어떤 선수는 계체량을 앞두고 체중 감량을 위해 이노제를 쓰는 예도 없지않다.

한편 링에 올라서자 다리가 떨리고 식은 땀이 나며 몸이 축 처지는듯하다고 호소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이는 무리한 감량선수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다. 심한 경우엔 계체량 통과를 위해 굶기도 하면서 7~8kg을 빼는 선수도 있다.

보통 아침에 계체량이 있고 시합은 당일 저녁때 갖게된다. 이 사이에 몸에서 빼버린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링에 올라갔을때 손이 제대로 나가지 않고 발 놀림도 둔해지기 십상이다.

◇권투선수가 숙박하고 있는 호텔의 주방장을 매수해서 사진과 같은 스테이크에 약물을 섞어 선수를 맥 못추게 했다 한다.

프로복싱의 매니저 김영기씨는, 아마추어 세계대회에서 흥분제를 사용해서 평소 실력이상의 실력을 발휘해서 문제가 됐었던 일을 상기하면서, 반대로 선수의 실력을 약화시키려고 약물을 투여시킨다는 說이 나돌았었다고 한다.

또 프로복싱매니저 김유창씨는 金龍鉉이 게임당시 날씨도 덥지 않았는데 몸에서 식은 땀이 나고 다리가 부들 부들 떨렸다고 하는 말을 들은적이 있어 이상히 여겨왔었다고 한다. 金선수는 몸의 이상한 증상때문에 경기 도중 물을 먹여달라고 여러차례 요구했었다한다. 金龍鉉은 金煥珍경우와는 달리 평소 체중관리를 잘해왔기 때문에 시합에 앞서 8시간전에 가진 계체량에 대비하기위한 무리한 감량도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게 무슨 약을 먹인 때문인지, 또 약물이라면 어떤 약물인지를 들어보지도, 알 길도 없다고。

週刊文春이 가네히라로부터 약물 공작의 청탁을 받은 사람으로 지목한 전 新和권투클럽의 트레이너이자 약제사이기도 한 니시데씨 증언에 의하면, 한국의약전문가들의 추정과 마찬가지로 처음엔설사약이 선정됐었다.

니시데씨는 가네자와(金澤)에서 80년 10월12일에 열린 구시껜과 플로레스와의 타이틀전때 가네히라가 그에게 설사약을 먹이라고 부탁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다.

그후 어느날 가네히라에게 불려가 테스트용이니 먹어보라고 강요당해 맛을 본 약은 맛이 썼다. 4각의 봉지 10개에 들어있는 이 약은 抗히스타민계 같았다고 한다. 먹고난후 조금 졸린것 외엔 별 이상이 없었다. 약물 효과가 약했던지 다시 10개의 약봉지를 니시데씨에게 가져 왔는데 약의 배합비율을 바꾼 「량형」인듯했다. 이것이 이번 週刊文春에서 定性분석한 약이다. 그러나 니시데씨는 가네히라의 지시를 어기고 약물을 투입하지 않았다고 하며 『했느냐』고 물으면 『했다』고 가네히라를 속였다는것. 아뭏든, 가네히라의 약물공작은 집요했다. 6월2일 고라꾸엔에서 벌어진 도까시끼―金龍鉉전때엔 가네히라가 직접 약물주입공작을 진두 지휘했다는게 文春의 주장이다. <끝> 【東】

現金支拂

어느 러브호텔에 대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차가 연달아 몰려와 소화작업을 폈다. 거기에 잠옷바람의 한 손님이 헐레벌떡 달려나와 소방사에게 물었다.

『저어, [illegible] 머리는 금발인데다 가슴이 이렇게 크고 잘 [illegible] 몸뚱이의 속살이 들여다보이는 잠옷입은 여자가 달아나는걸 못봤읍니까?』

『그런 여자 못봤는데요』

소방사가 대답하자 사내는 무척 화가 나는듯이 내뱉았다.

『이봐요. 만약에 그 계집을 발견하면 내대신 가져도 괜찮소. 난 이미 그계집에게 현금을 지불했으니까』

얘기의 샘

海外 걸작만화

◇그것봐요. 내 손을 놓고 개를 데리고 산보나 하라고 했잖아요。

◇골프도 할수 없다면 그게 어떻게 樂園이란 말입니까?

◇호기심 많은 여인의 참견―「사이렌을 울릴까요?」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길 가지고 전우주여인들이 미친다는 점일세。

旅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비행기 안에서①

우리 교포가 많이 살고 있는 Los Angeles 나 New York 까지는 우리 승무원이 탑승하는 대한항공편이있어서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과의 대화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러나 Chicago인경우는 일본 공항에서 2 시간 정도만 쉬고, 계속 직행하는 North West Airline편을 이용하게 된다. 김포에서 일본 Narita공항까지는 우리나라 승무원이 있어서 별 문제가 없겠으나 일본서 부터는 우리 승무원이 없기때문에 대화가 영어로 만이 가능하게된다.

비행기에 오르면 입구에서 stewardess에게 boardingpass (보딩패스 : 탑승권) 를 보이고 승무원의안내를 받아 지정된좌석에 앉게된다.

비행기가 이륙하게 되면 일정고도에 오를 때까지 대부분 귀가 울리게되고 심한 경우에는 고막에 통증이 오는 수도 있다. 이럴때는 검(gum)을 준비해 두었다가 씹는것도 귀울림방지에 도움을 준다.

이어 기내 Serve가 시작되는데 먼저 마실것을 주문한다. 대개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무얼마시겠읍니까?) 라고stewardess가 물어온다. 「쿨라, 플리스」 (쿨라 한잔 주시오) 라고 하면 통하지 않는다. 미국에선 「쿨라」 라고 하질않고 Coke (코욱) 이라고 한다.

「오린지 주스를 부탁합니다」 는 Orange juice, please로, 또 「얼음넣은 스카치를 부탁합니다」 는 Scotch on the rocks라고 주문하면 된다.

이때 일반적으로 first class (一등석)가 아닌경우는 술을 주문하게 되면 술값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A : May I see your boarding pass, please?
B : Here it is. Where is my seat?
A : 13A is on the right side near the aisle.
B : Thank you.
A :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B : Orange juice, please.

※boarding pass: 탑승권 aisle: 여객기의 통로

【발음】 drink: 「드링크」 가 아니고 「쥬링크」로 발음된다. 이는 우리말 ㄷ은 혀끝이 윗치아에닿지만 영어의 D는 혀끝이 윗치아와 잇몸사이 보다 좀더 안쪽에 대고 발음한다. 특히 D다음에 r이 왔을때는 혀끝이 더욱 안쪽으로 들어가서 발음된다. 예) dream【쥬림】, dry【쥬라이】

I. 비행기 안에서 (2)

음료수의 serve가 끝나면 식사가 나온다. Chicago로 가는 경우는 서울서 일본까지 snack (간식) 1회, 일본서 Chicago의 O'Hare공항까지는 2편의 영화상영과 함께 2회의 식사, 모두 3회의 식사를 하게된다.

menu는 보통 닭고기나 쇠고기의 2종류가 있는데 chicken or beef? (닭고기로 드시겠어요? 혹은 쇠고기로 드시겠어요?) 라고 물게되는데 닭고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Chicken, please. 하면 된다.

Narita에서 Chicago까지의 비행시간은 약12시간 정도로 매우 지리한 여행이다. 처음 미국을 가는 분들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신비감과 두려움같은 것으로 인해 별 지리함을 느끼지 못하고 시간을 보낸다.

이때 유의할 것은 jet lag (시차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못해 오는 피로감) 이다. 한국과 Chicago와의 시차는 14시간이므로 한국이 밤10 시면 시카고는 아침 8시가 된다. 그러니까 한밤중엔 잠이 안 오다가 대낮에 졸리는 현상으로 이 상태가 보통 1주일정도 가게된다.

다음은 기내에서 승무원들이 거의 공식적으로 승객에게 사용하는 식사와 coffee tea를 주문 받을때의 대화를 보자.

Chicken or beef?
Beef, please.
Coffee or tea?
Coffee, please.
Sugar?
Yes, please.
Cream, too?
No, thank you.

＊【발음】 chicken 「치킨」 이 아니고 【취큰】 이라고 발음해야한다.

민병철생활영어
책、카세트、비디오

구입처 :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 S. A.
전화 : (312) 966-4050
책 : 제1권(12불) 제2권(12불)제3권(12불)
카세트 : 1권용(33불)2권용(38불)3권용(38불)
비디오 : BETA(60불)
VHS(65불)
※U. S. 마니오더에 한합니다.

連載小說

스물세살의 자서전 ㉗

金洪信 作
崔然石 畵

지난줄거리

서여사는 옷을 벗은 걸로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다. 총찬은 그녀의 따귀를 갈기고 김여사의 추악한 사생활을 캐내게 된다. 김회장은 이미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 박실장과 김여사가 서로 상대를 없애려는 음모로 때문에 그런 유괴사건이 조작되었다는 걸 알고 가물치형님에게 용주라는 유괴범의 거처를 빼낸다. 은숙이가 용감하게 뛰어들게 된다.

여간해서는 긴장하지 않던 나도 은숙이의 투입은 조심스럽기만 했다. 어린아이의 유괴사건만 아니라면 은숙이 같은 여자를 절대 앞장 세울수가 없는 여린 가슴이란걸 깨달았다.

「형, 그냥 덮치는게 낫잖겠어요. 괜히 이쁜 기집애까지…。」

「재수없는 소리 집어치워 임마.」

「걔들이 눈치 채와요.」

「시끄러워. 따라붙기나 해.」

「형, 그냥 덮쳐봐요.」

「시끄럽대두.」

나는 소리를 질렀다. 녀석은 울펜하더니 입을 다물었다. 은숙이가 대문 옆에 붙어있는 초인종을 누르고는 손을 들어 보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들어 염려 말라는 시늉을 했다.

「새총, 이리와.」

사내가 재빨리 뛰어왔다. 녀석의 손에는 미끈하게 깎은 고무줄 새총이 들려져 있었다. 재미있는 녀석이어서 특별하게 데리고 나온 녀석이었다. 고무줄 새총으로 종각꼭대기에 있는 십자가를 맞힐수 있다는 녀석이었다. 표창 거리 이상에선 고무줄총을 사용할수 밖에 없었다. 고무줄총은 소리 나지않게 1백여m 거리의 목표를 겨냥할 수 있는 것이었다.

『새총, 너 자신 있어?』

내가 물었다.

『형님, 제 소문 못들었슈?』

『자신 있나니까?』

『날아가는 참새 뒤통수를 갈겨놓으면 먹을 게 없을까봐 발가락을 작신 분질러 버린다면 믿겠슈?』

『이 자식 농담 따먹기 하는 거야 뭐야?』

『한번 보면 믿으시겠슈.』

녀석은 고무줄총을 들고 동그란 돌멩이를 가죽고리에 얹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랑께.』

느물거리며 고무줄을 당겼다. 나는 녀석의 고무줄 놀리는 솜씨를 보고는 믿을 만한 실력이란 생각을 했다. 나도 어려서 꽤 그 고무줄총을 만져본 터수였다. 보기 싫은 선생의 담임반 유리창이나 예배당 유리창, 도둑극장 못들어가게하는 극장 유리창, 거들먹거리는 부잣집 유리창 따위를 들키지 않게 깨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연마했는지 모른다.

『눈깜땡깜으로 쏴대면 안되겠쥬. 저기 전보상대 밑에 광고딱지 있쥬. 그걸 한방 놓죠.』

녀석이 힘껏 당겼다가 놓았다. 돌멩이가 정확하게 녀석이 찍은 지점을 때렸다.

『노래에두 있지유. 믿어두 되나요 당신의 실력을…。』

『너두 내 뒤에 붙어. 돌멩이는 한상 챙겨놓고.』

『여부가 있남유.』

나는 은숙이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것을 확인한 뒤에 애들을 데리고 현관 앞쪽으로 붙였다.

『너는 뒤로 붙고 너는 옆으로 붙어. 신호 떨어지기 전엔 절대 움직이지 마라. 어느 놈이든지 말 안들으면 죽는다.』

애들은 잽싸게 흩어졌다. 초조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하나님. 유괴된 아이를 살려 주십쇼. 아이에겐 아무 죄도 없읍니다. 죄가 있다면 어른들 죄 아닙니까. 이 땅에서 어린애 유괴사건만은 영원히 추방시켜 주세요. 천진난만하게 마음 내키는 대로 뛰어 놀게 해주세요. 자동차 사고나 둠병에 빠져 죽게 내버려 둘 사람이 따로 있는 겁니다.

어린이들은 제발 그냥 놔두세요. 차라리 나같은 골통을 유괴하게 하는 건 몰라도 저 어린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십니까. 하나님도 그런 유괴사건의 고통을 아시잖습니까. 남의 집 어린애가 아닙니다. 모두 우리들의 아이이며 우리들의 이웃이며 바로 우리를 자신입니다. 하나님. 다른 범죄는 심심풀이로 있어도 좋을지 모르지만 제발 어린애 유괴만은 없애 주세요.

내가 아무리 지저분한 사내라고 하더라도 이 기도만은 들어주세요.

『괜찮을까요? 너무 오래 끄는데요.』

내 심정만큼이나 애들 심정도 착잡한 모양이었다.

『좀 더 기다려보자. 은숙이가 보통내기는 아니니까.』

『제가 지붕으로 올라가볼까요?』

『위험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대로 있다간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기다려봐.』

이왕 죽을놈이니 마지막으로 女體 구경이나 시켜주지
제사지내줄 놈은 고아원에가면 수두룩하니 걱정말게

자꾸 판단력이 흐려졌다. 유괴된 아이와 은숙이의 안전을 보장할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무슨 소리가 들려요.』

나는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기분이었다.

여자의 비명소리였다.

『넌 울타리를 타라. 너희들은 담을 넘고. 빠릿빠릿하게 굴어. 넌 여기서 망봐.』

애들이 일제히 뛰었다. 나는 담장을 뛰어 넘어 현관쪽으로 달렸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움직이면 다 죽인다.』

총구가 내 가슴을 겨냥하고 있었다. 애들이 그 자리에 꼼짝하지않고 서있었다.

『얌전하게 들어와.』

우리는 말없이 들어갔다. 넓은 응접실 한 가운데 떡 버티고 앉아있는 사내는 땅딸막한 키에 다부진 눈매와 옹골찬 느낌을 주는 터이었다.

『어디서 많이 본 친구같구만.』

내게 한 말이었다. 나는 선채 총구를 내게 향한 사내를 곁눈질로 쳐다보았다.

『자네가 장총찬인가?』

여유있는 자세였다. 들던대로 동요없는 표정과 몸짓이었다. 이 친구가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다. 설마 가짜 형님이 나를 이 기회에 없애기 위해서 꾸며낸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고렇다. 장총찬이다. 여자는 어디 있나?』

쉽게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총까지 준비해 놓을 정도라면 치밀한 작전에 말려든 것 같았다. 비굴하게 죽고 싶지는 않았다. 어쨌든 목숨에는 스페어가 없는 법. 장총찬이가 이대로 죽을 순 없지.

『소문대로 배다귀가 세구나. 제사 지낼 자식놈이나 꽝아놨는지 모르겠다.』

『고아원에 가면 수두룩하다.』

『함부로 표창 쓰다간 먼저 구멍난다는 걸 알아라.』

『주먹 두고 표창 쓸 장총찬이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텐데.』

『아주, 제법 이빨이 세시군. 제사 지내주고 홍콩으로 뜨면 팔자야 입다. 목숨 아까운 것쯤도 알아야 주먹 썼다는 소리도 들지.』

『그나 저나 여자 어디 있나?』

『죽을 놈이 위 아래 가리는 걸 알턱이 없겠지. 네 눈깔로 보구 싶겠지. 마지막으로 여자 나체가 어떤가나 보구 가라. 황천길이 덜 외그런 재미라두 있어야지.』

총구는 여전히 내 가슴을 겨냥하고 있었다. 표창을 빼거나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은숙이가 지금 무슨 꼴을 당하고 있을지 짐작이 갔다.

『죽을 때 죽더라도 얼굴이나 보자.』

『허튼짓하면 다 죽는다. 따라와라.』

애들을 남겨놓고 나는 지하실로 내려갔다. 등 뒤에 총구가 있어서 꼼짝할 수가 없었다.

계단을 밟고 내려가며 나는 지하실 바닥에 떨어진 단추 한 개를 보았다. 은숙이의 옷을 강제로 벗기다가 떨어뜨린 것 같았다. 나는 비틀거리다가 계단을 굴러 떨어졌다. 재빨리 단추를 어금니 옆에 감추었다.

『장총찬이도 권총 앞에선 별 수 없구나. 그렇게 벌벌 떨리면 까불지나 말아야지.』

사내가 음흉하게 웃었다.

『만약 살아나게 된다면 이 신세를 톡톡히 갚으마.』

『그래라. 설마 귀신이 홍콩까지야 따라 오겠느냐.』

『어디 있나?』

『서두르지 마라. 아주 근사한 나체를 보여 줄테니까.』

『죽어도 좋은데 한가지 알고나 죽자.』

『뭐냐?』

『유괴한 애는 어디 있나?』

『으흐흐흐…유괴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아무리 내가 버러지처럼 살았지만 어린앨 유괴할만큼 치사하진 않아. 너, 사람 잘못봤어.』

『여기있다는 확실한 정보가있다.』

『애가 여기 있을 수는 있지만 나는 유괴 따윈 않는다.』

『애는 무사하냐?』

『네 혓바닥만큼 팔팔하다. 네 혓바닥이야 뽑아버릴테니까 지금 신것 지껄여라.』

『누가 시켰냐?』

『내가 하고싶어 했다.』

『난 죽을 놈이다. 알고나 죽자.』

『으흐흐흐…장총찬답구나. 애는 내가 1억에 샀다.』

『아버지냐, 어머니냐?』

실오라기 하나 안걸친 몸이 한폭의 그림처럼 보이잖아
저만하면 이밤을 실컷 즐길수 있겠으니 어쨌든 고맙다

『둘다 한데다.』

『뭐라구?』

『꿩 먹고 알 먹고라는 걸 모르는 모양이구나.』

나는 사내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이 모두 음모를 꾸밀 수 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다.

『그만 묻고 이쪽으로 와서 근사한 그림 한폭 봐라.』

나는 지하실 속에 있는 또 다른 문을 열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은숙이를 보았다. 기둥에 묶여있는 은숙이는 눈부시게 하였다. 두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녀의 앙다문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이럴 수가…』

나는 은숙이를 차마 더 쳐다볼 수 없었다. 입엔 재갈이 물려 있었고 발목서부터 목까지 굵은 줄로 묶여 있었다.

너무나 아름다운 나신이었다. 은숙이가 그렇게 아름다운 몸매의 소유자인지는 짐작조차 하지 않았었다. 무슨 말인가 할듯 했지만 눈을 뜨지 않았다. 묶여 있는 나신의 여자가 이렇게 예뻘 수 있다는 게 신기하게 느껴지기만 했다.

『풀어줘라.』

『여긴 내가 명령한다고 들을 사람이 없는 곳이다. 어때? 저만하면 우리가 재미 좀 볼수 있겠지. 마지막 밤을 즐기게 해줘서 고맙다.』

『더러운 새끼들.』

『네 여자 즐겁게 해주려면 어차피 우리 목욕하게 돼.』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내 가슴을 겨냥한 총구를 피할 수는 없었다.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총구는 여전히 나를 정통으로 겨냥하고 있었다.

『허튼짓 하면 구멍난다고 했다. 네 앞에서 네 계집을 즐겁게 해주는게 우리들의 마지막 신사도겠지. 애들아 저 계집애를 좀 사랑해 줘라.』

사내의 말이 떨어지자 한 사내가 근육질의 웃통을 드러냈다. 바지를 끌어내린 사내의 사타구니가 불룩했다.

나는 그 순간에 혀 끝에 올려놓았던 단추를 내뱉었다.

못!

단추는 권총 든 사내의 볼을 정통으로 때렸다. 나는 그 순간에 사내의 오른 손을 걷어찼다. 권총이 지하실 바닥에 떨어졌다. 사내가 쭉 뻗었다. 나는 재빨리 권총을 집었다.

『어느 놈이든지 움직이면 대갈통을 깨버린다!』

나는 사내들을 한곳에 몰아놓고 밧줄을 풀었다. 은숙이는 그 자리에 주저 앉았다.

『빨리 옷 입어!』

은숙이는 돌아서서 주섬주섬 옷을 입었다. 은숙이는 고개를 들고 땅딸보 사내를 무섭게 노려 보았다.

『내가 해치우겠어요.』

매몰찬 한마디를 한 은숙이는 사내에게 다가갔다. 은숙이는 날렵한 동작으로 사내를 걷어찼다.

사내들은 차례로 뻗어 누웠다. 무서운 실력이었다. 그만한 실력이라면 웬만한 실력자들이라도 당할수 없을 것 같았다.

『나가서 손좀 봐줘.』

은숙이가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나는 땅딸보 사내만 끌고 나왔다. 응접실 바닥엔 땅딸보의 졸마니들이 길게 누워서 숨을 못쉴 만큼 뻗어 있었다. 땅딸보가 꿈틀 거렸다. 은숙이가 달려 들었다.

『참아요. 이 자식은 살려둬야지.』

나는 은숙이를 말렸다.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식식거리고 있었다.

『유괴된 애는 어딨어?』

내가 다그쳐 물었지만 사내는 고개만 흔들었다. 쉽게 대답할 사내는 아니었다. 혈을 잡아도 사내는 고개를 흔들기만 했다.

바깥이 시끄러웠다. 새총이 비쩍 마른 사내와 어린애를 데리고 들어왔다. 새총의 손엔 권총 한 자루가 쥐어져 있었다.

『뭐냐?』

『이 자식이 권총 내밀길래 한방 갈겨줬슈. 애가 유괴된 앤가봐유.』

나는 새총의 손을 잡았다. 새총녀석은 수줍은 듯이 웃었다. 사태를 짐작하고 튀는 녀석을 고무줄 총으로 갈겨 잡은 모양이었다. 비쩍 마른 사내의 한쪽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경찰에 넘겨야 하니까 더 때리진 마라.』

애들이 땅딸보 졸마니들을 걷어차고 있었다. 나는 땅딸보의 목줄을 눌러쥐고 다그쳤다. 사내는 그래도 입을 열지 않았다. 성질대로 하자면 어디든 못쓰게 만들어 버리고 싶었지만 꾹 참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땅딸보 사내 일행을 인계하자마자 김갑산 회장 별장으로 달려갔다. 거기엔 박실장과 박실장 마누라도 와 있었다. 유괴된 애를 인계한 경찰관이 김갑산회장과 얘기하는 사이에 나는박실장 내외를 별장 뒤쪽으로 데리고 갔다.

『바른대로 대지 않으면 둘다 모가지를 비틀어 버리겠다.』

『뭘 말하는 거요?』

박실장이 대들었다. 지난번에 되게 당해서 함부로 말을 하진 않았다.

『박실장, 당신이 유괴해 줄 것을 조건으로 1억을 내놨지?』

『무슨 얼토당토 않는 소릴 하는 거요? 자식 잃었던 애비심정…。』

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걷어차 버렸다. 박실장이 코를 땅에다 박고 꿈틀거렸다.

『당신도 마찬가지야. 남편 속여먹자고 1억 내놨지?』

『그게 무슨 말씀에요? 어따 대고 그런 소릴 함부로 해요?』

여자는 앙칼진 벙이었다. 소리를 지르며 대들고 있었다.

『똑똑히 들어 이년아.』

나는 김갑산 회장 딸의 머리채를 잡아 한바퀴 돌렸다. 방바닥에 나뒹군 김여사는 하얀 속옷을 입고 있었다.

『네 년이 먼저 남편을 없애 달라고 부탁하니까 네 남편이 눈치채고 역으로 매수를 한 거야. 거기다 내가 끼어드니까 두 년놈이 합작해서 지난번의 복수로 나까지 없애라고 했어. 내 말이 틀렸냐?』

김여사가 꿈틀 거렸다. 나는 박실장과 김여사를 연못 속에 처박았다.

『바른대로 대!』

체념한 듯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연못에서 꺼내 놓자 김여사는 다시 내게 달려 들었다. 나는 사정없이 걷어찼다. 박실장은 아예 엉금엉금 기어서 꽃밭으로 숨었다. 나는 그런 박실장의 엉덩이를 걷어찼다. 박실장이 대굴대굴 굴렀다. 김여사는 독한 소리로 자지러졌다. 나는 그 순간에 김여사를 홀딱 벗겨놓고 싶었다.

『여보게, 장군.』

뒤켠으로 나온 김갑산 회장이 나를 불렀다.

『그만 두게.』

『난 그만 못둡니다.』

『날 봐서 참게. 얘기 다 들었네. 내가 죽일 놈일세.』

『이런걸 살려두란 말입니까? 아무리 후안무도하기로 제 자식을 미끼로 서로 파멸시킬 궁리를 하는 이 쳐죽일…。』

『알아. 이리오게.』

『관두십쇼. 김회장님도 똑 같습니다. 저런 것들을 자식이라고 두둔하다니 말이나 됩니까? 있는 자들이 자식을 저렇게 키우니까 말세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없는 사람, 빽 없는 사람, 배고픈 사람, 취직 못해서 아둥바둥하는 사람들 좀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만 자식입니까? 내 자식만 잘 처먹고 놀아나고 남의 자식은 내팽개치는게 재벌의 할 짓입니까? 입이 있으면 말좀 해봐요.』

나는 빽빽 소리를 질렀다.

『입이 백개라도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내 죄가 크네.』

나는 김회장이 보는 자리에서 두 사람을 걷어찼다. 피투성이가 된 두 사람이 길게 뻗어 누웠다.

김갑산 회장은 말리지 않았다. 나는 그런 김갑산 회장에게 소릴 또 질렀다.

『이제부턴 남의 자식 좀 위해 사쇼!』

나는 저벅저벅 걸어 나왔다.

『약속할세. 정말 약속할세.』

늙은이는 오열을 삼키듯 대답했다.

나는 은숙이를 끌어안았다. 은숙이는 눈물을 훔치고 수줍게 웃었다. 우리는 손을 잡고 큰길까지 걸어나왔다. 날씨가 퍽 화창한 날이었다.

〈다음호에 계속〉

무슨 광고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성심껏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한국일보광고국

LISBON AUTO COLLISION INC.
● 토잉써비스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이영두, 이건학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주식회사
신의상사
116 Tycos Dr.
☎ : 789-7544

식 품 점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 274－5401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 : 248－5131

삼 복 식 품 ☎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주7일영업. 배달합니다.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 field Rd.
☎ : 291－8317

제 일 식 품 (구 단풍식품)
● 7DAYS OPEN(오전10～오후10시까지)
● 배달합니다.
● 뒤에 파킹 LOT 마련.
☎ : 532－1054(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 주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 : 531－2242

신용조합

한 인 신 용 조 합
641A Bloor St. W. (2nd Fl.) Tor. Ont. M6G 1L1
☎ : 533－9387

천주교회 신용조합
941 DUNDAS ST. W. TOR. ONT. M6J 1W4
☎ : 363－0097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약 국

돈 밀 약 국
☎ : 429－4117
이 요 한

SUPER × DRUGS
☎ : 368－2746
조 남 오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파티드레스··웨딩드레스·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O'Kim Embroidery
각종 꽃수, 명찰, 마크, 아동복, 부인복
Covering등. ☎ : 633－9341

인벤토리

— INVENTORY —
①STORE인수, 인계 INVENTORY
②STORE정기조사 INVENTORY
③STORE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 : 259－5822, 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여 행 사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제 일 여 행 사
649 A BLOOR ST. W. (김 종조 종합보험 옆)
☎ : 535－2377
유 지원, 신 용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Tor. Ont. M5A 1A1
☎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 히팅· 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746－3840～1(B), 493－9945(R) 김 봉 균

KIM냉장고·에어콘 S 749－3178
시설·수리·판매 김 진환

CENTURY ☎ : 221－5441
(냉동기 시설및 수리) 미스타 이

운전학교

오 행 근 운 전 학 교
423－3035

아스트라 운전학교 ☎ : 769－1960(B)
743－3377
761 Jane St. Mr. Eastman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주소록 출판, 도서출판, 기업광고 포스터및 플라이어, 명함, 봉투, 인보이스, 주문서등 인쇄 및 디자인.
고급 4색인쇄, 정밀인쇄, 고급창정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 : (B)789－7351, 789－7352
대표 이인용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 주 보 • 명 함 • 청첩장 • 책 자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윤 종 대 ☎ : 493－8894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 : 535－3520 곽 호 중

윌슨인쇄소 ☎ : 638－6919 임 윤 식
904 Wilson Ave. Downs view, Ont. M3K 1E7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 244－2301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 : 746－0675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6001(R) 전기덕

FIRST AUTO SERVICE
●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효
☎ : (B) 532 0200, (R) 533－2157

ALLEN AUTO SERVICE
● GENERAL AUTO SERVICE ● TUNE-UP
● BRAKE JOB ● TIRE ● TOWING SERVICE
● ENGINE OVERHAUL ● ELECTRIC PROBLEM
● AUTOMATIC TRANSMISSION ●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3247

ANCHOR AUTO BODY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두꺼운 페인팅 ● 토잉 써비스
●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O. K. AUTO BODY
수리중 차대여, 모든 보험관계
138 SIXTEENTH ST.
☎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 Tune up, ● Safty Inspection Certify 532－3946
●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 1978; (R) 248－6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 366－2673, 366－2206

ROGERS GARAGE(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번 달 원
☎ : 651－9324(B), 226－5430(R)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자동차 매매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 : 264－2311 조 의 문

Grant Brown
1575 Weston Rd.
☎ : 247－7161 이 한 구

North York Chev. 김 병 권
7200 Yonge St. Thornhill
☎ : 881－5000

장 의 사

장 의 사 (R. S. 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 BOOK KEEPING & ACCOUNTING
● MANAGEMENT CONSULTING 이 영 철
●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공인회계사 이명세
사무실:1454 DUNDAS ST. E. SUITE 110
전화: 273－7300 MISSISS.

이경복 회계사무소 INCOME TAX & BOOKKEEPING, COMPUTER SYSTEM, 3416 DUNDAS ST. W. SUIT.206
전화: 766－5639

김인규 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전화: 960－5736(B), 844－0178(R)

정필주 회계사무소
전 C.A. Firm Accountant,
4750 Jane St. Suite No.608 전화:661－1819

학 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회자)
☎960－0074

Y 어린이 학교 (김창열)
☎536－1166

미시사가 한글학교
☎822－6438

샛별한글학교 (스카부로)
☎267－2292

쇼햄한글학교
☎663－1178

김용순 무용연구소
☎924－3905

김미영 한국민속무용연구소
☎ : 499－5079

한 방 원

동 양 한 약 상 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 병 섭 M.C.I.C. R.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거의다가 서임)
VISA 또는 MASTER CHARGE는 CASH이상 환영.

안 강 용 한 약·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 녹용, 우황청심환, 사향, 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전화:596－8407,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 한약상사
▪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Ontario St. #517(St. Jamestown)박영숙

신비의 생 약 "알로베라" 판매 정 효 기
가정 상비약으로 필수
4020 Dundas St. W. ☎ : 248－1362(R), 769－4347(B)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전화:(B)252－4857 (R)252－6602 유원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439－6277 Mr. 박

태 권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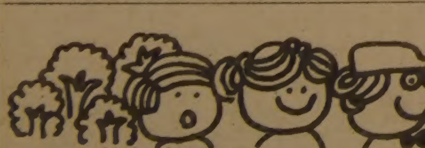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 : 763－1155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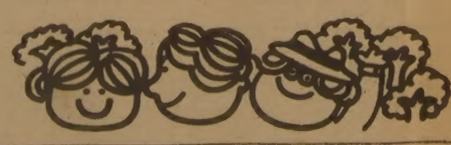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웨스톤×로렌스)로브로 앞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745－6792(Mr. 우)



현명한 광고의 선택은 현명한 투자방법입니다.
*사업확장을 계획하십니까?
*광고국에 문의하십시오.
533～2361～4 (월～토)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頂上의 신문 한국일보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한국일보 각 식품점에 배달하실분 구함 (화요일과 목요일)
※영문, 한글타자에 능하신 분으로 식자 배우실분 구함(남, 녀관계없음)
☎ : 533－2364

"급 구"
애기 보아주실 할머니 구함. (서부지역)
전화: 241－4755

스토아 유경험자 캐셔구함 (남,녀관계 없음)
학생 환영함. FULL TIME도 가능함.
오후 4시～오후 9시까지
전화: 368－8147(오전중에 연락바람)

유 경험자 캐셔 구함.
☎ : 656－3020

여자캐쉬어 유경험자 구함
(동부지역) 전화: 465－3132 Mrs. 유

입주해서 할머니 보살필 한국여성 구함
전화:231－7991 Mrs. Kim

정원사 구함. 신체건장한 남자로써 영어나 일본어를 필요로 함.
스카브로 지역. 전화:298－3316 Mrs.가라사와

1) 꽃집에서 일하실 젊은 여자분 (다운타운 지역)
2) DONUTS SHOP에서 일하실 젊은 여자분 (미시사가지역)
시간 : 8 am ～ 4 pm(Full Time)
: 2 am ～ 11 pm(")
월 ～ 토 전화: 769－9854, 762－1572

매매및 양도

2층에 2 베드룸이 딸린 그로서리 스토아매매. 개인사정에 의해 급매코져 함. 좋은 조건에 팔 수 있음.
전화: 694－1912 (Mr. 정)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연결된 2층 건물에 버라이어티 스토아
7개의 방, 4개의 침실 그리고 차도가 딸려있음.
좋은 상업지역, (PAPE × DANFORTH)
수퍼마켓 (WOODBINE × DANFORTH)
한가족이 하기에 꼭 적합한 사업입니다.
아스킹: $35,000 주매상: $7,500
OPEN HOUR: 6 DAYS/WEEK 9a.m. － 6p.m.
CALL JOHN GEORGAKOPOULOS 전화: 493－6250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급매
주매상:$3,000 렌트:$515(하이드로 포함)
전화:694－7848

비데오 아케이트 세일
15머신＋REFRESHMENT라이센스. 아스킹 : $30,000
☎ : 691－8337(Mr. 진 : 12시이후 연락바람)

"급 매"(아파트 밀집지역)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 $7,500 ☎ : 248－0823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684 St. Clair. 관심있는분 내방바람.

★코너에 위치한 상업. 가정집 포함한 드라이크리닝 사업. 13% 몰게지. 좋은 가격에 팔고자 함.
★드라이크리닝에 필요한 일절 장비 팔고자 함. 중앙지역. 좋은 가격에 팔고자 함.
Call, Tony ☎ : 751－1947 7 a. m－7 p. m.

조그만 버라이어티 스토아급매(로타리오 머신 있음) 주매상 : $2300, 렌트 : $350(월)
714 Scarlett Rd. 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급매
가격 : $19000스탁, 비데오 머신도 있음.
1430 Dundas St. W(Gladstone코너 : 관심있는분 내방바람)

지렁이 사업을 하실분에게, 74년도 대형 벤트럭있음(깨끗하고 콘디션 좋음)
의자와 박스도 구비되어있음. ☎ 651－6543(Mr. Lee)

"햄·버거 SHOP"
주매상 1,200 렌트 350 리스 3년6개월＋5년 옵션
아스킹 $59,500($25,000 다운페이)
전화: 733－2008 마이클
: 781－3341 Mr. 박 (오후 6시 이후)

COIN LAUNDRY
Private, New System, Address:3412 Dundas St. W. Tor.
30 Wash Machine, 11 Dryer,
1 Pop Vending Machine, 1 Soap Machine,
Lease: Aug. 31, 1988, Extention Possible,
Year net Income: $24,000(Minimum)
Asking Price : $65,000(Only one price)
Profit rate: 37%, TEL: 762－1264

장래성이 확실하며 급성장이 기대되는 새로 지은 Mall안에 Convience Store매매. 모든 장비 갖춰 있음.
☎ : 267－8747 Mr. Sherman

40여개의 가구달린 방을 가진 최고급 ADULT 빌딩
총년수입: $215,000 다운페이: $200,000
전화: 635－6847

타 사업관계로 선물쎈타 급매
전화: 535－2143 Mrs. Lee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스낵·바, 드라이크리닝을 겸해 할수 있는 상점, 살림집 포함(베더스트×로렌스)
오전 10시～오후 8시 ☎ : 783－0134

Smith Corona 영문전동타자기 $500
최신형, New, 사무용이나 학생용으로 무난.
☎ : 533－2364 김.

생선가게 팝니다. (퀸스웨이×로얄욕)꼭관심있는 분만 연락바람)K & R(Sea Food)
☎ : 259－1585(Mr. Joe Bondreau)364－3883(Frank)

상류 미시사가 지역 (PRIVATE SALE)
4 베드룸, 2730 Sq.ft.의 2층집.
FIRE PLACE 및 견고한(돌) 전축.
그 외 많은 좋은 조건의 EXTRA
문의: 820－0748 피 터

좋은 위치에 자리잡아 많은 단골손님을 갖고 있는 미용실 팝니다.
장비 : 드라이어(6개), Heat Light, Styling Chairs(5개)
Basins(3개), Waiting Area
전화: 255－9324 Carmen

하우스 렌트

2베드룸 (Flat) 세놓음. (6시이후연락바람)
$350(월)＋가스＋하이드로, Stove냉장고 있음.
크리스티·블루어 써브웨이중간☎851－1314

셋방 있음.
1 베드·룸 ＋ 부엌
653A Bloor St. W. 전화: 533－0168 (Mr. 김)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 : 751－9236, 757－2106 홍진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판 현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순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도 서 판 매

범한서적주식회사 북미총판
광복20년(전25권), 한국인물사(전10권)삼국지(전6권)
한국의 가정요리(4권), 새생활백과(전8권),
가정종합병원, 대 한한사전, 토지(전6권)등
1712 Queen St. E. Tor. Ont. ☎ : 690－2216 Mr. 최규흘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매매 부동산

A. E. LEPAGE (우덕이)
☎ : 741－9170

CANADA PERMANENT (황순일)
☎ : 481－3443

이대환 부동산 ☎ : 535－1251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 : (B) 752－3111, (R) 298－2546

D. F. McALLISTER R. E. LTD. 김시성
투자전문 (IC & I) ☎ : (B)497－0600 (R)298－8558

황용현 부동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 : (B) 449－8644～5, (R)286－1548

ROYAL TRUST (유복영)
☎ : 762－8255 West 지역

이훈모 부동산 ☎ : 225－1204

미 용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로 마 노 미 용 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 : 248－2957(B) 247－6875(R)

헬 렌 미 용 실 김 조 자
377 Albion Rd. 한국식품 서부지점에서 동쪽에 위치
☎ : 741－7829

킴 스 미 용 실 (코리아하우스 뒤)
☎ : 532－7094(B), 248－2437(R)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보 험

Canada Life (강 학 수) ☎868－0922

김 종 조 종합보험 ☎535－7200

Sun Life (김 신 명) ☎922－3111

임페리알 Life (김 홍 량) ☎482－0166

Sun Life (백 용 빈) ☎497－3800

조 규 혁 종합보험 ☎233－6236

Sun Life (윤 호 영) ☎922－3111

번역및통역

번역 CHARLES YU(유죄석) 통역은
10 SUNRISE AVE. UNIT203 TOR. 월요일만
통역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합니다.

각종서류 번역및 법정통역,
정부기관 통역등 해드림.
☎281－1677 이영화(전 대학강사)

불 교

대 각 사 ☎ : 463－8998
11 Dawson Ave. Tor. Ont.

불 광 사 ☎ : 223－9152
288 Hownslow Ave.

선 련 사 ☎ : 532－3491
46 Gwynne Ave.

사 진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 : 534－1085 김 춘 탁 619 BLOOR ST. W.

무지개 칼라－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438－4435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535－2143

미 도 파
454 Bloor St. W. ☎536－1692

빅·세븐
678 Bloor St. W. ☎ : 533－7966

Mister Oh for Men
☎ : 964－2606, 869－0589,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366－0960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스 포 츠

브랜든 운동구점(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취급
337 BLOOR ST. W. ☎ : 598－3732 이 건 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 PM. 토요일 10AM－6 PM
880 Ellesmere Rd. Scarboro. ☎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Kipling × Albion)
☎ : 742－1205(B), 745－1632(R) Mr. 마

시설및 수리

"가게및 집수리 일체" Mr. Kim
시설및 수리(상. 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 : 425－8585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보수·가게신설·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669－5784 미스타 심

전기시설·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전화: 270－3118 오 현 구

FINE WOODWORK 목공소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싸우나 설치, 진열장
전화: 676－1173, 769－9468 찬장등 가구제작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 주중＝낮12시～저녁10시, 주말＝낮12시～밤12시
■주소 : 2432 Eglinton Av. E. Scarboro(at Kennedy)
☎ : 759－8512 최 영 효

동 궁 (홍콩식 중화요리 전문)
영업시간 월～금 오전11시30분부터～새벽 1 시까지
토 오후 4 시30분부터～새벽 1 시까지
일 오후 4 시30분부터～ 밤10시까지
1416 VICTORIA PARK AV. (South of Eglinton) 757－6884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 : 532－0602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 까지 : 낮12시～새벽 1 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 :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 : 536－8666

한 국 관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대소연 200석 완비
OPEN 11 : 00AM～1 : 00AM
628 BLOOR ST. W. (☎ : 536－0290, 531－0277)

클링턴하우스
693 Bloor St. W.
☎ : 535－9541 김 영규

거 구 장 5 Bethridge Rd.
☎ : 742－1618

기 타

인생의 어려운 문제점들을 풀어나가시는데 도움을 드리는 Lady "M"을 찾아 오세요.
1344 ST. CLAIR. W. 전화: 652－1495

＊ 한국일보 안내광고 ＊